

제1차년도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의 성과 및 발전방향

2010. 3

박 서 춘 · 이 정 근 · 서 광 국
전 병 힐 · 박 노 욱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프로그램 개요

14:00 ~ 14:10 개회사 및 축사

- ▶ 개회사 |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 축사 |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정책관

14:10 ~ 16:40 주제발표 및 토론

- ▶사회자 | 윤영진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 ▶발표자 | 박서춘 부산광역자활센터 센터장
 - 「 1차년도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의 말착사례 관리 결과 발표 」
이정근 경기광역시자활센터 센터장
 - 「 복지고용통합 지원을 통한 자활 성공 사례보고 」
서광국 중앙자활센터 성과관리팀장
 - 「 1차년도 사업의 모니터링 결과 보고 」
전병힐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 1차년도 사업의 성과 분석 」
박노옥 한국조세연구원 성과관리 센터장
 - 「 1차년도 사업의 주요 쟁점과 발전방향 」
- ▶토론자 |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실 연구위원
이상은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영범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상대 기획재정부 복지예산 과장

16:40 ~ 17:00 객석토론 및 종합정리

17:00 폐회

「희망리본 프로젝트」 개요

□ 목 적

- ① (저소득층) 근로-복지 서비스의 One-stop 제공으로 취업촉진
- ② (수행기관) 수행기관 경쟁공모 및 실적에 따른 성과급체계 구축으로 자활성과 제고

□ 법적 근거

-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직접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수행

- * 기초법 제15조 1항 :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 * 시행령 제19조 : “보장기관은 ... 직업상담 및 직업적성검사 등 적절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직접 또는 직업안정기관에 위탁하여 제공할 수 있다

□ 사업 개요

- (대상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3,200명)
- (사업지역) '09년 부산, 경기 → '10년 부산, 경기, 전북, 인천
- (서비스)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 일자리 및 복지서비스 제공
 - 근로의욕고취 프로그램 가사·돌봄·간병 서비스 등 복지서비스 일괄 제공으로 실질적 '취업애로요인' 제거
- (기관성과급) 저소득층 취업률 등에 따라 수행기관 예산 차등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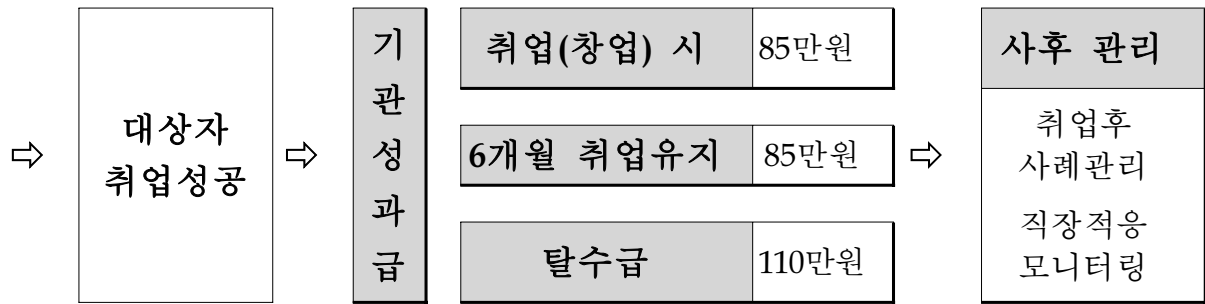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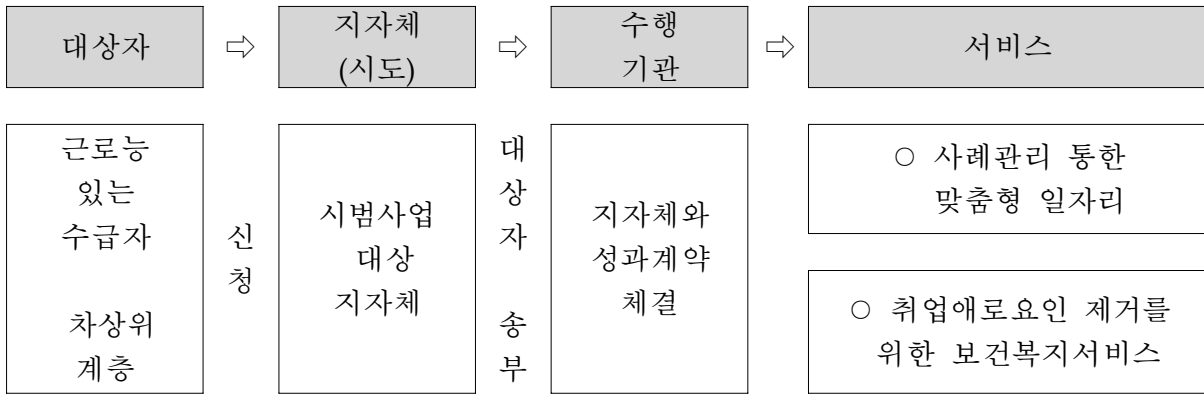
【 예산 지원 방식 】

구분 (1인당 지원액)	기본급	성과급		
		취업(창업)	6개월 이상지속시	탈수급
430만원(100%)	150만원(35%)	85만원(20%)	85만원(20%)	110만원(25%)

□ 사업 프로세스

- (사업준비) 사업지역 공모, 선정 → 선정된 지자체와 수행기관간 성과계약 체결
- (대상자 모집) 수급자 등의 참여 신청 → 지자체 모집완료 → 수행기관에 명단통보 → 참여자 확정
- (서비스) 수행기관의 취업처 알선 및 복지서비스 일괄제공

【 시범사업 프로세스 】



□ 기존 사업과의 차이점

구분	기존 자활사업	희망리본 프로젝트
지원방식	수행기관 단위로 일률적인 기관 운영비 지원 (input 중심)	대상자 개인단위로 성과에 따른 서비스비용 지원 (outcome 중심)
일자리 성격	공공재정투자에 의한 창업위주	자활사업 참여경험을 통한 일반 노동시장에서의 취업비중 확대
성과계약	성과계약 미체결	성과계약 체결
기대효과	인건비 제공 성격의 단순일자리	이직율이 높은 저소득층의 자활촉진과 경제활동 유지에 긍정적인 인센티브로 작용

목 차

「1차년도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의 말착사례 관리 결과 발표」

부산광역시자활센터 센터장 박서춘

I. 추진계획 평가	3
II. 집행내용	11
III. 성과	21
IV. 종합평가	30

「 복지고용통합 지원을 통한 자활 성공 사례보고 」

경기광역시자활센터 센터장 이정근

I. 사업개요	53
II. 운영시스템구축사업	57
III. 대상자 개인별 복지고용서비스 지원결과	59
IV. 복지 및고용네트웍구축사업	69
V.서비스 품질관리 및 성과관리 사업	70
VI. 대외홍보사업	72
VII. 취업관련 성과보고	74
VIII. 2009년 사업평가 및 개선방향	78

「 1차년도 사업의 모니터링 결과보고 」

중앙자활센터 성과관리팀 팀장 서광국

I. 개요	87
II. 모니터링 진행 결과	90
III. 마무리 하며	104

「 1차년도 성과관리형 자활사업 분석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전병힐

I. 서론	115
II. 시범사업의 참여자	118
III. 시범사업의 서비스 유형 및 결정요인	130
IV. 시범사업의 경제적 성과	138
V. 결론	166

「 1차 연도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의 주요 쟁점과 발전 방향 」

한국조세연구원 성과관리센터 센터장 박노욱

I.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의 도입 배경과 목적	171
II.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의 주요 쟁점과 1차 연도 시범사업 평가	174
III.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의 발전 방향	182

1차년도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의 말착사례관리 결과 발표

2010. 3월

부산광역자활센터

박 서 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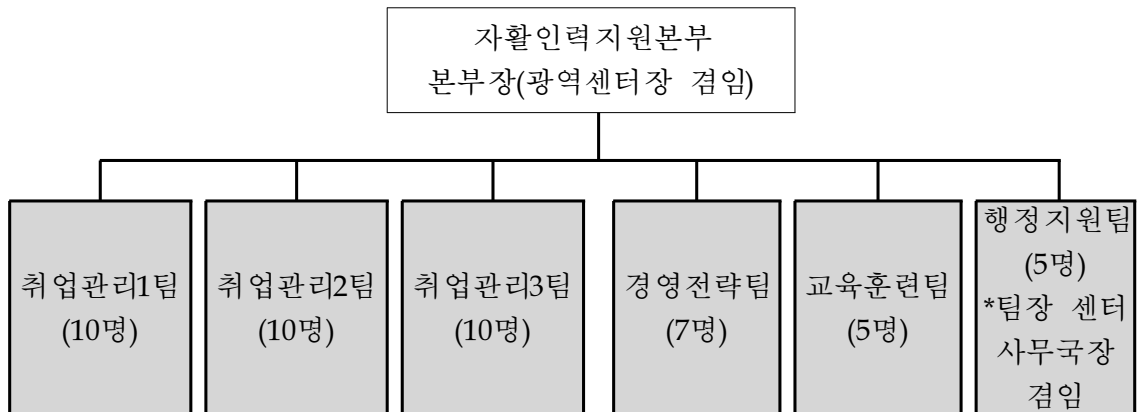
2009년도 성과관리 자활사업 최종결과 보고서

I. 추진계획 평가

□ 기본사업계획(※ 승인된 실행계획)

① 사업제안(계획)서 요약

- 수행조직 : 1본부 6팀
- 인 력 : 본부장, 6팀장 등 총 48명으로 구성(신규채용 46명)
- 조 직 도



- 사업목표
 - 참여자 취(창)업 : 200명(20%)
 - 6개월이상 취(창)업유지율 : 120명(60%)
 - 탈 수급, 최저생계비 120%이상 소득유지 : 100명(10%)
 - 참여자 정신교육, 창업처 현장교육 등 : 150명(15%)
- 추진전략
 - 추진본부 직원 1인이 참여대상자 35명 전담사례관리 및 취(창)업, 맞춤형 교육, 사후 관리 등 탈수급까지 책임관리
 - 가정 및 취업 현장 방문을 통한 대상자별 밀착형 사례관리
 - 지역 유관기관, 관련단체, 기업체, 복지기관 등 구인처와 업무협약 및 연계를 통한 참여자 맞춤형 일자리 제공
 - 취업, 6개월이상 취업유지, 탈수급 등 직원 성과에 따른 성과급지급

- 전담사례관리, 맞춤형 교육 및 구인처 발굴, 행정지원 등 **업무분담을 통한 사업성과 극대화 추진**
- **지역자활센터와 협의**를 통한 취업, 창업, 복지서비스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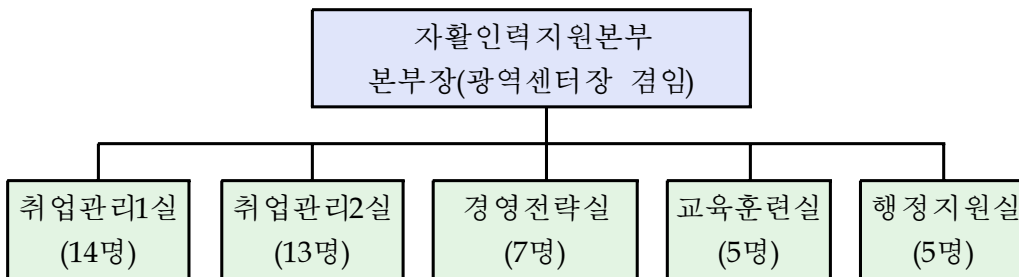
○ 예산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예산항목	총 소요예산	정 부 지원금	자 체 부담금	산출내역
총 계	2,611.9	2,611.9		
기본금 소계	1,505.9	1,505.9		
기				○ 팀장 : 2.3×10월×4명
본				○ 팀원 : 1.8×10월×41명
금				○ 월 29.5×10월
인건비	821.9	821.9		○ 사무실 준비, 차량구입 등 218.0
운영비	330.0	330.0		○ 참여대상 취업교육 및 정신교육
사무실 준비	218.0	218.0		
대상자 교육	136.0	136.0		
참여자 실비	571	571		○ 1인 연간 60만원 이내
성과급 지급	535	535		○ 취업성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

② 기본사업계획대비 변경사항

- 수행조직 : 1본부 5실
- 인 력 : 본부장, 5실장 등 총 45명으로 구성(신규 채용 43명)
- 조 직 도



- 사업목표대비 추진실적

(2010. 2. 28일 기준)

구 분	사업목표	추진실적	성과급신 청	비 고
참여자 취(창)업	200명	392명	367명	·총취업자수 : 572명 ·취업 373명, 창업 19명
취(창)업 유지	120명	284명 (현 취업유지)	92명 (6개월)	·1개월이상 71명 ·3개월이상 180명
탈수급 추진	100명	69명	67명	·6개월이상 105명
참여자 교육	150명	212명		

※ 추진실적과 성과급 신청자수가 차이나는 이유

- 836천원 이하 취업, 9~10월 집중 취업 등으로 차이남

○ 예산집행계획대비 집행현황

예산항목		집행계획 (A)	집행액 (B)	비교 (A-B)	비율	산출내역
총 계		2,611.9	2,223.4	388.5	100.0%	
기본금 소계		1,505.9	1,523.1	-17.2	68.5%	
기 본 금	인건비	821.9	857.7	-35.8	56.3%	○ 팀장 : 2.3×11월×4명 ○ 팀원 : 1.8×11월×41명
	운영비	330.0	197.9	132.1	13.0%	○ 월 19.99×11월
	사무실 준비	218.0	414.3	-196.3	27.2%	○ 사무실 준비, 차량구입 등 414.3
	대상자 교육	136.0	53.2	82.8	3.5%	○ 참여대상 취업교육 및 정신교육
참여자 실비		571	474.2	96.8	21.3%	○ 1인 연간 60만원 이내
성과금 지급		535	226.1	308.9	10.2%	○ 취업성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

□ 추진과정

① 사업추진시기의 적절성

○ 월간/분기별 계획 및 집행내용(수량화 기술)

구 분	사업계획 단계별 추진목표	목표대비 추진현황(실적)
·09.2월 준비	·사무실 조성 및 직원채용	
·09.3~5월(1단계)	·참여대상자(1,000명) 선정 ·창업아이템 개발	· 4월 본부 사무실 등 준비 · 5월 기초상담 등 조사
·09.6~8월(2단계)	·참여자 취(창)업 247명 ·맞춤형 교육 : 50명	· 취(창)업 : 214명 · 교육 : 69명
·09.9~11월(3단계)	·참여자 취(창)업 128명 ·맞춤형 교육 : 50명	· 취(창)업 : 188명 · 교육 : 124명
·09.12~2월(4단계)	·참여자 취(창)업 89명 ·맞춤형 교육 : 50명	· 취(창)업 : 135명 · 교육 : 19명

<붙임 1 > 자치구(군)별 참여대상자수 및 취(창)업수

② 사업추진내용의 적절성

○ 참여대상자 모집방법(내용)

- 2009. 2~3월 참여대상자 1,000명 모집을 위하여 시, 자치구(군) 담당 복지직원과 2월·3월 2차례에 걸쳐 회의 및 기일내 대상자 모집이 저조하여 자치구 담당계장 독려 자치구·군별 모집인원 배정 등을 통하여 대상자 1,091명 모집 등 대상자 모집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 (대상자 모집시 애로사항) 2009. 1월 기존의 자활사업에 근무하여야 할 자활사업 대상자를 모두 모집한 이후 본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다보니
- 자치구(군)별 대상자 모집인원 배정(할당), 자치구(군)에서는 동주민센터별 대상자 할당 등 무차별, 강제적인 대상자 모집이 되어 기초조사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대상자가 많았으며, 기초조사 이후에도 억지로 본 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많이 있었음

○ 참여대상자 기초조사: 전체 대상인원 1,091명(추가 28명 포함)
- 조사기간 : 2009. 5. 1 ~ 5. 12(7일간)
- 조사인원 : 838명(83.8%) ▷수급자 702명(83.8%), 차상위 136명(16.2%)
- 기타 : 기초조사 연기 52명, 사업불참 201명(자치구 재확인 추진)
※ 즉시 취업을 원하는 수급자 425명, 신용불량자 258명

- 그러나 의외로 기초조사이후 생계가 급하여 바로 취업을 하겠다는 대상자 조사이후 485명 취업 희망, 바로 취업이 안될 경우 본 사업 참여를 포기하고 급여가 바로 나오는 자활사업장으로 가기를 희망가 많이 있어 사업초기 취업 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함.
- 2010년 사업추진시에는 자치구(군)으로 대상자를 할당하는 강제적인 모집보다는 2009년 사업에 참여하여 취업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인근에 어려운 사람을 안내 협조요청하고 있으며
- 자치구(군) 순방, 복지담당직원과 회의를 통하여 신규로 책정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자활사업에 안내하기 보다는 기업체에 취업을 우선으로 하는 본 사업에 안내하기를 협조요청하고 대상자 모집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으나
※ 자치구(군) 순방(3.9~3.15일) : 시 자립지원계장, 센터장, 주무관, 본부 실장 합동으로 자치구 담당과장, 계장, 주무관에게 협조요청

- 2010년 신규로 시작되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사통망) 미비로 인한 업무과다와 2009년 자활사업 예산보다 2010년 자활사업 예산이 많이 배정되다보니 본 사업보다는 자치구(군)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 대상자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 또한 각 지자체의 지역경기부양을 위하여 매년초 예산 조기집행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자활사업장에 투입할 대상자 모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희망키움통장 대상자 모집, 희망근로 대상자 모집 등으로 인하여 2010년 본 사업 참여 대상자 모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3월이후 수급자 동주민센터 신고 등 절차가 이행될 것 경우 다소 나아질 것으로 사료됨

○ 참여대상자 교육방법(내용)

- 2009년 2월 자치구(군)에서 대상자 모집이후 본 사업 착수(5.1일 이후 기초조사, 5.20일 이후 취업착수)까지 2~3개월간 사업착수가 늦어짐에 따라 '09년 2월에 사업참여를 신청한 수급자, 차상위자들중 생계가 급한 대상자는 불평과 동시에 빠른 취업을 요구하였으며
- 본부 사례관리사 1명이 대상자 40명을 전담하여 사례관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업스킬교육, 대상자가 원하는 계좌제 등 교육 소개 및 교육수강 확인 신용불량 대상자 신용회복 방법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 취업을 기피하고 우울증 등 장기간 깊이있는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 부산시(사회복지과 권복순 자립지원계장)에서 개발한 자립마인드 향상 프로그램인 심밭에 밑알심기 프로그램 훈련을 실시한바 있음
- 또한 알코올 중독자의 경우 부산알콜상담센터를 통한 치료 대상자 본인이 장애인줄을 모르고 생활하는 대상자를 장애인 판정지원을 통한 지적장애판정 이후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통한 취업 등 사례관리사가 대상자를 교육시키고 취업시키는 데 주력하였으며
- 사례관리사가 교육 및 사례관리하기 어려운 대상자(장기간 깊이있는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 취업실 실장·실원의 사례토의와 본부장, 실장, 실원 모두가 참석한 사례토의를 통하여 대상자 교육방향, 사례관리 방향을 확정하여 취업을 알선하였음

○ 참여대상자 서비스 요구 및 연계내용

- 2009년도 참여대상자를 살펴보면 남성보다는 여성(78%)이 많으며 20대에서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 알코올리즘 대상자·신용불량자·마음먹은 대로 되지않아 신경질적인 대상자, 장기간 실업상태로 취업을 기피하는 대상자 등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함으로 본부 사례관리사들에게 마음으로 접근하도록 교육하였으며

- 요양보호사, 한식요리 등 특정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본부 사례관리사가 대상자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였음
- 한 사례로 고氏 쌍둥이 자매의 경우 자기 의사표현이 미숙하고 자매의 부친이 생계가 급하다고 보니 딸의 장애를 모르고 생활하는 것을 본부 사례관리사가 병원진단을 통한 지적장애 판정과 장애판정이후 자립마인드 향상 프로그램인『심밭 밑알심기』 프로그램 교육을 통한 대인관계교육 및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연계한 취업으로 사회생활을 하도록 한 사례도 있음.

<붙임 2 > 참여대상자 교육연계실적

○ 본부 종사자 모집 및 교육

- 본부 종사자 43명은 취업관리, 기업체 발굴, 교육훈련, 행정지원 등 직원이 근무할 업무에 맞게 채용공고를 통하여 공개채용을 하였으며
 - 실장 4명, 실원 39명(기초생활수급자4명 포함)
 - 채용결과 : 사회복지사 15명, 직업상담사1, 경영지도사 2 등 총 24명관련 자격증 보유
- 직원 채용과 동시에 직원 워크샵을 통한 본사업 지침교육, 사례관리 교육 및 애로사항 발생시, 분기1회이상 직원 능력향상, 직원 팀워크 향상을 위한 워크샵(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였으며
 - 4월말 직원채용이후 첫회 워크샵 등 총 7회 워크샵
- 전직원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다보니 퇴근이후 직원상호간에 토의를 통한 발전 방안 모색, 애로사항 토의 및 본부장, 실장이 참여한 토의를 통하여 직원능력을 향상하고 취(창)업을 최선을 다하였음.
 - 수시 본부직원과 본부장과의 대화시간을 통한 사례관리 협의
- 또한 직원 개인능력 향상을 위한 MBTI 등 적성검사 교육, 직업상담사 자격증 취득 교육등에 최대한 지원하고 있음
 - 2010. 3. 7일 : 직업상담사 자격증 취득시험 응시(22명)

<붙임 3 > 직원 교육실적

③ 성과목표의 부합성

- 2009년도 시범적으로 처음 시도되는 사업으로 인하여 당초 사업계획수립시(2008년도 시장진입형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자활성공 비율8.0%)을 반영하여 탈수급 등 계획을 수립 하였으며
- 지역내 기업체 현황 등을 반영하여 취업목표 확정 외국 선진사례를 참조하여 본부 조직 구성 계획 수립 사무실 공간 확보 등 목표를 이행하고자 전직원이 합심 최선을 다하였 으나
- 사업초기(2009. 3월) 맥시머스사와의 사업추진과정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사업착수가 2009년 6월에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사업기간 짧아 탈수급(100명) 목표 달성은 현재 다소 미흡하나 취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9~11월 취업자가 6개월 동안 유지를 한다면 탈수급 목표 달성도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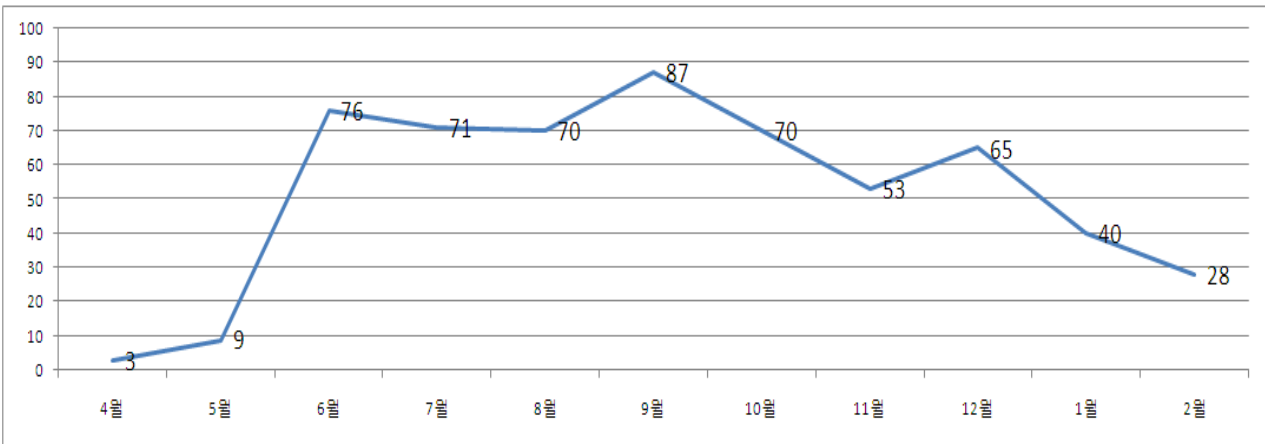
<표 1-1> 사업목표 대비 추진실적

구 분	사업목표	추진실적	성과급 신청	비 고
참여자 취(창)업	200명	392명	367명	·총취업자수 : 572명 ·취업 373명, 창업 19명
취(창)업 유지	120명	284명 (현 취업유지)	92명 (6개월)	·1개월이상 71명 ·3개월이상 180명
탈수급 추진	100명	69명	67명	·6개월이상 105명
참여자 교육	150명	212명		

※ 추진실적과 성과급 신청자수가 차이나는 이유
- 836천원 이하 취업, 9~10월 집중 취업 등으로 차이남.

<표 1-2> 월별 취(창)업자수

구 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합계
취업자수	3	9	67	60	55	80	61	44	60	38	25	502
취업자수 누계(A)	3	12	79	139	194	274	335	379	439	477	502	502
현재취업 유지자수(B)	3	7	28	25	17	32	37	23	38	28	24	262
836천원미만 일자리(C)	0	0	9	9	9	5	7	8	3	1	0	51
창업자수	0	0	0	2	6	2	2	1	2	1	3	19
창업자수 누계(D)	0	0	0	2	8	10	12	13	15	16	19	19
현재창업 유지자수(E)	0	0	0	2	6	2	2	1	2	1	3	19
취(창)업수 계	3	9	76	71	70	87	70	53	65	40	28	572
취(창)업 유지자수 계	3	7	28	27	23	34	39	24	40	29	27	281



※ 6월 이후 취(창)업이 집중적으로 실시된 12월까지 월 70.28명을 취업시켰으며 취업관리실 직원 1명당 매월 2.6명을 취(창)업시킴.

II. 집행내용

□ 취업지원 사례관리 업무

① 업무인원 : 본부장, 사무국장을 제외한 본부직원 42명(공개채용)

- 취업관리 1·2실 27명 : 대상자 사례관리 및 취(창)업 추진
- 경영전략실 7명 : 구인기업체 발굴을 통한 취업지원
- 교육훈련실 5명 : 대상자 교육 및 직원 교육인원
- 행정지원실 3명 : 실비, 기본금 지급 등 행정지원

② 취업前 업무내용(주요지원 내용/기타지원내용)

- 주요지원 내용(기본사항) : 대상자별 초기상담과 유형별 구분척도에 의한 정확한 욕구 파악 후에 개인별 활동계획(ISP)수립 후 1:1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였음
 - 먼저 대상자별로 근로욕구 고취를 위한 근로동기 강화를 위해서MBTI, STRONG 검사를 활용한 심리상담 및 진단검사를 지원하였고 취업욕구 있는 대상자의 근로역량 강화교육실시를 위해서 기술교육 자격증 취득교육 등 직능교육을 대상자 실비와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활용하면서 취업前 사례관리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음
 - 개인별 맞춤형 취업정보제공 후에 취업알선에 동의하는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이력서작성과 면접스킬 등 취업소양교육을 실시하고 난 후에 사례관리사가 직접 본부 차량을이용하여 동행면접을 지원하였음 그리고 취업처가 정부 또는 지자체 유관기관 및 복지시설 유관기관인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자활인력본부장 명의로 추천서를 발급하여 서류심사 과정에서 일익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특이사항 : 초기상담 및 사례관리과정에서 도출된 근로장애요인 해소를 위해서 양육이나 돌봄 등의 취업장애요인 제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음 특히, 대상자별로 장기요양보험등급인정 신청지원이나 기타 요양보호나 장애인 돌보미 서비스지원을 위한 장애등급 신청, 기타 밑반찬 도시락배달서비스 등 복지관 재가서비스지원과 맞춤형 방문간호서비스(예:정기적 건강검진)를 통해서 취업욕구는 있으나 취업 장애요인 때문에 취업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차별화된 취업前 사례관리를 지원하였음

- 기타지원 내용 : 취업에 대한 욕구와 삶에 대한 의욕이나 목표의식도 부족한 참여 대상자에게는 부산시 자체에서 개발한 자립마인드향상 프로그램인 『심(心)밭에 밭알심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상자 스스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삶의 근본을 확립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실시함
- 이외에도 신용에 문제가 있는 대상자에게는 MOU 체결되어 있는 법무사와 적극 연계하여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 등을 상시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정신장애가 있는 심화관리대상자는 한국미술심리치료협회 및 정신보건지원센터의 전문가와 연계하여 심층적 상담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대상자에게 여가활용을 위해서 무료영화공연지원, 복지관광서비스를 연계 지원하여 가족이라는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였음.

③ 취업後 업무내용

- 기본지원사항 : 대상자에 대한 근로의욕 고취와 맞춤형 취업알선을 통해서 새로운 직장에서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대상자에게 지속적인 근로유지를 할 수 있도록 취업 초기에 격려문자 발송, 주기적인 안부 및 격려전화 그리고 근로자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서 취업처를 방문하는 등 취업유지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함또한, 취업자에게는 대상자 실비를 취업유지 및 격려금으로 적극 활용하면서 지속적인 근로가 가능하도록 지원하였음.
- 그리고 새롭게 변화된 직장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중도퇴사자에 대해서는 사례관리자가 끝까지 대상자를 포기하지 않고 이전의 취업알선과 퇴사한 직장의 문제점을 재분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사례관리를 계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근로의지를 강화해가기 위한 사례관리를 계속적으로 지원하였음
- 특이사항 : '09년 연말에는 취업자를 중심으로 취업성공자대회(희망리본 가족의밤)에 초청하여 취업자뿐만 아니라 잠재적 취업가능자가 함께 어울리는 취업성공자대회에서 대상자에게 다시한번 자존감을 심어주면서 우리 자활인력본부가 지속적인 성원과 지지를 보내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음
- 기타지원 내용 : 취업자에게는 탈수급을 통한 자립이라는 마인드를 계속 함양시키면서 수급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인 자산형성지원사업(SA)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탈수급에 한발 더 다가 갈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이외에 취업처에서 일하는 동안 근로장애를 없애기 위해서 대상자 가족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나, 의료비지원, 자녀학자금 혜택을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직장에서 편안하게 맡은바 직무에 충실하게 일 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음

- 또한 우리 참여대상자 다수가 근무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인사담당자와 유대관계를 강화하면서 근무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면서 사례관리를 실시하였음.

□ 사업비

① 기본금 집행 및 실적(율)

○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09.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0.1월	2월	합계
합 계	276	128.8	128.8	128.8	130.8	128.8	128.8	128.8	189.4			1,505.8
인건비	30.6	91.5	91.5	91.5	91.5	91.5	91.5	91.5	150.1			821.9
운영비	27.4	37.3	37.3	37.3	39.3	37.3	37.3	37.3	39.3			329.9
사무실 준비	218											218
교육비		17	17	17	17	17	17	17	17			136

○ 집행

(단위 : 백만원)

구 분	'09.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0.1월	2월	합계
합 계		484	150.1	123	99.7	107.4	124	107.6	119.5	94.9	112.9	1,523.1
인건비		68.1	85.7	91.7	83.8	83.1	101.9	81.9	88.8	80.7	92.0	857.7
운영비		39.8	14.9	27.6	15.5	20.7	15.1	16.1	19.5	10.9	17.8	197.9
사무실준비		371.6	41.7	1	0	0	0	0	0	0	0	414.3
교육비		4.5	7.8	2.7	0.4	3.6	7	9.6	11.2	3.3	3.1	53.2
계획-집행	276	-355.2	-21.3	5.8	31.1	21.4	4.8	21.2	69.9	-94.9	-112.9	-17.3

② 실비 집행 및 실적(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09.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0.1월	2월	합계
집행계획 (A)	11	70	70	70	70	70	70	70	70			571
집행실비 (B)		8.3	13.2	17.8	30	91.1	94.8	97.8	45.4	30.4	45.7	474.5
A-B	11	61.7	56.8	52.2	40	-21.1	-24.8	-27.8	24.6	-30.4	-45.7	96.5

③ 성과금 집행 및 실적(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0.1월	2월	합계
수령계획(A)		85	68.8	55.7	44.8	36	28	161			534.6
성과금 수령(B)				28.9	27.2	32.3	31.4	35.7		70.5	226
A-B		85	68.8	26.8	17.6	3.7	-3.4	125.3	0	-70.5	308.6

※ 2010. 1 ~ 2월 탈수급 성과금 신청 : 40명 (44백만원)

④ 예산 활용 적정성

- 2009년도 최초사업계획 수립시 부산시에서 본 사업을 부산시로 유치하기 위하여 2007년도부터 인zier스사와 협의한 내용(사례관리사 1인이 대상자 35명~40명을 관리) 참조하여 조직 구성 신규인원 채용 등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 복지부 계획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인건비 운영예산과 사무실 조성, 대상자 사례관리 및 취업을 위한 차량구입 등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였으며
- 신규직원으로 구성된 조직이 사무실 한공간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직원상호간 실장과 과직원간의 사례관리 토의, 본부장과 실장 및 직원간의 사례관리 토의, 외부 강사를 초청한 사례관리 토의 등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애로사항을 해결하면서 취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었으므로 기본금 예산편성은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사료됨
- 그러나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실비는 일반적으로 기업체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일하기가 편한 지역자활사업 또한 희망근로사업 본사업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아니하는 대상자도 있어 실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 창업을 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도 수익이 낮다고 신고하여 탈수급을 하지 않는 대상자도 있어 실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 타지역으로 전출, 사망, 군입대 등 사유가 발생하여 실비를 반납하게 되었음
- 성과금 예산계획은 당초 탈수급 성과금 수령시점을 생계급여가 중단되는3개월 시점으로 계획하였으나 취업이 유지되는6개월 이후 수령시점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난해 8~9월에 취업한 대상자에 대해 현재 결과가 도출되고 있으며10월이후 취업한 대상자

는향후 계속적으로 취업지속 사례관리를 실시하여4월이후 성과금을 신청될 계획임으로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 6개월 취업을 유지하여도 월보수액이 생계급여기준인 가족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여 수급자를 유지하는 대상자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당초계획 보다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 홍보

① 주요홍보

- 대상자가 근무하고 있는 (주)정관 기업체를 방문한 취업성공사례 홍보
 - 일 시 : 2010. 1. 8(금)~9(토) 2회 방영
 - 언론사 : “KBS 뉴스” 방영
 - 참여대상자 : 오O희
 - 취업기업체 : (주)정관
 - 내용 : 본부 사업소개, 2009년 취(창)업 실적 2010년 참여대상자 모집 외 본부 사무실촬영, 본부장 인터뷰, 참여자 근무기업체 방문 촬영, 참여대상자(오O희) 인터뷰 등
- 취업성공사례 홍보
 - 일 시 : 2010. 1. 29(금) 11시 *11분 방송
 - 언론사 :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만들기(전국방송)』 방송
 - 참여대상자 : 지체장애3급의 “김O식”씨와 부인 “판OOO엔”씨
 - 취업기업체 : 판OOO엔씨 (주)청우물산, 김O식씨 세미테크
 - 내용 : 희망리본 프로젝트 대상자이며 다문화 가정의 가장인 지체장애3급의 “김O식”씨와 부인 “판OOO엔”씨의 취업과 관련 자활인력지원본부 소개 2009년 사업 실적 및 2010년 참여대상자 모집에 대한 내용으로10여분 방송
- 성과관리 취업실적 신문사(1면 톱) 홍보
 - 일 시 : 2009. 12. 31 (목)
 - 신문사 : 국제신문
 - 제 목 : 『“다시 일어서야쥌 취약층에 손 내밀다』
 - 주요내용 : 저소득층 자활시범사업 부산희망리본프로젝트’
1,000명 중 460명 취·창업 큰 성과 거둬

- “MBC 부산뉴스” 방영
 - 일시 : 2010. 1. 9(토) 2회 방영
 - 내용 : 본부소개, 2009년 취(창)업 실적 2010년 참여대상자 모집 등

<붙임 3 > 언론사 홍보실적

② 언론사, 신문사 홍보

- 지역신문, 방송매체, 복지신문, 시보, 자치구 구보, 지하철 등 다중집합장소에 무료로 배부되는 매트로 등 무료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였으나 본 사업을 널리 알리는 홍보 부분은 전세계적으로 발생한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하여 다소 적었다고 판단됨.
- 저소득층이 가장 쉽게 찾는 매트로 등 무료신문과 지역신문사를 통한 홍보 등을 실시하여 저소득층을 본사업에 참여시키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 대상자의 생계급여를 결정하는 자치구 동주민센터 복지직원이 본 사업에 적극적인 호응으로 지역의 대상자를 본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취업을 기피하는 대상자의 경우 적극적으로 취업을 하도록 하는 독려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나
- 2009년도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업의 특수성 주민센터 복지직원 1명이 지역의 저소득층을 전부를 관리하여야 하는 업무과다 지난해 서울 등 타지역에서 발생한 복지직원의 사건으로 인하여 전직원 감사 및 직원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협조가 미흡하였음.
- 금년에는 전국 지자체에 대한 복지부의 평가시 평가항목으로 일반기업체 취업하여 탈수급시킨 수치를 평가점으로 부여하여 자치구(군), 동주민센터 복지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 본 사업을 TV, 라디오 등 전국방송매체를 통한 홍보로 저소득층의 참여를 많이 이끌어내고 대상자가 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지역기업체를 본사업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영상물을 통한 중앙단위 홍보와

- 노동부사업과 동일하게 대상자를 취업시킨 기업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및 일반 기업체 취업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희망키움통장을 지급하는 인센티브가 절실히 필요함

③ 기타 팜플렛 등 홍보

- 부산시 자활인력지원본부 홍보 팜플렛 및 리플렛 제작 및 배포
 - 본부 취업실적 및 참여대상자 지원사항 등을 중심으로 성과관리자활사업 팜플렛 2,000부 및 리플렛 2,000부 제작
 - 16개 자치구(군) 및 215개 자치구 동주민센터(우편발송)
 - 지역종합사회복지관 등 저소득 층 지역주민 방문 용이한 장소 배포 및 기업체 방문시 배포를 통한 홍보
- 『희망리본 가족의 밤』 개최
 - 일시·장소 : 2009. 11. 17 (화) 19:00, 크리스탈부페
 - 내용 : 참여대상자와 사례관리자의 화합도모 및 취업성공사례 발표
 - 참석대상 : 총 173명(사업참여대상자 및 가족 158명, 시 사회복지과장·동주민센터담당공무원, 본부직원 등)
- 2010년도 성과관리 자활사업 관련 지역언론사 광고홍보
 - 홍보기간 : 2009. 12월 ~ 2010. 3월말
 - 홍보방법 : 메트로 및 포커스 격주 1면 지면광고
 - 내용 : 성과관리자활사업 홍보 및 2010년 대상자 모집 안내

□ 사업방식의 효율성(자체평가)

- 사업추진체계 형태의 적정성(잘된점/미흡한점)
 - 2009년 본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신규직원43명 채용, 수차례 직원간의 워크숍을 통한 추진방법 점검, 대상자 밀착사례관리를 위한 취업관리실과 구입 기업체 발굴을 위한 경영전략실 대상자 및 직원교육을 위한 교육훈련실 전직원이 본사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실 등 사업추진체계는 적절하였다고 판단되나
 - 부산시 16개 자치구(군)를 취업관리실별로 배정을 통한 조직적인 자치구 동주민센터 관리 및 대상자 전담관리, 직원 개인 취업성과에 따른 성과금이 차등 지급됨으로 일부직원의 경우 유익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지 않고 보유하는 점 지역자활센터 취업지원사업 및 인큐베이트 사업과 협조하지 못하는 점 등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성과금지급방식 및 규모의 적정성(잘된점/미흡한점)

- 전직원 기본점수를 부여하고 취업사례관리 직원의 **취창)업실적**에 따른 취업가점, 구 인기업체 발굴을 통한 대상자 취업연결가점 실장의 실원평가 가점, 본부장 직 원 평 가 가점 등을 통한 직원실적 평가를 종합한 점수를 통하여 직원들에게 성 과금을지 급하였으며
- 취업실적이 높은 직원에게는 높은 성과금을 실적이 미진한 직원에게는 기본성과 금 을 지급하였으며 기본취업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직원은 감봉과 재계약 취소를 실시 하여 전직원이 본 사업에 매진하도록 한 성과금지급방식은 적절하다고 사료 되나
- 성과금 지급방식이 개인 취업실적 중심보다는 취업실 경영전략실 등 실의 발전 과 본부 전체의 발전을 위한 인센티브가 없었던 점은 향후 개선하여야 할 사항 으로 판 단됨.

○ 유사사업과의 중복이나 관계성(잘된점/미흡한점)

-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알선하는 사업은 다소 모집하는 대상자가 다를 뿐 행자부 의 희망근로, 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복지부 지역자활센터에서 실시하는 자활 사업 인큐베이트 사업, 취업사례관리 등 저소득층 대상자가 혼돈할 정도로 중복 이 많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 자치구 동주민센터 복지직원이 업무를 파악하는 데 혼란을 가중시켜 업무의 집중 과 효율성이 떨어짐으로 단순하게 통합할 필요가 있음

○ 사업진행정도의 적정성(잘된점/미흡한점)

- 본 사업 참여대상자들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82%)로 수급자로 책정된 것을 자 랑 하고 있으며 굳이 일을 안해도 다양하게 정부 또는 기업체의 보조를 받고 있 음으로 현 생활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매우 높음
- 이러한 대상자를 기업체에 내보내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것으로 생각되었 으 나 본부 사례관리사 1명이 대상자 40명을 전담사례관리를 하면서 “할 수 있 다”는 자긍심 함양과 첫출근을 꺼리는 대상자의 경우 집에서부터 동행하여 기업 체에 출근 을 시키는 사례가 빈번하였으며
- 기업체 취업이후 사례관리를 통하여 자기 자신의 생활을 되돌아보게 하는 사례관 리

를 하였음. 생계가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대상자들에게 교육보다는 기업체 취업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진행은 적절하였다고 사료되나 20대의 경우 취업교육을 통하여 보다 나은 기업체 취업이 필요한 것으로 직원 워크샵시 논의되었음

○ 사업취지 및 시범사업 대상자의 적정성(잘된점/미흡한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밀착사례관리를 실시하여 기업체에 취업시키는 사업의 취지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2009년 대상자 모집시 자치구 동주민센터에 대상자 모집 인원을 할당하여 무작위로 취합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2010년 대상자 모집 홍보 협조차 자치구(군)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한 결과, 매년 2~3월은 예산결산, 자활사업 대상자 모집 등으로 인한 업무과다와 자치구(군) 직원인사발령 시점으로 인한 업무과약 등으로 대상자 모집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으며
- 자치구(군)이나 동주민센터에 신규 발령된 직원이 업무현황 파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상자 모집(600여명)을 부탁한다면 업무의 혼선과 혼잡으로 업무의 능률이 오르지 않을뿐더러
- 본 사업이 동주민센터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 본부 사례관리사와 복지직원간의 라포 형성에도 지장이 있어 향후 업무를 추진하는 데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자치구 통합조사팀에서 수급자를 신규로 확정하는 수급자는 자활사업장에 편성하기 보다는 기업체 취업을 우선으로 하는 본사업에 편성하는 것을 확정하고 일정기간(3~6개월)동안 기업체에 취업에 동주민센터 직원과 본부 사례관리사가 기업체 취업에 최선을 다하고 일정기간 동안 취업이 안될 경우에는 일하기 조금 쉬운 자활사업장 또는 공공근로 등 일자리로 편성하는 것이 필요함
- 2010. 3월 19일까지 대상자 모집 완료 등 모집기간을 확정하기 보다는 취업을 원하는 대상자는 항상 사업참여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매년 2월 고등 학교등 졸업자중 미취업자에 대한 참여 권유 희망근로를 신청하여 탈락된 저소득층 참여 권유, 조건부과제외자 및 조건제시유예자 중에서 취업이 가능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본 사업에 참여 권유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미취업자에 대한 계획수립 여부/수립 여부 및 내용

- 2009년 참여대상자에 대해 사례관리가 종료되는 시점(2010.2월말)에 취업이 어려운 대상자의 경우 자치구(군)에 통보하여 자활사업에 참여토록 조치하였으나 별도 계

획을 수립하지 않았음. 계속적으로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취창업이 가능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상반기중 취업에 다할 계획임

- 2010.2월말 취(창)업 유지 284명,
계속적으로 사례관리 54명,
자치구(군) 통보를 통한 자활사업 참여 권유 662명.

○ 전체 규모 및 사업항목별 예산의 적정성(잘된점/미흡한점)

- page 14 참조

○ 업체 및 대상자 홍보의 적정성(잘된점/미흡한점)

- page 16 참조

Ⅲ. 성과

□ 기본성과(※ 시스템에서 발취)

○ 취(창)업율

(단위 : 명)

고 용 형 태		취업자	재취업	3차취업	4차취업	합계
취업	정규직	108	39	9	1	157
	비정규직 - 상용직	198	57	21	7	283
	비정규직 - 임시직	61	16	5	1	83
	비정규직 - 일용직	10	2	2	0	14
창업		20	-	-	-	20
합계		397	114	37	9	557

- 임금분포 : 시스템상 정확한 산출이 어려움

○ 취업률 업종별 현황

(단위 : 명)

업종	취업자	재취업	3차취업	4차취업	창업	합계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3	2	2	-	2	19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0	-	3	-	1	14
제조업	88	37	14	3	-	142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4	3	-	-	1	8
전기, 가스, 수도사업	6	0	-	1	-	7
운수업	6	1	-	-	-	7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2	3	-	-	2	17
숙박 및 음식점업	51	21	4	2	6	84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57	19	5	1	-	8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3	11	2	-	6	72
도매 및 소매업	48	12	6	2	1	69
금융 및 보험업	2	1	1	-	-	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교육서비스업	15	2	-	-	-	17
건설업	11	2	-	-	-	13
가구내 고용활동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1	-	-	-	-	1
농업, 임업 및 어업						
합계	377	114	37	9	20	557

○ 취(창)업유지율

(단위 : 명)

고 용 형 태		취업자	재취업	3차취업	4차취업	합계
취업	정규직	78	6	-	-	84
	비정규직 - 상용직	126	9	1	1	137
	- 임시직	40	2	1	-	43
	- 일용직	1	0	-	-	1
창 업		19	-	-	-	19
합 계		264	17	2	1	284

- 임금분포 : 시스템상 정확한 산출이 어려움

○ 취업유지율 업종별 현황

(단위 : 명)

업 종	취업자	재취업	3차취업	4차취업	창업	합계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0	-	-	-	2	12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	-	-	-	1	4
제조업	52	4	1	-	-	57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2	2	-	-	1	5
전기, 가스, 수도사업	2	-	-	-	-	2
운수업	4	-	-	-	-	4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	1	-	-	2	9
숙박 및 음식점업	26	4	-	-	5	3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42	-	-	-	-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8	2	1	-	6	47
도매 및 소매업	37	4	-	1	1	43
금융 및 보험업	2	-	-	-	-	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교육서비스업	12	-	-	-	-	12
건설업	9	-	-	-	-	9
가구내 고용활동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	-	-	-	-	0
농업, 임업 및 어업	-	-	-	-	1	1
합 계	245	17	2	1	19	284

□ 취(창)업자 분석(본부분석 자료)

구 분	추진실적	비 고
◦ 취업자수 누계	553명	◦ 취(창)업 성과금 대상: 367명 - 취업 : 351명 - 창업 : 16명 ◦ 6개월 유지 성과금 : 92명 - 취업 : 84명 - 창업 : 8명 ◦ 탈수급 성과금 대상 : 67명
- 월급여 836천원 이상	502명	
- 월급여 836천원 미만	51명	
◦ 취업 유지자수	265명	
◦ 취업 탈락자수	240명	
- 1개월미만 근무 퇴사	132명	
- 1개월이상 근무후 퇴사	108명	
◦ 창업자수 누계	19명	

※ 월급여 836천원미만 취업자 51명중 16명 시스템 등록(미등록 35명)

- 총 취(창)업자 누계 : 572명
 - 월급여 836천원 이상 : 502명
 - 월급여 836천원 미만 : 51명
 - 창업자 : 19명

① 취·창업자 성별,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연 령	성 별	계	남	여	비율(%)	
					남	여
10 ~ 19		22	4	18	18	82
20 ~ 29		107	46	61	43	57
30 ~ 39		90	20	70	22	78
40 ~ 49		204	68	136	33	67
50세이상		114	69	45	61	39
계		537	207	330	39	61

② 대상자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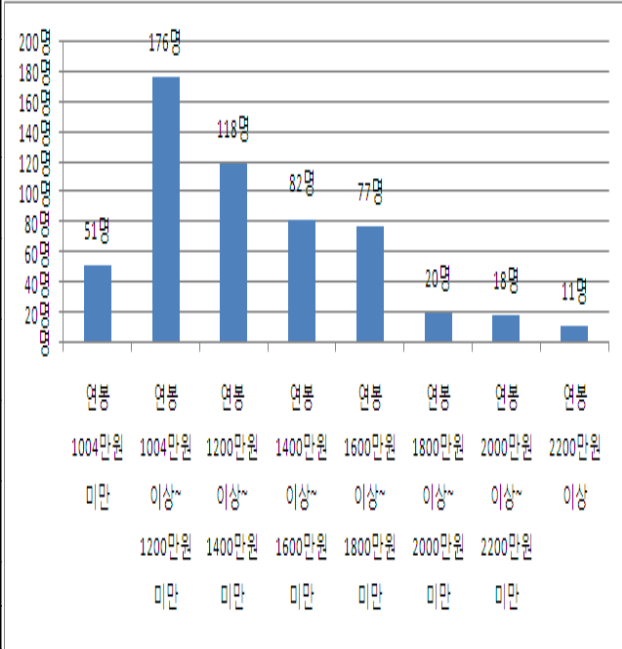
(단위 : 명)

구 분	취업수	창업수	계	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431	18	449	83.6
차상위계층	87	1	88	16.4
합 계	518	19	537	100

○ 취업자(553명)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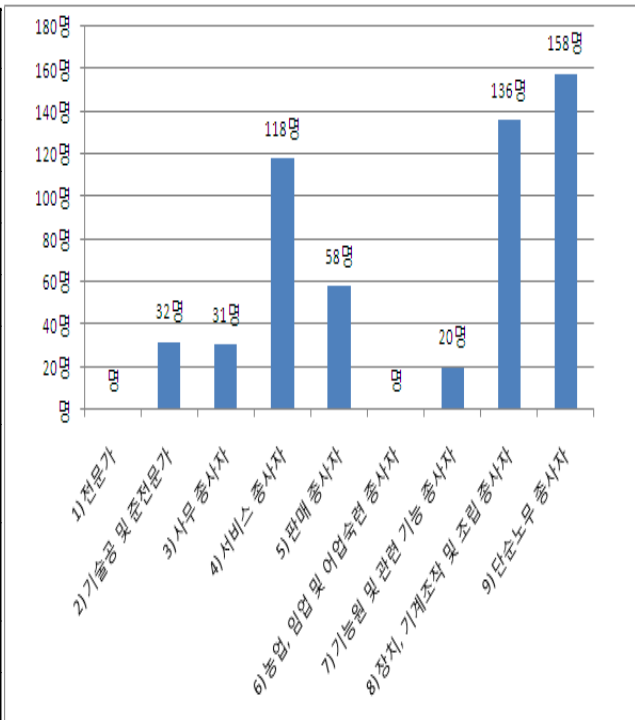
① 연봉별 현황

취업자 급여구분	취업수	%
월급여 836천원 이하	51 명	9.2 %
연봉 1004만원 이상 ~ 1200만원 미만	176 명	31.8 %
연봉 12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118 명	21.3 %
연봉 1400만원 이상 ~ 1600만원 미만	82 명	14.8 %
연봉 1600만원 이상 ~ 1800만원 미만	77 명	13.9 %
연봉 18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20 명	3.6 %
연봉 20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18 명	3.3 %
연봉 2200만원 이상	11 명	2.1 %
합 계	553 명	100 %



② 업종별 현황

취업자 업종별	취업수	%
전문가	-	0.0 %
기술공 및 준전문가	32 명	5.8 %
사무 종사자	31 명	5.6 %
서비스 종사자	118 명	21.3 %
판매 종사자	58 명	10.5 %
농업, 임업, 어업숙련 종사자	-	0.0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0 명	3.6 %
장치, 기계조작 조립 종사자	136 명	24.6 %
단순노무 종사자	158 명	28.6 %
계	553 명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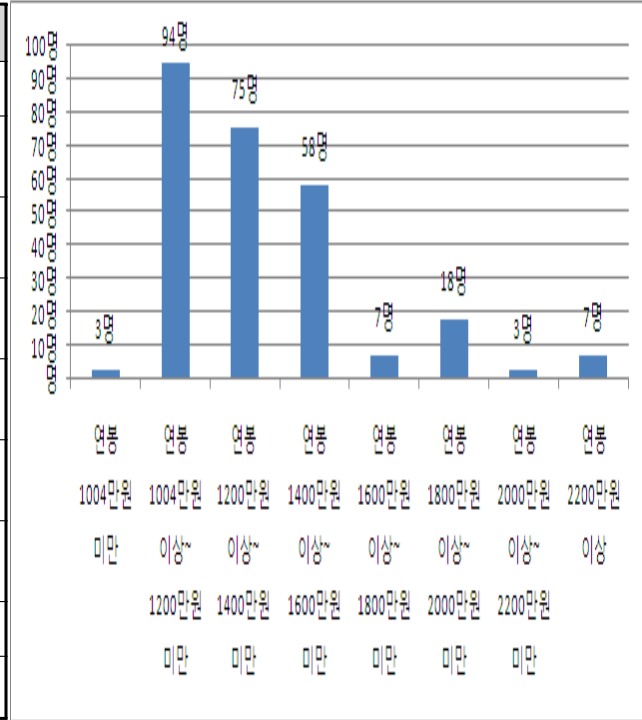


○ 취업유지자(265명) 분석

① 고용형태 현황 : 정규직 262명, 단순노무직 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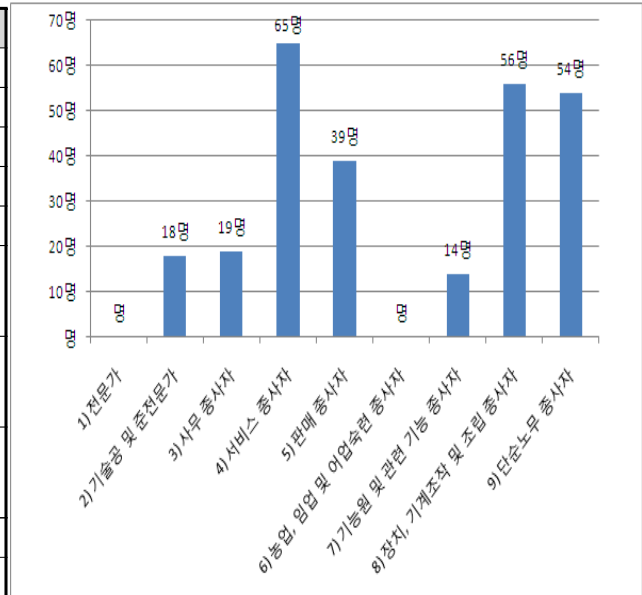
② 연봉별 현황

연 봉	취업자	%
월 급여 836천원 미만	3 명	1.1 %
연봉 1,004만원 이상 ~ 1,200만원 미만	94 명	35.5 %
연봉 1,2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75 명	28.3 %
연봉 1,400만원 이상 ~ 1,600만원 미만	58 명	21.9 %
연봉 1,600만원 이상 ~ 1,800만원 미만	7 명	2.6 %
연봉 1,8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18 명	6.8 %
연봉 2,0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3 명	1.1 %
연봉 2,200만원 이상 ~	7 명	2.7 %
계	265 명	100 %



③ 업종별 현황

구 분	취업자	%
전문가	- 명	0.0 %
기술공 및 준전문가	18 명	6.8 %
사무 종사자	19 명	7.2 %
서비스 종사자	65 명	24.5 %
판매 종사자	39 명	14.7 %
농업, 임업 및 어업 종사자	- 명	0.0 %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14 명	5.3 %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56 명	21.1 %
단순노무 종사자	54 명	20.4 %
합 계	265 명	100 %



○ 창업자 분석 : 창업자 19명 ▷창업이후 계속유지중

① 창업자 성별 : 남 6명, 여 13명(68%)

② 창업자 연령별 : 30대 5명, 40대 11명(58%), 50대 2명, 60대 1명

③ 업종별 현황 : 이·미용 및 피부마사지 3명, 음식점 및 커피전문점 5명등으로 1인 또는 가족동반 창업이 주

④ 창업자 현황

순번	참여자	성별	나이	거주지역	창업일	창업처명	창업처 유형
1	유○향	여	44	해운대구	09. 7. 6	신명가낙지	음식점
2	문○희	여	33	수영구	09. 7.21	화목축산마트	대규모 정육점
3	박○미	여	48	동래구	09. 8. 4	한나리폼	옷수선
4	황○완	남	30	동래구	09. 8. 1	준당구클럽	당구장
5	김○현	여	49	영도구	09. 8. 7	나띠르	피부마사지
6	김○권	남	43	강서구	09. 8.26	영성자원	고철도소매
7	손○숙	여	48	사상구	09. 8.30	남성컷트클럽	남성이용원
8	안○숙	여	40	기장군	09. 8.27	강남호	복합어업 (주낙시어업)
9	장○경	여	31	연제구	09. 9.15	런두리 북클럽	영어학원
10	최○희	여	47	해운대구	09.10.16	구이친구와 샤브샤브	음식점 (소고기 뷔페)
11	김○애	여	50	금정구	09. 9.15	하늘소리 오케스트라	음악학원
12	윤○찬	남	32	북구	09.10. 7	빠까닷컴	인터넷 쇼핑몰
13	안○을	남	52	사하구	09.11.16	남포냉면	음식점
14	최○희	여	35	부산진구	09.12.30	펠트노리	펠트공예
15	윤○희	여	42	수영구	09.12.24	윤정희뷰티샵	미용원
16	이○	여	43	중구	10. 1.12	로찌중앙동점	커피전문점
17	신○규	남	43	동래구	10. 2.10	뉴스톤	대리석보수업
18	김○환	남	61	해운대구	10. 2.28	BEGO	커피전문점
19	임○래	여	49	수영구	10. 2.23	동그라미 구제	의류판매업

○ 탈수급율/소득상향

- 취(창)업이후 6개월간 계속적으로 취(창)업을 유지하고 있는 대상자를 분석한 결과

구 분		인원(명)
6개월이상 취·창업유지자	1차 취·창업이후 계속유지	93
	2차 취업이후 계속유지	8
	6개월 취업유지이후 퇴사 이후 재취업	2
소 계		103
6개월이상 취업유지후 퇴사자		2
합계(6개월이상 취·창업유지자)		105

※ 3월 18일 현재 취, 창업 6개월 유지 현황 : 121명

- 6개월 취업유지자(105명)중 생계급여가 중단된 대상자를 파악 결과 대부분의 대상자가 생계급여가 중단되었고 자활특례자 일반으로 상향(66명, 62.9%)되었음.

- 자활특례로 전환 : 39명 (37.1%)
- 일반으로 전환 : 12명 (11.4%)
- 생계급여 중지 : 15명 (14.3%)
- 수급자 유지 : 39명 (37.1%)

□ 확인 성과

○ 상담횟수(2010년 2월 월보 누계)

총건수	전화, SMS 등	본부직원 가정방문	대상자 본부 방문
25,746건	18,634건	4,330건	2,782건
100%	72.4%	16.8%	10.8%

※ 매주 취업실적을 취합하여 보고하는 월보고서와 사례관리사가 관리하고 있는 월별건수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음.

○ 1인당 서비스 제공횟수(월별)

(단위 : 건)

구 분	①상담	①교육훈련(자체)	③사회서비스 연계	④구인처 연계	⑤실비 이외비용 보조	⑥외부 위탁교육	합 계
09년 05월	1,261	57	54	84	0	14	1,470
09년 06월	2,471	173	175	726	3	64	3,612
09년 07월	2,295	117	146	559	0	62	3,179
09년 08월	2,244	100	143	450	4	46	2,987
09년 09월	2,662	97	96	476	2	49	3,382
09년 10월	2,649	148	133	446	2	44	3,422
09년 11월	2,663	112	151	426	1	29	3,382
09년 12월	2,382	72	105	368	1	36	2,964
09년 01월	1,988	56	87	336	3	20	2,490
09년 02월	1,264	22	35	160	10	8	1,499
합 계	21,879	954	1,125	4,031	26	372	28,387

○ 취업연계 활동(1인당 취업연계활동 횟수/월별)

(단위 : 건)

구 분	①이력서 작성	②동행 면접	③창업 알선	④월836천원 미만 취업	⑤외부 자원 활용교육	⑥노동부 계좌제 활용	합 계
09년 05월	153	53	10	11	9	65	301
09년 06월	280	235	37	22	52	42	668
09년 07월	117	199	11	56	50	14	447
09년 08월	87	175	36	51	19	19	387
09년 09월	82	174	25	26	27	18	352
09년 10월	103	163	16	34	21	23	360
09년 11월	113	125	13	28	30	16	325
09년 12월	76	115	20	30	24	7	272
09년 01월	51	79	9	19	7	3	168
09년 02월	18	26	2	13	1	4	64
합 계	1,080	1,344	179	1,126	240	211	3,344

○ 구인처 발굴 활동(월 단위)

(단위 : 건)

구분	간호 병양		경비 직		기술 직		단순 노무		사무직		생산직		식당 관련		영업직		운전직		청소직		기타 활동		계	
	업체 수	정보 수	업체 수	정보 수	업체 수	정보 수	업체 수	정보 수	업체 수	정보 수	업체 수	정보 수	업체 수	정보 수	업체 수	정보 수	업체 수	정보 수	업체 수	정보 수	업체 수	정보 수	업체 수	정보 수
'09. 5월	5	11	8	15	10	12	8	19	20	23	20	30	16	19	3	3	1	3	3	4	1	1	95	140
6월	48	67	72	104	59	80	69	128	133	171	115	150	124	146	100	139	39	73	57	85	33	42	849	1185
7월	38	56	73	119	36	45	47	93	104	126	128	197	65	90	61	84	42	65	62	101	18	35	674	1011
8월	36	56	56	75	24	39	68	115	84	123	100	154	56	94	39	58	29	42	34	80	7	39	533	875
9월	24	74	51	93	20	22	51	103	99	130	104	156	48	69	44	74	50	85	42	102	11	38	544	946
10월	26	54	62	82	16	19	26	87	52	74	85	143	38	66	24	51	28	94	21	66	13	22	391	758
11월	42	81	42	110	15	26	42	79	68	116	73	135	30	62	37	67	75	115	40	70	16	13	480	874
12월	30	76	39	89	26	35	50	103	77	100	67	97	30	64	31	51	46	74	32	92	17	32	445	813
'10. 1월	12	31	46	93	26	37	39	96	88	138	58	95	21	37	34	54	56	96	19	55	14	29	413	761
2월	11	25	23	37	8	11	10	31	24	30	23	37	23	32	17	20	22	24	9	16	6	10	176	273
계	272	531	472	817	240	326	410	854	749	1,031	773	1,194	451	679	390	601	388	671	319	671	136	261	4,620	7,636

IV. 종합평가

- 2009. 3.31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이후4월, 1개월 동안 운영위원회 협의, 자치구 담당 복지직원과의 회의, 신규직원모집과 직원교육 등을 거쳐 5월초(5.1~5.12, 7일간) 자치구, 주민자치센터 복지담당직원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본부 담당 사례관리사 및 전 직원(34명)이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참여대상자1,091명을 대면 상담한 것이 참여대상자를 본 사업에 끌어들이는 큰 힘이 되었다고 판단됨
- 대면상담이후 1차 기초조사를 실시한 취업관리실 사례관리사1인이 대상자 33~40명까지 전담하여 밀착사례관리(5.18일이후 본부 상담원별로 33~40명씩 참여대상자 배분)를 실시하여 대상자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파악 및 해결에 전력토록하고
- 경영전략실에서는 지역내 구인기업체 발굴과 취업관리실과 협조하여 취업을 원하는 대상자를 기업체에 연결토록 하고 교육훈련실의 직원교육과 대상자 교육 및 행정지원실의 전폭적인 지원이 한공간(사무실)에서 다함께 최선을 다함에 따라 높은 성과를 보였다고 판단됨.
- 또한 대상자들 중에는 힘든 취업보다는 수급생활에 안주하려는 대상자가 많아 일정기간(1년 또는 18개월 등) 수급생활을 하되 수급생활 일정기간이 지나면 수급생활을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절실히 필요함.
- 이러한 법적인 제도 마련되지 못한다면 생계급여를 부여하는 자치구 동주민센터 복지직원이 취업을 기피하는 대상자들에게 추정소득부과 등을 통한 압력을 실시하여 수급자가 일정기간내 취(창)업에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규정(지침)이 필요함. 기초생활수급자들중에는 근로능력은 분명히 있는데 취업보다는 현실의 수입이 더 많음으로 굳이 취업을 하여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 이러한 수급자들의 마음은 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지역에서 더욱 높아 취업유도에 어려웠음. 따라서 취업처 알선하는 노력과 병행하여 현제도 개선이 절실한 실정이며 기업체에 취업을 하여 탈수급코자하는 대상자들에게는 희망키움통장을 부여하여 저축하도록 하는 동기부여가 필요함

<붙임 1>

자치구(군)별 참여대상자수 및 취(창)업수

번호	거주지별	대상인원				취(창)업인원			
		인원	%	수급자	차상위	인원	%	남	여
1	중구	19명	1.9%	16명	3명	13건	2.4%	5건	8건
2	동구	52명	5.2%	45명	7명	27건	5.0%	17건	10건
3	서구	59명	5.9%	45명	14명	44건	8.2%	23건	21건
4	영도구	31명	3.1%	20명	11명	13건	2.4%	5건	8건
5	부산진구	73명	7.3%	59명	14명	45건	8.4%	14건	31건
6	동래구	61명	6.1%	45명	16명	24건	4.5%	14건	10건
7	남구	71명	7.1%	59명	12명	31건	5.8%	13건	18건
8	북구	111명	11.1%	110명	1명	40건	7.4%	18건	22건
9	해운대구	124명	12.4%	85명	39명	85건	15.8%	28건	57건
10	사하구	74명	7.4%	67명	7명	34건	6.3%	10건	24건
11	금정구	77명	7.7%	67명	10명	46건	8.6%	12건	34건
12	강서구	17명	1.7%	15명	2명	10건	1.9%	7건	3건
13	연제구	55명	5.5%	50명	5명	33건	6.1%	13건	20건
14	수영구	51명	5.1%	49명	2명	42건	7.8%	14건	28건
15	사상구	109명	10.9%	92명	17명	47건	8.8%	13건	34건
16	기장군	16명	1.6%	16명	명	3건	0.6%	건	3건
누 계		1,000명	100%	840명	160명	537명	100.0%	206명	331명
				84%	16%			38.4%	61.6%

<붙임 2>

2009년도 참여대상자 교육연계 및 교육결과

□ 교육훈련기관 연계실적

(단위 : 건, %)

구분	접수건수	기관연계		연계취소	
		건수	비율(%)	건수	비율(%)
합 계	294	211	71.8%	10	-
2010-2월	-	2	-	0	0
2010-1월	4	6	150.0%	0	0
12 월	9	10	111.1%	0	0
11 월	22	24	109.1%	0	0
10 월	30	20	66.7%	0	0
9 월	35	40	114.3%	0	0
8 월	47	29	61.7%	0	0
7 월	50	34(-1)	68.0%	1	2.0
6 월	95	46	48.4%	8	9.5
5 월	2	0	-	1	50.0

※ 연계기관 :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 금정 직업전문학교

○ 교육분야별 참여대상자 교육신청현황

(단위 : 건)

구분	총계	돌봄	요리	전산	운전	재봉수선	공업	미용	공예	기초교육	기타
합 계	294	80	89	40	20	8	8	20	5	5	19
'10.1월	4	1	1	2	0	0	0	0	0	0	0
'09.12 월	9	2	3	1	1	0	0	0	0	1	1
11 월	22	4	5	3	4	1	0	3	1	0	1
10 월	30	10	10	3	2	0	0	1	0	0	4
9 월	35	5	12	6	3	0	3	3	1	0	2
8 월	47	9	19	5	1	0	0	7	0	1	5
7 월	50	12	18	9	3	2	0	1	0	1	4
6 월	95	37	21	11	6	5	4	5	3	1	2
5 월	2	0	0	0	0	0	1	0	0	1	0

○ 교육분야별 교육기관연계 현황

(단위 : 건)

구분	총계	돌봄	요리	전산	운전	재봉수선	공업	미용	공예	기초교육	기타
합계	211	60	63	27	15	4	3	13	3	4	19
2010.2월	2	-	-	1	-	-	-	-	-	-	1
1월	6	1	3	2	-	-	-	-	-	-	-
2009.12월	10	3	3	1	1	0	0	0	0	1	1
11월	24	4	7	3	3	1	0	1	1	1	3
10월	20	6	6	3	2	0	0	2	0	0	1
9월	40	4	12	5	4	0	3	3	1	0	8
8월	29	9	11	3	0	0	0	4	0	0	2
7월	34	7	14	4	3	1	0	0	1	1	3
6월	46	26	7	5	2	2	0	3	0	1	0
5월	0	0	0	0	0	0	0	0	0	0	0

○ 직업교육기관연계 교육자 수료현황

(단위 : 명)

구분	교육연계	교육중	수료여부		탈락
			수료	자격취득	
합계	211	42	78	79	10
1실	106	25	42	29	9
2실	105	17	36	50	1

취업계	교육연계취업	교육무관취업
45	23	22
20	5	15(3)
20	18	2(2)

참여대상자 교육·훈련 실적

(~2010.2월말)

NO	기 간	회/시간	장 소	참석인원	주 요 내 용
1	2009.06.16(화)	2시간	4층교육장	대상자 8명	대상자 맞춤형 취업스킬 교육 (정연교육연구소 김○숙 소장)
2	2009.06.26(금)	1.5시간	8층회의실	대상자 5명	취업확정 대상자 직장소양(경비원)교육
3	2009.06.26(금)	2시간	4층교육장	대상자 6명	심밭에 밭알심기 교육 (1회기 : 만남에서의 나)
4	2009.07.03(금)	2시간	양정청소년 수련관	7명	심밭에 밭알심기 교육 (2회기 : 나를 알기)
5	2009.07.10(금)	2시간	4층교육장	4명	심밭에 밭알심기 교육 (3회기 : 나와 다른 사람 알기)
6	2009.07.16(목)	2시간	고용지원 센터 2층	대상자 1명	노동부 Let's go 취업프로그램 (생활의 비타민)
7	2009.07.17(금)	2시간	4층교육장	대상자 4명	심밭에 밭알심기 교육 (4회기 : 나와 다른 사람 알기)
8	2009.07.20(월)	2시간	고용지원 센터 2층	대상자 2명	노동부 Let's go 취업프로그램 (웃음만복래, 웃음치료)
9	2009.07.21(화)	2시간	고용지원 센터 2층	대상자 2명	노동부 Let's go 취업프로그램 (새로운 인생, 브라보!)
10	2009.07.24(금)	2시간	4층교육장	대상자 4명	심밭에 밭알심기 교육 (5회기 : 이루어온 것에 감사하기)
11	2009.07.31(금)	2시간	4층교육장	대상자 9명	심밭에 밭알심기 교육 (6회기 : 나에게 당당하기)
12	2009.08.07(금)	2시간	4층교육장	대상자 3명	심밭에 밭알심기 교육 (7회기 : 현재상황은 모두 내 책임)
13	2009.08.11(화)	1시간	고용지원 센터 2층	1명	노동부 단기취업특강 (대인관계능력)
14	2009.08.12(수)	1시간	고용지원 센터 2층	1명	노동부 단기취업특강 (자기개발능력)
15	2009.08.14(금)	2시간	4층교육장	7명	심밭에 밭알심기 교육 (8회기 : 어려운 감정 다루기)
16	2009.08.14(금)	4시간	인근지역	23명	여가활동(스트레스해소) 프로그램 (영화관람)
17	2009.08.18(화)	1시간	고용지원 센터 2층	1명	노동부 단기취업특강 (취업에 성공하는 이력서자기소개서)
18	2009.08.21(금)	2시간	6층교육장	3명	심밭에 밭알심기 교육 (9회기 함께하는 기쁨 나누기)
19	2009.08.25(화)	1시간	고용지원 센터 2층	1명	노동부 단기취업특강 (취업에 성공하는 면접요령)
20	2009.08.28(금)	2시간	4층교육장	7명	심밭에 밭알심기 교육 (10회기 : 마음다지기)

NO	기 간	회/시간	장 소	참석인원	주 요 내 용
21	2009.08.28(금)	1시간	고용지원 센터 2층	3명	- 노동부 단기취업특강 (창업스쿨)
22	2009.09.03(목)	2시간	4층교육장	7명	- 심발에 밑알심기 교육 (11회기 : 자기조절의 완성의 장)
23	2009.09.11(금)	2시간	4층교육장	8명	- 심발에 밑알심기 교육 (12회기 : 새로 태어나기)
24	2009.12.7(월)	2시간	1회의실	5명	- 심발에 밑알심기 교육
25	2009.12.9(수)	2시간	1회의실	6명	- 심발에 밑알심기 교육
26	2009.12.14(월)	2시간	1회의실	5명	- 심발에 밑알심기 교육
27	2009.12.16(수)	2시간	1회의실	6명	- 심발에 밑알심기 교육
28	2009.12.18(금)	2시간	1회의실	5명	- 심발에 밑알심기 교육
29	2009.12.21(월)	2시간	4층교육장	5명	- 심발에 밑알심기 교육
30	2009.12.23(수)	2시간	4층교육장	6명	- 심발에 밑알심기 교육
31	2009.12.28(월)	2시간	4층교육장	5명	- 심발에 밑알심기 교육
32	2009.12.30(수)	2시간	4층교육장	5명	- 심발에 밑알심기 교육
33	2010.1. 4(월)	2시간	4층교육장	4명	- 심발에 밑알심기 교육
34	2010.1. 6(수)	2시간	4층교육장	4명	- 심발에 밑알심기 교육
35	2010.1. 8(금)	2시간	4층교육장	5명	- 심발에 밑알심기 교육 (12회기 : 새로 태어나기)

직원교육 · 훈련 실적

(~2010.2월 말)

NO	기 간	회/시간	장 소	참석인원	주 요 내 용	비 고
1	2009.04.24(금) ~2009.04.30(목)	5회 40시간	4층교육장	1차신입 (34명)	- 자활사업 및 성과관리자활사업 안내 - 복지시책안내 및 사례관리 교육	신규직원 1차 교육
2	2009.05.11(월) ~2009.05.13(수)	3회 24시간	4층교육장	1차신입 (9명)	- 자활사업 및 성과관리자활사업 안내 - 복지시책안내 및 사례관리 교육	신규직원 2차 교육
3	2009.05.13(수)	1회 2시간	4층교육장	전직원 (45명)	- 기초상담 사례 발표 및 토의	직무발표
4	2009.05.15(금)	1회 1.5시간	6층1교육장	40명	- 개인파산 및 회생절차 교육 (신용회복위원회부산지부 권○학수석심사역)	직무교육
5	2009.05.18(월)	1회 1.5시간	8층1회의장	7명	- 경영전략실 사례교육(기업체발굴요령) (광역자활센터 김○남 팀장)	직무교육
6	2009.05.20(수)	1회 2시간	6층1교육장	37명	- 직장예절교육 (정연교육연구소 김○숙 소장)	소양교육
7	2009.05.26(화)	1회 1.5시간	4층교육장	42명	- 1차 사례관리 교육 (자활인력지원본부 박서춘 본부장)	직무교육
8	2009.05.27(수)	1회 1.5시간	4층교육장	24명	- 홈페이지 제작에 따른 정보화 교육 (광역자활센터)	위탁교육 (광역센터)
9	2009.05.29(금) ~2009.05.30(토)	1회 15시간	삼동배내청 소년수련원	53명	- 실별 업무실적 및 업무계획 발표 - 체육행사	소양교육 (워크샵)
10	2009.05.29(금)	1.5시간	수련원 3층 세미나실	53명중 40명	- 2차 사례관리 교육 (자활인력지원본부 박서춘 본부장)	직무교육
11	2009.06.02(화)	1.5시간	4층교육장	38명	- 3차 사례관리 교육 (자활인력지원본부 박서춘 본부장)	직무교육
12	2009.06.03(수)	1.5시간	6층2교육장	40명	- 창업지원교육 (북부소상공인지원센터 이○왕 센터장)	직무교육
13	2009.06.03(수)	1시간	6층2교육장	23명	- 취업스킬교육 (교육훈련실 노○미)	직무교육
14	2009.06.09(화)	1.5시간	4층교육장	각실장, 팀장 (15명)	- 성과관리자활사업 1차 토론회 (실별 업무 추진상 문제점 및 건의사항 논의)	토론회
15	2009.06.09(화)	1시간	4층교육장	전직원	- CEO초청 취업특강 (오성산업 오○환 대표)	직무교육
16	2009.07.14(화)	1시간	8층회의실	10명	- 신용회복 절차 교육 (포도재무설계)	직무교육
17	2009.07.16(목)	1.5시간	8층회의실	8명	- 상담심리기법 (취업관리1실 황○혜)	직무교육
18	2009.07.23(목)	1시간	4층교육장	전직원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부상여성회 평등의 전화 박○득 소장)	소양교육
19	2009.08.11(화)	1.5시간	8층회의실	11명	- 2차 상담심리기법 (취업관리1실 황○혜)	직원교육
20	2009.08.17(월)	1시간	6층교육장	22명	- 사회복지기초 교육 (자활인력지원본부 박서춘 본부장)	"

NO	기 간	회/시간	장 소	참석인원	주 요 내 용	비 고
21	2009.08.26(수)	2시간	4층 교육장	전직원 (44명)	성과관리자활사업 목표관리(MBO)특강 (성과관리자활사업의 성공적인 수행방안)	직원교육
22	2009.09.04(금) ~05(토)	1박2일	통도 환타지아	전직원	분임토의 및 주제발표 등	소양교육 (워크샵)
23	2009.09.04(금)	1.5시간	"	전직원	사회복지기초교육 (자활인력지원본부 박○춘 본부장)	직무교육
24	2009.09.08(화)	1.5시간	8층 회의실	7명	심리·상담기법 교육 (취업관리실 황○혜)	직무교육
25	2009.09.14(월)	2.5시간	6층 교육장	전직원	사례관리 발표(5명) 및 토의 건의사항 조치사항 발표	직무교육
25	2009.09.26(토)	2시간	남광종합사 회복지관	15명	자원봉사활동 및 시설견학	기타교육
26	2009.10.08(목)	1.5시간	4층 교육장	33명	MBTI를 통한 자기이해 (취업관리실 황○혜)	직무교육
27	2009.10.29(목)	1.5시간	4층 교육장	38명	3차 사례관리 발표 및 토의	직무교육
28	2009.10.29(목)	1.5시간	4층 교육장	33명	초청특강 (前 한국산업단지공단 본부장)	직무교육
29	2009.11.18(수)	2시간	4층 교육장	29명	근로동기부여 프로그램 (내 인생의 주인되기) (휴머니지인재개발센터 최○순 소장)	직무교육
30	2009.11.23(월)	2시간	4층 교육장	36명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BizHRD컨설팅 김○진 대표)	직무교육
31	2009.11.21(토)	2시간	남광종합 사회복지관	16명	자원봉사활동	기타교육
32	2009.11.26(목)	2시간	4층 교육장	복지관장등 10명	성과관리자활사업 안내 및 홍보회의 (자활인력지원본부 박서춘 본부장)	기타
33	2009.12.10(목)	2시간	6층 교육장	42명	팀별주제토의	직무교육
34	2009.12.11(금)	2시간	워크샵장	40명	대회법과 의사소통	직무교육
35	2009.12.1(화)	2시간	1회의실	6명	4차 주요문제사례발표 슈퍼비전	직무교육
36	2009.12.30(수)	1시간	1회의실	9명	위탁교육 및 복지서비스발전방안토의	직무교육
37	2010.1. 8(금)	2시간	4층 교육장	29명	2010직원/대상자교육지침	직무교육
38	2010.1. 21(목)	2시간	4층 교육장	42명	상담기법초청특강	소양교육
39	2010.1. 28(목)	1시간	4층 교육장	41명	사례관리특강	직무교육
40	2010.1. 28(목)	1시간	4층 교육장	41명	2010사업지침교육	직무교육
41	2010.1. 28(목)	2시간	4층 교육장	41명	정신보건과 정신보건센터활용	정보교육
42	2010.2. 11(목)	1시간	4층 교육장	41명	직원재배치에 따른 정신교육(본부장)	직무교육
43	2010.2. 11(목)	1시간	4층 교육장	41명	사례관리 업무 특강(취업2실장)	직무교육
44	2010.2. 11(목)	1시간	4층 교육장	41명	구인기업체 발굴관련특강(취업3실장)	직무교육
45	2010.2. 11(목)	0.5시간	4층 교육장	41명	편제개편과 직무(행정실장)	직무교육
46	2010.2. 11(목)	1.5시간	4층 교육장	41명	심리상담 기법 및 의사소통 특강 (자립지원계장)	직무교육

<붙임 3>

언론사 홍보 실적

일자	언론사	제 목(주요내용)
2009.4.23	뉴스투데이 21	『부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립위한 일자리 제공』
7.1	부산사회복지신문	『새롭게 태어난 당신을 응원합니다. 희망리본프로젝트』 “사회복지 우수 프로그램 소개”
7.10	국제신문	『땀흘려 번 월급보다 ‘희망찾기’더 값져』
7.15	MBC 부산방송	자활인력지원본부 개원
8.1	부산사회복지신문	자활인력지원본부 개원
12.1	부산사회복지신문	희망리본프로젝트 가족의 날 개최
12.31	국제신문	『다시 일어서야죠 취약층에 손 내밀다』
2010.1.7	포커스	희망리본 31일까지 1천명 선발
1.8~9	KBS 뉴스	사업참여자 취업처를 방문한 성공사례 홍보
1.8	메트로	‘희망리본’ 참여자 선발
1.9	MBC 부산뉴스	2010년 대상자 모집
1.9	연합	『부산 ‘희망리본 프로젝트 성과』
1.9	매일경제	『부산 ‘희망리본 프로젝트 성과』
1.9	노컷뉴스	『부산, 희망리본 프로젝트 기대 이상 성과』
1.29	KBS 라디오	함께하는 세상만들기 방송
2.10	부산시보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해 드립니다』
2.12	메트로	『차상위층 취·창업 알선 ‘희망리본’사업 펼친다』
2.22	포커스	『희망리본프로젝트 신청 접수』
2.25	자치구 구보	『희망리본프로젝트 신청 접수』 연제구, 부산진구, 동래구, 강서구 등

<붙임 4>

구인업체 및 취업실적 분석 현황

□ 2009년 구인업체 발굴 현황

지역	등록 기업	발굴 업체	구인 횟수
업체수	19,129	3,206	4,620

※ 등록업체의 16.8% 발굴, 22.3% 활용

□ 구별 등록기업 대 구인업체 발굴 현황

지역	등록 기업수	발굴업체(등록업체의 16.8%)			
		계	A급 업체 (다수채용)	B급 업체 (고용잠재)	C급 업체 (일회성 구인)
강서구	1,507	216	0	15	201
금정구	943	169	3	9	157
남구	682	126	4	8	114
동구	785	208	9	14	185
동래구	703	166	0	42	124
부산진구	1,257	241	12	14	215
북구	317	132	0	13	119
사상구	2,764	351	6	110	235
사하구	1,395	362	8	100	254
서구	530	163	7	9	147
수영구	382	105	3	22	80
연제구	657	161	8	32	121
영도구	461	73	4	7	62
중구	1,144	136	8	9	119
해운대구	710	406	15	44	347
기장군	396	57	0	10	47
김해	3,233	46	0	2	44
양산	1,263	70	3	11	56
기타	0	18	3	47	0
합계	19,129	3,206	93	518	2,627
비율		100%	2.9%	16.2%	80.9%

□ 관리업체 구인현황 대 취업연계 활용 및 기여율

지역	관리업체 구인 내역	대상 인원	취업연계 현황			발굴업체 활용율	취업 총 기여율
			총원	취업실	경영실		
강서구	288	17	13	8	5	1.8%	38.5%
금정구	225	77	35	30	5	2.2%	14.3%
남구	205	71	27	14	13	6.3%	48.1%
동구	281	52	23	12	11	3.9%	47.8%
동래구	223	61	17	10	7	3.1%	41.2%
부산진구	383	73	42	30	12	3.1%	28.6%
북구	166	111	18	16	2	1.2%	11.1%
사상구	489	109	46	24	22	4.5%	47.8%
사하구	513	74	40	21	19	3.7%	47.5%
서구	225	59	18	8	10	4.4%	55.6%
수영구	161	51	17	4	13	8.1%	76.5%
연제구	235	55	35	16	19	8.1%	54.3%
영도구	108	31	11	7	4	3.7%	36.4%
중구	175	19	27	11	16	9.1%	59.3%
해운대구	648	124	98	39	59	9.1%	60.2%
기장군	86	16	10	8	2	2.3%	20.0%
김해	53	0	3	1	2	3.8%	66.7%
양산	122	0	19	7	12	9.8%	63.2%
기타	35	0	19	17	2	5.9%	10.5%
합계	4,620	1,000	518	283	235	5.1%	45.4%

□ 업종별 구인업체수 대비 취업자 수 와 평균 연봉(임금)

업종	구인 업체수	취업자수 (명)	적중률 (%)	평균연봉 (만원)
전문가	-	0	-	-
기술공 및 준전문직	221	33	14.9	1,534
사무 종사자	727	31	4.3	1,247
서비스 종사자	699	118	16.9	1,214
판매 종사자	464	58	12.5	1,246
농,임,어업 종사자	-	0	-	-
기능원, 관련기능 종사자	221	20	9.0	1,489
장치, 기계조작, 조립종사자	1,271	136	10.7	1,342
단순노무 종사자	1,138	123	10.8	1,274
계	4,620	519	11.2	1,298

※ 서비스업 종사자 평균연봉 1,214만원으로 최저이며,

직종별 평균연봉은 1,298만원임

- 취업유지자 269명의 평균연봉은 1,304만원(월 1,086,600원)이었음.

□ 구별 직종별 구인업체 발굴현황

지역	간호 병양	경비직	기술직	사무직	생산직	식당 관련	영업직	운전직	청소직	단순 노무	합계
강서	1	17	2	13	169	10	12	36	7	21	288
금정	11	22	7	41	27	32	21	17	29	18	225
남구	10	24	16	31	11	20	23	11	18	41	205
동구	32	17	24	47	4	38	38	33	22	26	281
동래	25	16	11	31	8	41	34	20	16	21	223
진구	22	44	34	50	17	50	53	28	49	36	383
북구	5	30	16	12	22	7	34	16	11	12	165
사상	6	24	19	77	166	21	29	67	15	65	489
사하	9	33	16	139	161	22	22	47	9	55	513
서구	25	26	13	23	15	21	11	48	18	25	225
수영	9	9	6	20	6	30	34	15	22	10	161
연제	28	13	14	48	6	20	44	11	23	28	235
영도	8	14	9	14	12	20	4	5	15	7	108
중구	24	17	12	37	2	2	24	28	14	15	175
해운	26	73	15	128	29	101	64	46	85	81	648
기장	7	3	1	8	37	6	3	5	10	6	86
김해	-	-	1	2	37	-	3	6	2	2	53
양산	-	5	3	4	82	7	5	4	4	8	122
기타	2	-	2	2	17	1	6	-	-	5	35
합계	250	387	221	727	828	449	464	443	369	482	4,620

□ 구별 구인업체 발굴현황 및 대상자현황 대 취업 연계율

지역	구인내역	대상자 현황	취업연계	취업 연계율(%)
강서구	284	17	13	76.5%
금정구	226	75	35	46.7%
남구	206	71	27	38.0%
동구	281	52	23	44.2%
동래구	224	62	17	27.4%
부산진구	384	73	42	57.5%
북구	165	111	18	15.3%
사상구	489	110	46	41.8%
사하구	513	75	40	53.3%
서구	225	60	18	30.0%
수영구	161	55	17	30.9%
연제구	235	56	35	62.5%
영도구	108	31	11	35.5%
중구	175	19	27	142.1%
해운대구	648	128	98	76.6%
기장군	87	16	10	62.5%
김해	53	0	3	-
양산	122	0	19	-
기타	34	1	19	-
합계	4,620	1,012	518	51.2%

- ▶ 구인내역이 많은 지역에서 취업연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
- ▶ 업체 접근성이 용이한 도심지역이나 지하철역세권 주거지역 근접공단에서 취업 연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진구,중구,연제구,사하구,사상구)
- ▶ 사례관리사나 지역담당자의 역할에 따라 구인처 및 취업연계 결과 차이 큼

※ 취업유지를 위해서는 대상자들의 기동성과 활동성이 취약한 점을 감안 대중교통수단이용 가능한 지역이나 도보출퇴근 가능한 생활권 주변에서 취업처를 추천하되 연봉 수준은 최저 1,214만원이상, 평균 1,304만원(월 1,086,600원)을 고려하여 추천

꿀 맛 같은 일요일을 기다리며...

보림테크(자동차 부품생산업체) 취업 김O섭씨(사례관리자 : 강순자)

몇 년 전 아니, 거의 10년이 다되어 가는 듯 합니다 몇 몇 지인들과 조그마한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너무나 허무하게 사기극에 휘말려 상당히 많은 금액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한 은행권에 채무도 지게 되어 인생자체가 허물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삶의 의욕도 없고 모든 일에 짜증이 났으며 아무런 증상도 없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커피를 두 시간 동안 흘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걱정스럽게 나에게 했던 말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사실 아내는 몸이 상당히 약합니다. 정신적으로는 대단히 강한 여자입니다만 육체적으로는 아주조금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발 아프지 말라고, 당신이 아파서 눕게 되면 자신은 아이들을 데리고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다고”

아무튼 이런 이유로 많은 시간을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인생이 서글픈 것 같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내와 내 아이들이 나 때문에 지금껏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하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맺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신 부산광역시활인력지원본부에 많은 감사를 드리고 광역시에서 이렇게까지 저소득계층에게 신경을 쓰는구나 새삼 관계자 여러분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2009년 5월 아내가 주민자치센터에 가면 부산광역시활본부에서 오신분이 있으니까 상담을 받아 보라고 해서 그냥 별 기대 없이 갔습니다 그때는 저의 실제 형편이 정상적인 회사에 취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저 일용직 같은 일자리밖에 되지 않아서 경제적인 상황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나오는 얼마간의 생계비와 제가 버는 약간의 수입을 합하면 40만원 어떨 때는 그마저도 안 되는 수입으로 생활을 하려니 인간적인 삶이라고는 생각 할 수도 없고 그저 죽지 못해 숨쉬며 사는 형편 이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가니 부산광역시활본부의 강순자 사례관리사가 계셔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부산광역시활지원본부의 강순자 사례관리사의 추천으로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주)보림테크에 찾아가게 되었는데 자동차 부품관련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다루는 물건은 모두 무겁고 차가운 쇠 종류로 철판을 프레스로 찍고 도금을 하는 회사인데 그야말로 처음에는 내가 이곳에서 버틸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작업복은 금방 쇠

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시커멓게 변하고 팔에는 기름독이 흡아서 피부병처럼 저를 괴롭혔습니다.

2009년 6월24일 입사를 하여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매일 밤 9시~10시에 집으로 돌아오면 서도 일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아내와 아이들의 표정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무덤덤한 얼굴에서 웃음 띤 얼굴로 바뀌었고 비록 육체적으로 힘이 들지만 정신적으로는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퇴근을 해서 집에 돌아오면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문 앞 전등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아빠가 퇴근을 해서 집에 들어설 때 문 앞을 밝혀 주는 것입니다 그 불빛을 보면서 집에 들어설 때 하루의 피로가 가만히 눈 녹듯이 떨어져갑니다

예전에는 달력이 보기 싫었습니다 가정의 경제가 파탄에 가깝고 가장인 저는 형편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고 그런 것을 보여주는 듯 달력이 보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휴대폰에 달력이 먼저 보이게 해놓았습니다

꿀 맛 같은 일요일을 기다리며 월급날을 기다리며 연휴를 기다리며 명절날을 기다리며 상여금 받은 날은 미소가 저절로 생깁니다 9개월 전 제가 부산광역시활인력지원본부의 강순자 사례관리사와 상담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제 가족들이 어떤 표정과 마음으로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무엇을 하고 있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할 뿐입니다 예전에 저 같은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에게 현재 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게 노력하시는 부산광역시활본부 모든 분들에게 오직 감사를 드리는 마음입니다

‘아,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꿈은 이루어지는구나

후명가낙지 창업 유○기씨(사례관리사 : 양우정)

제가 감히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아무리 지치고 힘들고 삶이 괴로워도 살다보면 좋은 일이 많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는 희망을 갖고 건강한 마음이 있고 이웃이 있고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가 있기에 부정보다는 긍정을 가지며 용기와 믿음을 가지면 살아 갈 수 있습니다

전남 완도군 금일읍 동백리라는 섬에서 현모양처인 어머니 국가유공자이신 아버지 품에서 5남 1녀로 태어나 사랑받고 부족함 없이 살면서 학생시절엔 제가 성격도 밝고 친구들과 사이 좋게 지내고 운동선수로 뽑혀핸드볼, 배드민턴) 책임감도 강하고 선생님들의 사랑도 듬뿍 받으며 꿈을 갖고 학교생활을 했으나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서울로 올라온 이후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살면서 누구나 마음먹은 대로 뜻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저는 무엇이든 잘 되고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뜻대로 되지 않더군요 여자 팔자 뒤웅박 팔자라 했던가

요. 한 직장에서 한 남자를 알았고 그저 바라보고 쳐다보고 사랑이 무언지도 모르고 항상 함께 하고픈 남자. 나이도 어린데 그렇게 빨리 남자를 알았던 것에 부모 형제, 오빠들 모두 반대했죠.

반대에 못 이겨 84년 10월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도주하여 가정을 이루면서 시동생 둘시누이 둘해서 여섯 식구가 미단이 방 2칸짜리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경북 영양 태생으로 가난한 집안의 농부 아들이면서 8남매의 장남이었습니다. 남편 나이 23살, 제 나이 21살 살림을 시작하자마자 임신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사랑하는 남편이 곁에 있어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85년 1월에 친정아버지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저를 찾으러 오셨는데 저는 냉정하게 돌아섰죠 제가 아무리 어리고 가진 것 없고 배운 것은 없지만 잘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버지께서는 눈물을 흘리시고 안타까워 저를 한 번 안아보시더니 아무 말씀 없이 고향으로 가셨죠

85년 2월 아버지의 자살 소식을 듣고 저 혼자서 고향에 내려갔는데 이미 아버지는 싸늘한 시체. 저는 아버지 목숨과 바꾼 남편을 선택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부산에 와서 아이를 낳고 생활하는데 남편은 책임감도 없고 열심히 노력도 하지 않고 집안에서만 있고 전 그래도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어차피 내가 선택한 길 이겨내리라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라 믿으며 생활했는데 남편은 처음부터 구타 외도, 무능력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고 전 밤마다 눈물과 한숨이었습니다. 아이는 자라고 먹을 것은 없고 주위에서는 도망가라고 권유하고 나이는 어리고 아이는 눈에 아른거리고 죽고 싶어 바닷가도 가보고 뜻대로 되지 않는 나의 인생 그래도 살아야지 이제 와서 생을 포기하면 어찌라 친정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모르게 강한 여자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남의 집에 맡기고 공장에 취직하여 미싱을 배우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밤잠을 자지 않고 일을 하고 남편 대신 생활비를 벌고 아이 키우면서 시동생 시누이 뒷바라지도 했습니다. 몸은 지치고 또 지치지만 살아야 한다는 강한 압박감이 밀려오고 남편은 이 직장 저 직장 옮겨 다니면서 술에 취해 들어오고 저에겐 눈물과 고통의 날들 하느님도 원망하고 웃음도 잃어가고 식욕도 없고 몸은 약해지고 남편 문제를 어른들과 상의도 해보고 하지만 속수무책 여전히 반복되는 남편의 구타 폭력과 외도를 현장에서 목격하고 살아야 하는 제 자신. 모든 것을 버리고 싶었지만 그럴 때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나고 저는 더욱 강한 여자가 되고 그런 와중에 둘째가 생겨 어쩔 수 없이 또 살아야 되겠지 이제는 달라지겠지 기대를 해보기도 하고 하지만 변하지 않는 남편의 무능력함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목숨과 바꾼 남자이기 때문에.

언제부턴가 남편에 대한 마음이 사랑보다 미움 복수가 생기고 있었죠 6개월 된 둘째 딸을 시골에 계시는 시부모님께 보내고 저는 다시 공장에 취직하여 생계를 위해서 살았죠 정말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상태에서 가정을 꾸려나가기가 너무나 힘이 들고 또 남편의 무능력 때문에 가정에 삶이 힘이 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살아도 살아도 끝이 보이지 않는 인생길 누구한테도 이야기도 못하고 반복되는 저의 삶에 스스로 위로하고 달래며 오직 남편을 거둬나게 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남편이 해 달라는 대로 뜻을 받쳤는데도 남편은 변하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 살아도 반복되는 삶에 마지막 희망을 믿어 아들을 낳았지요 행여나 남편이 거둬나길 기대하면서 생활은 어려운데 딸 둘 아들 하나 주위 분들은 저에게 욕을 했죠 살아가

기도 힘든데 자식은 왜 자꾸 많아지냐고 하지만 어떻게든 남편을 거둬나게 하고 제가 선택한 저의 삶이기 때문에 희망이라도 생길까봐 발버둥치고 붙잡고 하면 할수록 저의 행복은 달아나고 있죠. IMF 때 남편과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시어머니는 독사에 물리는 등 집안에 우환이 겹쳐 남편은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술에 날마다 취하고 폭력 구타는 날로 심해 제가 병원에 입원하고 사는 게 아니었죠. 그래도 전 이혼하지 않았지요. 아버지 목숨하고 바꾼 남자였으니 어떻게 생각하면 남편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제가 더 나쁜 사람일거라 생각합니다. 허덕이면서 살아야 하는 저는 세월 앞에서 끝내 남편의 성격을 바꾸지 못하고 무릎 꿇고 말았어요. 2001년 10월에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과 저는 다짐을 몇 번이고 합니다. 앞만 보고 살자 여자 혼자 아이 셋을 가르치고 먹고 입히고 힘든 세상 하지만 행복이라 생각했죠. 항상 불안과 초조 속에서 사는 우리 아이들을 내가 키우고 아빠로부터 벗어났으니 눈물도 한숨도 서서히 감추고 좋은 날이 올 거라 믿고 새벽엔 우유배달 낮에는 공장에서 미싱 휴일에는 알바 등 돈벌이가 되는 일이라면 무조건 뛰어야만 했습니다. 막노동, 공동어시장에서 생선 고르기 뷔페식당, 학교급식 등 시간과 몸이 허락 할 때까지 일을 해야 살 수 있었거든요. 주위 분들은 우리가 사는 게 안타까웠는지 도움의 손길을 주었고 용기를 주면서 살다보면 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위로도 해주고 정말 감사의 눈물도 많이 흘렸고 그럴 때 마다 아이들과 다짐을 하죠. 아무리 삶이 지치고 힘들어도 웃음을 잃지 말고 부정보다는 긍정, 욕심을 버리고 더불어 살아가야 우리를 도와준 분들에 대한 보답이라고 착하게 아름답게 살자고 말입니다. 별거 시작 5년이 되었을 때 이혼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여 혼자 국선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시켜달라고 울면서 애원했죠. 안타깝게 생각되었는지 서류 준비 6개월 만에 이혼판결이 났습니다. 그때부터 수급자로 선정되어 정부에선 도움을 주셨고 주변 분들도 격려와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친정남동생이 이혼을 했다고 어린 조카를 키울 수 없다고 하여 2006년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모 집에와 살겠다고 내려와 6살 조카도 같이 살게 되었지요.

우리 애들 세 명, 조카 한 명을 잘 먹이지도 입히지도 못했지만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주길 기도하면서 생활했어요.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나이는 들어가고 몸은 지치고 혼자서 어떻게 하나 날마다 생각하면서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했으면 아이들과 살 수 있을 건데 하는 생각으로 목표를 세우고 준비하여 직장을 여기저기 알아보고 취직한 식당이 원조조방낙지볶음 식당이었습니다. 주인 사장님, 사모님과 함께 5년 동안 열심히 근무하면서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그러던 중 행운인지 기회인지 저에게 빛과 소금 같은 분을 지인으로부터 소개 받았습니다. 부산광역시 자활인력지원본부에 근무하시는 선생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저의 삶을 칭찬해주셨고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는 좋은 일만 더 생기고 하고자 하는 창업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도 받고 연수도 가고 함께 열심히 뛰어나자고 하였습니다. 정말 행운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희망키움뱅크의 자격조건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저소득층 누구나 꿈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은 도전을 할 수 있게 만든 제도로 부산광역시 자활인력지원본부에서는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을 알려주고 용기도 전정신과 믿음을 주었습니다. 저보다 어려운 이웃도 많고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를 추천해주셨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온몸에서 알 수 없는 경련이 일어나면서 하염없이 고맙다는 말과 함께 눈물이 흘렸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도 정말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잠은 안 오고 기분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업되고 꿈만 같고 열심히 살다보니 쟁하는 날이 현실로 온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남편하고의 이혼 여성가장으로서 아이들의 엄마로서 욕되게 살지 말자고 다짐이 이뤄져 정말 고맙습니다.

2009년 6월 저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고 메뉴가 정해지고 간판이 올라가고‘아,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꿈은 이루어지는구나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잠깐이었습니다. 저는 조방낙지에서 배운 실력이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조금은 손님들의 입맛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또 한 번 맛에 대해 고민하고 밤낮으로 연구하며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하면서 약간의 세월이 흘러 지금은 손님들의 반응도 좋고 한번 다녀간 손님은 다른 손님과 함께 다시 “신. 명가낙지”를 찾아주곤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저를 아껴주시는 이웃들이 있기에 앞으로도 좌절하지 않고 꾸밈없이 노력하면서 사회에 참된 엄마로서 꼭 모범이 되어 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축복과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 또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신. 명가낙지” 7평짜리 남짓한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지만 걸음마 단계라 생각하고 손님들의 입맛에 메뉴를 맞추어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맛있게 조리하고 좀 더 친절 한 미소와 서비스 개선에 몸으로 실천하고 직접 발로 뛰어서 항상 신선하고 참된 맛으로 보다 나은 “신. 명가낙지볶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혼자서도 잘해요

참기업체 취업 김○지씨 사례관리사 최종인

처음 부산광역시 자활인력지원본부를 접한 건 작년 봄인 것 같다 당시 사례관리사 선생님을 만났을 때 지금까지 인연이 닿을 줄은 몰랐다. 상담 내내 알겠다는 말과 웃음을 보였지만 속으로는 이런 사업에 꼭 참여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졌다 하지만 사례관리사 선생님의 꾸준한 설명에 조금씩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막상 설명을 주의 깊게 들어보니 좋은 점도 제법 많았다. 아는 동네오빠처럼 편하게 이야기를 하고 어려운 용어를 계속 물어봐도 짜증내지 않고 웃으며 대답해 줘서 그럴 수 있었던 것 같다

본부를 통해서 취업했을 때의 혜택 중 가장 맘에 들었던 것은 취업을 하더라도 의료보호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활특례라고 한 것 같은데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조건인 듯 했다. 수술 후 합병증으로 인한 잦은 통원치료를 다녀야 하는 어머니가 계신 까닭에 통원비가 많은 부담이 되는 우리 가정에 이 혜택이 앞으로 2년간 더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은 무척 다행스럽고 고마운 것이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나로서는 그때의 선택이 너무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솔직히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기에 지금 근무하는 회사에 더 책임감을 느끼기도 한다.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게 된 만큼 앞으로도 좋은 모습으로 회사생활에 임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는 생각보다는 내 스스로 해냈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 물론 사례관리사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난 지금도 친구들과 동네 오빠들과 늦은 시간까지 술만 마시며 놀고 있었을 것이다. 사례관리사 선생님께서 내 사생활을 계속 물어보며 단속 아닌 단속을 한 것은 더 이상 예전의 게으른 나로 돌아가지 말라는 뜻일지도 모른다. 그 점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말 할 수 있는 건 취업 희망업체와 면접을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했다는 것이다. 사례관리사 선생님께서 제시해 준 많은 취업가능업체들 속에서 정말 내가 잘 할 수 있고 관심을 가지며 계속 일 할 수 있는지 상담을 통해 생각을 정리하고 굳힐 수 있었다.

동행면접 때도 그랬다. 선생님은 자꾸 내가 불안하다며 면접장에 함께 간다고 하셨지만(사실 이전에 면접을 보기로 해놓고 가지 않은 적이 있어 선생님이 불안해하는 것이 이해는 되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내 얘기를 대신 해 준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면접은 항상 혼자서 보았다. 그러나 불합격통보가 쌓여갈수록 내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닌지 하는 불안함은 어찌할 못했다. 사례관리사 선생님은 아무 내색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 말을 들어라.'는 무언의 압박으로만 느껴졌다. 그렇게 해볼까 하다가 이왕 결심한 일 끝까지 가보자는 생각을 다졌다. 선생님도 내 뜻에 동의해 주셨고 대신 면접 시 주의사항에 대한 알림은 계속 하겠다고 하셨다. 그렇게 다시 면접에 도전하다 11월 5일에야 결실을 이룰 수 있었다.

사례관리사 선생님의 말씀이 필요 없었다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그 분의 말씀이 더해지면 난 훨씬 더 쉽게 취업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난 그것이 싫었다. 스스로의 판단과 선택으로 내가 일할 곳을 정하고 싶었다. 알량한 자존심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야 마음에서 우러나 열심히 일할 것 같기 때문이다 선생님도 아마 그런 내 마음을 믿고 묵묵히 기다려주신 것 같다.

2010년 11월이 되면 근무한 지 꼭 1년이 된다. 이제껏 1년을 넘겨 해 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엔 최소한 자활특례라는 혜택이 끝나는 2012년까지는 이어나가고 싶다 기회가 되면 방송통신대학같은 곳에도 진학하고 싶다. 그 두 가지가 다 이뤄질 수 있게 오늘도 잘 웃지만 무서운 사장님과 깐깐해도 다정한 “왕언니”와 함께 열심히 일할 것이다. 지켜봐 줘. 미래의 나.

복지고용통합 지원을 통한 자활 성공 사례보고

2010. 3월

경기광역자활센터

이정근

I. 사업개요

구 분	희망리본프로젝트 1차년도 사업수행
기본금액	1,500,000,000원
실 비	600,000,000원
사업목적	<p>□ 개인별 맞춤형 복지-고용통합 서비스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이외에도 복지서비스 제공 의료, 가족문제, 직업능력개발, 의식전환 등 total solution적 접근과 서비스 제공 ○ 각각 다른 공급기관에 의해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를 수요자 중심 복지-고용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강화 ○ 빈곤취약계층의 복합적 사슬고리형 가족문제 직업능력 문제 등을 해소하고 개인별 장단기 목표설정과 자활지원을 위한 맞춤형 복지-고용통합 서비스 제공 인프라 구축과 시스템 확립 <p>□ 빈곤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능력 및 취업경쟁력이 미약한 빈곤취약계층에 맞는 일자리 개발을 위한 일자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틈새일 자리를 발굴하여 준비된 인력을 공급 지역경제 활성화 ○ 취약한 복지영역의 서비스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자활사업과 연계한 공동체 창업 개인 창업 등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사회 자원연계 <p>□ 빈곤취약계층 자활성공 증대(수급자, 차상위 경제활동촉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여건으로 인한 조건부과제외자 조건불이행자, 자활사업 참여자 및 빈곤위험계층(population at poverty risk)을 대상으로 체계적·전문적인 복지고용 통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성과 증대 ○ 가구여건으로 조건부과제외자로 분류된 자에게 사회서비스 우선 지원하여 경제 활동 촉진 ○ 조건불이행자의 불이행 원인 파악 및 심리적·정신적 치료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근로유인과 자활자립지원 <p>□ 성과관리형 취업중심 자활사업다각화(시범사업을 통한 모델제시)</p> <p>10년 동안 운영된 지정방식 자활사업의 전환과 공동체 창업으로 집중된 자활경로를 취업 중심으로 다각화하며 대상자 개별화 맞춤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실질적 자활지원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점검하고 지역특성(도시형)에 맞는 자활사업 다각화모델 제시</p>

구 분	희망리본프로젝트 1차년도 사업수행
<p>주요추진 사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지원)시스템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리본프로젝트 사업을 수행할 일자리원스탑중앙센터 설립 및 운영 - 사업설명회를 통한 거점 및 지역센터 공모 선정 - 기관운영 및 서비스모델 개발을 위해 도시형 취업중심 4개 지역에 거점센터 운영 - 중소도시 지역 대상자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경기도내 8개 지역 자활센터에 대상자 분할위탁 - 그 외 지역 대상자 지원을 위해 도내 10개 일자리지원센터와 업무협력을 통한 대상자 지원 □ 근로동기 강화 및 근로여건 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초기상담(정기상담) 및 사례관리 ○ 개인별자활지원수립 및 활동계약 체결 ○ 복지서비스 지원 □ 근로역량강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진로설계 및 취업지원을 위한 희망취업설계Ⅰ,Ⅱ,Ⅲ,Ⅳ 운영 ○ 대상자 직업능력강화를 위한 직업교육지원 및 기업맞춤교육 ○ 현장실습 및 경과적 일자리 연계 □ 취업 및 창업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지원서비스(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지원, 동행면접) ○ 맞춤취업알선 ○ 창업지원서비스 ○ 사후관리 서비스 □ 복지 및 고용네트워 구축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복지기관 연계망 구축 ○ 자활공동체/사회서비스 일자리연계망 구축 ○ 일반기업 인프라구축을 위한 이웃社촌캠페인 진행 □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양성사업[품질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매뉴얼 제작 및 교육 ○ 일자리매니저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 성과관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분석을 통한 사업추진, 보고 ○ 매월 일자리매니저 월례회의(수퍼비전), 지역센터 기관장간담회 ○ 취업성공자 대회 □ 대외홍보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 ○ 언론공동캠페인

구 분		희망리본프로젝트 1차년도 사업수행																		
추진 실적	취업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참여 대상자 : 총1,000명(수급자 70%) ○ 취업성공 : 409명(취업을 40.9%)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취업구분</th> <th>취업 인원</th> <th>%</th> </tr> </thead> <tbody> <tr> <td>민간영리업체</td> <td>349</td> <td>85.3%</td> </tr> <tr> <td>사회서비스 일자리 자활공동체분야</td> <td>59</td> <td>14.4%</td> </tr> <tr> <td>창업</td> <td>1</td> <td>0.3%</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개월 미만자 포함/ 2월말 현재 취업성과급 신청대상자는 382명 ○ 6개월 이상 취업유지(79.0%) *9월 이전 취업자 184명중 146명 취업유지 ○ 탈수급 가능인원 : 2010년 2월 말 확인자 현재 77명 현재 근무상황 유지시(6개월이상 근무자 중) 178명 예상(17.8%) 							취업구분	취업 인원	%	민간영리업체	349	85.3%	사회서비스 일자리 자활공동체분야	59	14.4%	창업	1	0.3%
	취업구분	취업 인원	%																	
	민간영리업체	349	85.3%																	
	사회서비스 일자리 자활공동체분야	59	14.4%																	
	창업	1	0.3%																	
	구인처 발굴 및 일자리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인처 발굴: 총 2,410건 ○ 이웃社촌 캠페인 협약기업 총 69개 																		
	복지네트워킹구축	○ 대상자연계를 위한 복지기관MOU 및 서비스연결 총 530건																		
	근로동기강화	○ 근로동기강화 서비스제공 37,585건																		
	근로능력강화	○ 희망취업설계 및 직업훈련(직업교육연계, 기업맞춤교육, 직업교육 실시) 등 총 5,773건																		
	맞춤일자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알선 및 프로그램 총 9,964건 ○ 사후관리서비스지원 총 9,246건 																		
창업지원	○ 창업상담, 자금관련교육, 사업계획서 작성지원 등 총752건																			
서비스품질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문위원회 구성 1회 간담회 운영 ○ 대상자 욕구충족 만족도조사 실시 ○ 일자리매니저, 슈퍼바이저 양성교육 ○ 업무매뉴얼 제작 																			
성과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지원위원회 구성 1회 운영 ○ 일자리매니저 월례회의 10회차 실시 ○ 지역사업수행기관 기관장 간담회4회차 실시 ○ 전체 일자리매니저 중간평가워크샵 1회차 실시 ○ 취업성공자대회 실시1회 																			
홍보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인일보와 업무협약 언론공동캠페인 3회 실시 ○ 사업홍보물 제작(CI, 리플렛, 홈페이지 등) 																			
사업 실적	취업자	409명	6개월 유지율	79.3% 예상	탈수급율	17.8% 예상	복지고용 서비스 제공건수	63,320건												

□ 연대비 추진실적 총괄(2010년 2월말 현재)

평가요소	세부항목	연 목표		추진실적	
취업목표 (명)	참여대상자	1,000	100.0%	1,000	100.0%
	취업성공자 (1개월,836천원이상)	300	30.0%	409	40.9%
	6개월유지자	210	취업자의 70.0%	79.3%예상	
	탈수급	150	참여자의 15.0%	17.8%예상	
근로여건조성	근로여건서비스제공	2,000		37,585	
근로여건강화	근로능력강화	1,500		5,748	
맞춤일자리지원	취업알선프로그램	2,500		9,964	
	사후관리서비스	1,000		9,246	
창업지원	창업교육	20		752	
	창업자금연계	5			
서비스품질관리	전문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1회 운영		
	대상자 욕구충족 만족도 조사		최종만족도 조사 실시		
	일자리매니저, 슈퍼바이저 양성교육		36회, 494명 참석		
성과관리	운영지원위원회 구성 운영		1회 운영		
	일자리매니저 월례회의, 평가워크샵		월례회의 10회/워크샵1회		
	지역사업수행기관 기관장 간담회		4회운영		
	취업성공자대회		1회 운영		
홍보사업	수시진행		홍보물, 온라인홍보, 언론공동캠페인 진행		

※ 한국조세연구원의 성과 보고는 성과급 신청 기준으로
 취업자의 경우 2월말기준 350명, 6개월 근로유지는 91명임
 탈수급 가능인원은 성과급은 신청하지 않았지만 2월말 확인기준 85명임

II. 운영시스템구축사업

□ 경기광역자활센터 희망리본프로젝트 수행조직 [일자리원스탑중앙센터]신규설립

- 중앙센터가 경기도내 31개 시군 참여자 지원을 위한 지역사업수행기관 공모 선정
→ 4개 거점센터, 10개 지역센터 선정

중앙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지역별 배분 • 취업사례관리,모형 제시,매뉴얼 개발 • 취업전 프로그램 개발 보급 • 권역별 서비스 설계 및 컨설팅 • 권역별 평가 모니터 • 권역 단위 교육 개발 및 운영 • 실적관리, 행정지원 • 실무자 역량 강화, 수퍼비전 • 대상자 발굴, 기초 DB 취합, 제공 • 광역단위 네트워크 조직, 취업지원 실적분석, 만족도 조사 및 분석, 사후관리
지역센터 4개 거점센터 10개 지역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발굴 및 선정 • 대상자별 기초상담 자활계획 수립 • 복지서비스 연계 및 제공 • 취업준비 교육 / 전문자격교육 연계 • 일자리, 복지지원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구인처 발굴 • 맞춤형 취업알선 • 사후관리 • 실적보고 및 각종 정례회의 등 참석

→ 그 외 지역 대상자 지원을 위해 지역자활센터 일자리지원센터와 협력구조 형성 (10개센터)

□ 취업지원 사례관리 업무 인원

○ 총인력 46명				
○ 일자리매니저의 역할: 대상자 사례관리, 사업기획 운영, 복지고용네트워크발굴, 행정업무 복합수행				
센터구분	매니저인원	대상자인원	1인 관리인원	비고
중앙센터(1개)	9명	65명	평균 7명	*중앙, 거점, 지역센터 임금 월평균 1,823,073원 연평균 21,665,112원
거점센터(4개)	13명	504명	평균 39명	
지역센터(8개)	13명	316명	평균 24명	
협력센터(10개)	11명	115명	평균 11명	
22개 센터	46명	1000명	평균 22명	

- 거점센터의 경우 관리인원이 평균보다 높지만 지정대상자 관리와 함께 구인처 발굴서비스 발굴, 행정 등 업무분화를 통해 효율적인 업무진행 가능
- 또한 중앙센터에서 품질관리, 프로그램개발, 성과분석, 조직운영 시스템, 실무인력관리 (역량 강화, 전문성), 홍보 등 구조적 체계구축과 경영을 함으로써 지역에서는 대상자 및 착서비스지원에 집중함
- 협력센터를 제외한 지역사업수행기관 일자리매니저의 급여는 연평균21,665천원임

Ⅲ. 대상자 개인별 복지고용서비스 지원결과

□ 참여인원현황 : 1,000명(수급자 700명, 차상위 300명)

① 대상자 모집방법

추진주체	모집방법	세부추진내용
지자체 (경기도)	시군팀장회의	시군담당주무계 팀장 회의에서 시군 추천인원 배정
	시군사업설명회	시군담당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진행
	시군공문발송	기간 내 대상자 모집 독려
	지역방송홍보	지역방송 자막안내를 통해 대상자 모집
일자리 원스탑센 터	시군사업설명회	동사무소 담당자 사업설명회
	동사무소 현수막 게시	동사무소 대상자 모집 현수막 게시
	사업설명 리플렛 배포	행정기관, 유관기관에 사업안내 및 대상자 모집 리플렛 배포
	수급자, 차상위 대상 사업설명회	수급자, 차상위 대상 시군단위 사업설명회를 통해 사업 참여 독려 및 신청 상담진행
	유관기관 연계 대상자 발굴상담	일자리지원센터 구직자 중 대상자 상담 자활사업 참여자 취업희망자 복지유관기관 대상자 상담

○ 추진과정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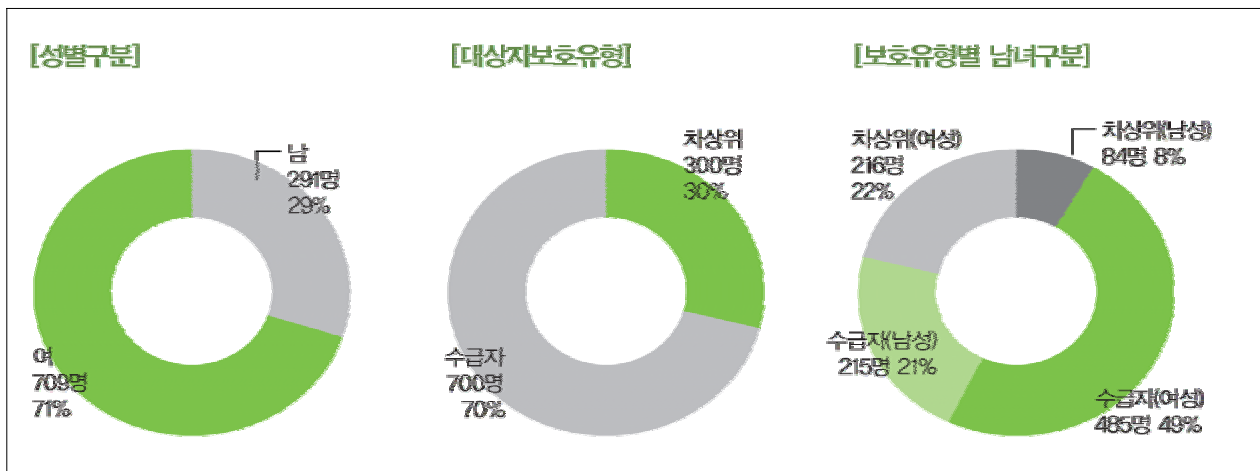
- 1차 대상자 500명 확정: 시군 지자체 사업이해 부족으로 부적합 대상자 다수 발생(근로 유지형 자활사업참여자 미거주자, 사업참여 미신청자 등)
- 추천인원 718명중 사업참여자 30%(218명)불참확정: 사업수행기관 사업참여여부 확인 작업으로 소모적인 과정 발생
- 2차 대상자 546명 확정: 시군 지자체와 일자리원스탑센터의 협력사업(사업설명회 및 대상자 대상 사업설명회 진행)으로 대상자 모집에 시너지 효과 발생

○ 1차 희망리본프로젝트 참여대상자 현황

지역		확정인원		
사업수행기관	시군명	1차(5.15)확정	2차(6.20)확정	총합
총계		500	500	1000
수원센터	수원시	56	13	69
성남센터	성남시	65	63	146
	광주시	6	11	
부천센터	부천시	61	93	165
	광명시	10	1	
안산센터	안산시	48	97	145
시흥센터	시흥시	28	18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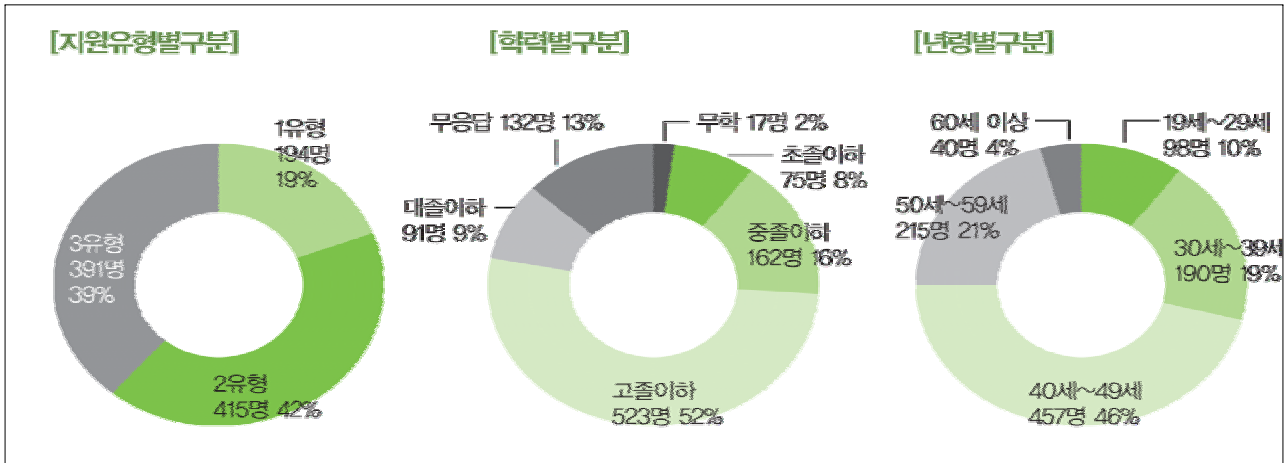
지역		확정인원		
사업수행기관	시군명	1차(5.15)확정	2차(6.20)확정	총합
남양주센터	남양주	14	16	30
의정부센터	의정부	25	21	50
과주센터	과주시	14	31	48
양주센터	양주시	8	7	42
	동두천시	10	11	
	연천군	6	0	
안양군포센터	안양시	20	4	65
	군포시	12	10	
	과천시	1	0	
	의왕시	0	6	
	광명시일부	12	0	
고양센터	고양시	7	39	46
평택센터	평택시	8	38	46
협력센터	오산시	7	8	15
	구리시	7	4	11
	여주군	13	0	13
	이천시	6	0	6
	용인시	15	1	16
	하남시	3	0	3
	김포시	2	0	2
	포천시	14	5	19
	양평군	4	3	7
그 외지역	화성시	11	0	11
	가평군	3	0	3
	안성시	4	0	4

② 참여대상자 기초 현황



○ 성 별 : 여성 709명(71%), 남성 291명(29%)

○ 보호유형 : 수급자 700명(여성 485명), 차상위 300명(여성 216명)



- 연령별 : 40대(457명, 46%), 50대(215명, 21%)
- 유형별 : 근로동기 부족(1유형) : 194명(19%)
근로능력 부족(2유형) : 415명(42%), 지지체계 부족(3유형) : 391명(39%)
- 학력현황 : 고졸이하 523명(52%), 중졸이하(16%)

주요사업성과

□ 근로동기강화 및 취업준비 교육 - 희망취업설계프로그램 I, II, III

- 각 유형에 맞는 취업전 준비교육을 통해 근로동기강화 취업설계, 취업성공을 위한 실질적 기법을 전달하였음
- 참여 대상자가 취업전 희망취업설계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교육받음으로써 자신의 진로설계를 통한 취업자신감 향상에 기여
- 일방적 강의방식이 아닌 대상자의 참여식 교육운영으로 적극성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
- 단계별 교육 내용 및 추진 결과 - 총 104회/ 1,210명 참여

구분	교육진행 내용 및 결과	
희망취업설계 I	교육방향	사업 수행 전 사업의 세부 내용 및 목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사업 참여에 대한 책임감과 명확한 동기 부여
	참여대상	참여대상 전원
	참여인원	총 279명 참여 교육을 통해 취업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78.8% 교육을 통해 희망리본프로젝트 사업을 이해했다 81.0%
	교육시간	1일차 2시간
	교육내용	- 사업내용 설명 및 유의사항 안내

구분	교육진행 내용 및 결과							
희망취업설계Ⅱ		<p>- 나와의 다짐- 희망에 대하여</p> <p>- 참여동기나누기</p>						
	교육방향	집단상담을 통해 자신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고 자신감 회복 지원						
	참여대상	1, 2유형(근로동기, 자신감부족 유형, 근로역량 부족 유형)						
	교육진행 횟수	총 60회						
	참여인원	<p>총 658명 참여/ 참여자의 14.9% 취업성공</p> <p>교육을 통해 취업을 위한 계획을 스스로 세울 것이다 85.8%</p> <p>교육을 통해 새로운 의욕을 가질 수 있었다 86.4%</p>						
	교육시간	3일차/ 15시간						
교육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15%;">1일차</td> <td>마음열고 너 만나기 나를 마음껏 표현하기 너를 만나 '나'말하기 내가 살아온 날에서 힘찾기</td> </tr> <tr> <td>2일차</td> <td>긍정의 힘 내게 있는 것 긍정하기 다른사람보기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를 만드는 자성예언</td> </tr> <tr> <td>3일차</td> <td>일하는사람으로살기 그래 나도 이제 꿈꿔보자 마무리 및 시상</td> </tr> </table>		1일차	마음열고 너 만나기 나를 마음껏 표현하기 너를 만나 '나'말하기 내가 살아온 날에서 힘찾기	2일차	긍정의 힘 내게 있는 것 긍정하기 다른사람보기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를 만드는 자성예언	3일차	일하는사람으로살기 그래 나도 이제 꿈꿔보자 마무리 및 시상
1일차	마음열고 너 만나기 나를 마음껏 표현하기 너를 만나 '나'말하기 내가 살아온 날에서 힘찾기							
2일차	긍정의 힘 내게 있는 것 긍정하기 다른사람보기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를 만드는 자성예언							
3일차	일하는사람으로살기 그래 나도 이제 꿈꿔보자 마무리 및 시상							
희망취업설계Ⅲ	교육방향	올바른 직업의식을 고취시키고 취업을 향한 명확한 목표설정이 가능하도록 지원						
	참여대상	취업가능 대상자 전원						
	교육진행 횟수	총 29회						
	참여인원	<p>총 273명 참여/ 참여자의 12.4% 취업성공</p> <p>교육을 통해 취업자신감 향상에 도움되었다 86.8%</p> <p>교육을 통해 취업목표를 세울 수 있었다 87.2%</p>						
	교육시간	3일차/ 12시간						
	교육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15%;">1일차</td> <td>- 마음열기 (자기소개/인터뷰 게임 등) - 인생생애곡선을 통한 꿈의 변천사 - 자기탐색 : 인생 성공 경험 찾기 - 자기탐색 : 자신의 기술, 흥미, 성격 강점 찾기</td> </tr> <tr> <td>2일차</td> <td>- 노동시장 및 직업세계 이해 - 취업걸림돌 극복하기(취업을 위한 부정적 생각 깨기) - 취업을 위한 인적네트워크 구축하기 - 취업 로드맵 구축하기(장·단기 계획 수립)</td> </tr> <tr> <td>3일차</td> <td>- 면접 이미지메이킹 - 모의 면접 및 피드백 - 직장 예절 - 칭찬 롤링 페이퍼/평가</td> </tr> </table>		1일차	- 마음열기 (자기소개/인터뷰 게임 등) - 인생생애곡선을 통한 꿈의 변천사 - 자기탐색 : 인생 성공 경험 찾기 - 자기탐색 : 자신의 기술, 흥미, 성격 강점 찾기	2일차	- 노동시장 및 직업세계 이해 - 취업걸림돌 극복하기(취업을 위한 부정적 생각 깨기) - 취업을 위한 인적네트워크 구축하기 - 취업 로드맵 구축하기(장·단기 계획 수립)	3일차
1일차	- 마음열기 (자기소개/인터뷰 게임 등) - 인생생애곡선을 통한 꿈의 변천사 - 자기탐색 : 인생 성공 경험 찾기 - 자기탐색 : 자신의 기술, 흥미, 성격 강점 찾기							
2일차	- 노동시장 및 직업세계 이해 - 취업걸림돌 극복하기(취업을 위한 부정적 생각 깨기) - 취업을 위한 인적네트워크 구축하기 - 취업 로드맵 구축하기(장·단기 계획 수립)							
3일차	- 면접 이미지메이킹 - 모의 면접 및 피드백 - 직장 예절 - 칭찬 롤링 페이퍼/평가							

□ 맞춤형직업훈련 지원

- 개인별 취업지원 목표에 맞춘 교육훈련 연계를 통한 근로능력강화 일자리의 선택폭 확대
- 무료 연계가능한 훈련은 지역자원등을 활용하고 그 외 무료로 지원가능하지 않은 교육은 중앙센터에서 직접 교육비 지원
- 인력을 다수 필요로하는 기업과는 기업맞춤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인력지원센터간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구조 마련
- 교육 지원(연계) 주요실적 총 228명 참여

구분	내용 및 실적	
기업맞춤교육	총 5회 30명 참여/22명 수료/ 10명 취업(취업율 45.5%)	
개인별 맞춤교육	총 70명 지원/ 63명 수료/ 34명 취업 (취업율 54.0%)	
무료훈련연계	노동부 직업훈련계좌제 활용	27명
	무료직업훈련 활용	42명
	실비활용	45명
	현장실습, 직장체험 교육	14명

□ 복지 및 고용서비스 제공횟수(월별)

구분		8월~10월	11월	12월	1월	2월	합계
근로 동기 강화	상담	9,587	3,014	3,938	3,135	4,011	23,685
	채무조정	171	27	39	16	22	275
	양육(육아)	1,124	138	41	26	31	4,279
	어르신부양		5	16	4	4	
	자녀학습지원		7	55	99	60	
	의료		3	26	50	34	
	주거		41	68	25	27	
	문화		155	432	144	27	
	기타복지서비스		34	578	191	834	
	직업심리검사		280	16	4	2	
	정보제공	1,979	257	615	283	502	3,636
	기타근로동기	1,459	523	1,095	842	1,486	5,405
근로 역량 강화	자체교육	684	392	148	101	20	1,345
	자격훈련	455	82	184	75	41	837
	정보제공	777	105	118	88	34	1,122
	기타근로역량	257	69	214	113	263	916
	기타역량강화상담	347	131	412	253	410	1,553
취업 지원	취업알선	1,225	411	467	424	176	2,703
	경과적일자리	0	35	16	38	10	99

구분		8월~10월	11월	12월	1월	2월	합계
서비스	동행면접	208	77	52	43	16	396
	이력서작성	347	114	81	65	29	636
	직업정보제공	1,054	277	186	138	44	1,699
	기타취업지원서비스	353	371	457	193	205	1,579
	기타취업관련상담	878	454	578	569	373	2,852
창업지원서비스	창업상담	109	50	46	51	12	268
	전문기관	37	11	6	4	0	58
	자금관련	19	10	26	12	0	67
	사업계획서	52	3	14	4	0	73
	정보제공	125	16	13	13	1	168
	기타창업지원서비스	66	9	13	17	13	118
사후관리서비스	직업적응상담	1,209	661	737	737	733	4,077
	자조모임	2	4	4	90	43	143
	자원연계모니터링	67	4	3	26	14	114
	구인업체사후관리	240	71	181	93	93	678
	신용및자산관리	75	6	19	6	1	107
	교육	64	5	21	18	260	368
	기타	409	309	801	720	1,520	3,759
합계		23,659	7,897	11,704	8,708	11,352	63,320

□ 1인당 서비스 제공횟수(월별)

구분		8월~10월	11월	12월	1월	2월	합계
근로동기강화	상담	9.59	3.01	3.94	3.14	4.01	23.69
	채무조정	0.17	0.03	0.04	0.02	0.02	0.28
	양육(육아)	1.12	0.14	0.04	0.03	0.03	4.28
	어르신부양		0.01	0.02	0.00	0.00	
	자녀학습지원		0.01	0.06	0.10	0.06	
	의료		0.00	0.03	0.05	0.03	
	주거		0.04	0.07	0.03	0.03	
	문화		0.16	0.43	0.14	0.03	
	기타복지서비스		0.03	0.58	0.19	0.83	
	직업심리검사	0.28	0.02	0.00	0.00	0.00	0.31
	정보제공	1.98	0.26	0.62	0.28	0.50	3.64
	기타근로동기	1.46	0.52	1.10	0.84	1.49	5.41
근로역량강화	자체교육	0.68	0.39	0.15	0.10	0.02	1.35
	자격훈련	0.46	0.08	0.18	0.08	0.04	0.84
	정보제공	0.78	0.11	0.12	0.09	0.03	1.12
	기타근로역량	0.26	0.07	0.21	0.11	0.26	0.92
	기타역량강화상담	0.35	0.13	0.41	0.25	0.41	1.55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알선	1.23	0.41	0.47	0.42	0.18	2.70
	경과적일자리	0.00	0.04	0.02	0.04	0.01	0.10
	동행면접	0.21	0.08	0.05	0.04	0.02	0.40
	이력서작성	0.35	0.11	0.08	0.07	0.03	0.64
	직업정보제공	1.05	0.28	0.19	0.14	0.04	1.70

구분		8월~10월	11월	12월	1월	2월	합계
	기타취업 지원서비스	0.35	0.37	0.46	0.19	0.21	1.58
	기타취업관련상담	0.88	0.45	0.58	0.57	0.37	2.85
창업 지원 서비스	창업상담	0.11	0.05	0.05	0.05	0.01	0.27
	전문기관	0.04	0.01	0.01	0.00	0.00	0.06
	자금관련	0.02	0.01	0.03	0.01	0.00	0.07
	사업계획서	0.05	0.00	0.01	0.00	0.00	0.07
	정보제공	0.13	0.02	0.01	0.01	0.00	0.17
	기타창업 지원서비스	0.07	0.01	0.01	0.02	0.01	0.12
사후 관리 서비스	직업적응상담	1.21	0.66	0.74	0.74	0.73	4.08
	자조모임	0.00	0.00	0.00	0.09	0.04	0.14
	자원연계모니터링	0.07	0.00	0.00	0.03	0.01	0.11
	구인업체사후관리	0.24	0.07	0.18	0.09	0.09	0.68
	신용및자산관리	0.08	0.01	0.02	0.01	0.00	0.11
	교육	0.06	0.01	0.02	0.02	0.26	0.37
	기타	0.41	0.31	0.80	0.72	1.52	3.76
합계		23.66	7.90	11.70	8.71	11.35	63.32

□ 대상자 유형별 서비스 제공 빈도 분석

근로동기서비스 유형별 제공 빈도

구분	서비스제공	인원	평균횟수
1유형	6,862	203	33.8
2유형	15,672	408	38.4
3유형	15,051	389	38.7
계	37,585	1,000	37.6

복지서비스 유형별 제공 빈도

구분	서비스제공	인원	평균횟수
1유형	881	203	4.3
2유형	1,740	408	4.3
3유형	1,658	389	4.3
계	4,279	1,000	4.3

근로역량강화서비스 유형별 제공 빈도

구분	서비스제공	인원	평균횟수
1유형	1,073	203	5.3
2유형	2,963	408	7.3
3유형	1,737	389	4.5
계	5,773	1,000	5.8

직업교육서비스 유형별 제공 빈도

구분	서비스제공	인원	평균횟수
1유형	151	203	0.7
2유형	424	408	1.0
3유형	262	389	0.7
계	837	1,000	0.8

취업지원서비스 유형별 제공빈도

구분	서비스제공	인원	평균횟수
1유형	2,110	203	10.4
2유형	3,762	408	9.2
3유형	4,092	389	10.5
계	9,964	1,000	10.0

창업지원서비스 유형별 제공 빈도

구분	서비스제공	인원	평균횟수
1유형	253	203	1.2
2유형	308	408	0.8
3유형	191	389	0.5
계	752	1,000	0.8

사후관리서비스 유형별 제공빈도

구분	서비스제공	인원	평균횟수
1유형	1,718	203	8.5
2유형	3,177	408	7.8
3유형	4,351	389	11.2
계	9,246	1,000	9.2

<전체서비스 제공 빈도 분석>

구분	서비스제공	인원	평균횟수
1유형	12,016	203	59.2
2유형	25,882	408	63.4
3유형	25,422	389	65.4
계	63,320	1,000	63.3

- 전체 서비스를 영역별로 분석한 결과 근로동기강화서비스가 52.6%, 취업지원서비스 15.7%, 사후관리서비스 14.6%, 근로역량강화서비스 7.8%, 복지서비스 6.8%, 직업교육 서비스 1.3%, 창업지원서비스가 1.2%의 순으로 나타남
- 현재까지 제공된 서비스를 분석한 결과 전체 1,000명에게 각 개인별 평균 63회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서비스 영역별로 유형별 제공 빈도를 분석해보면 직업교육서비스 제공이 1유형, 3유형 각각 평균 0.7회로 낮게 나타났으나, 취업지원서비스에서는 각 10.4/10.5회로 더 많은 서비스가 제공되었음

□ 대상자 변화 분석

중간평가 시 대상자 변화 현황			최종평가 시 대상자 변화현황		
구분	유형상향	유형하향	구분	유형상향	유형하향
인원	140	91	인원	513	126
비율	14.0%	9.1%	비율	51.3%	12.6%
1유형	61명	-	1유형	129명	-
2유형	79명	28명	2유형	197명	42명
3유형	-	63명	3유형	취업성공자 187명	84명 (3→1 24명/ 3→2 60명)

- 참여대상자 1,000명 중 사업참여 후 최종 유형상승된 인원은 513명으로 51.3%로 나타났음. 중간점검시 유형상향자가 14.0%였으나 최종 평가시 51.3%가 유형 상향되었으며 유형하향은 중간평가시 9.1%, 최종평가시 12.6%로 나타났음
- 유형상향자는 대상자가 참여기간동안 지원받은 교육 의식변화, 취업성공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또한 유형하향 된 인원은 126명으로 12.6%로 나타남. 가족 및 대상자의 건강악화, 초기 유형분류 오류 등이 주요요인(심리적 문제는 초기에 파악하기 어려움으로 작용하였음)
- 참여기간동안 사례관리, 희망취업설계, 직업교육등으로 취업하거나 의식변화로 인해 변화된대상자는 결과가 반드시 취업이 아니더라도 과정속에서 변화된 의미 있는 결과로 볼 수 있음

분류	유형	변화 인원	변화 요인
상승	1유형→2유형	32명	희망취업설계6건(교육), 의식변화 4건, 자격교육 4건, 취업 3건, 초기유형분류 오류 등
	1유형→3유형	97명	취업 86건, 희망취업설계5건(교육), 의식변화 3건 등
	2유형→3유형	197명	취업 160건, 자격교육 12건, 의식변화 5건, 희망취업설계4건(교육), 근로역량향상2건, 가족문제해결1건, 채무조정 1건 등
	3유형→취업성공자	187명	3유형 분류 유형 중 취업성공자
하향	3유형→2유형	60명	가족문제 16건, 건강문제 8건, 근로역량부족 7건, 신체질환 7건, 반복된 취업회피 7건, 근로의지없음2건, 초기유형오류 13건
	3유형→1유형	24명	신체질환 10건, 취업회피 5건, 건강문제 4건, 근로역량부족 1건, 초기유형오류 4건 등
	2유형→1유형	42명	신체질환 12건, 가족문제 7건, 취업회피 6건, 건강문제 2건, 초기유형오류 15건
[대상자 유형 상승/하향 변화요인]			

□ 사업종료 후 미취업자 현황 분석

- 1차 사업이 종료된 후 미취업자 591명의 현재 상황은 경과적일자리로 12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직업교육등을 마치고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참여자가162명으로 나타남. 이처럼 사업 이 종료되었지만 160여명이 취업을 준비하고 있고 경과적일자리로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 중에서도 최저임금 이상으로의 이직을 할 가능성이 높음
- 미취업자 중 경과적일자리참여자 취업준비자, 창업준비자, 직업교육참여자는 사실상 수행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취업을 알선하거나 필요한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고그 외 지역자활센터의 일자리지원센터, 도내 시군구 일자리센터등에 구직등록케 하여 지속적으로 대상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 또한 건강악화, 보육, 신용문제로 취업이 당장 어려운 자들은 본 센터와 업무협약한 무한돌봄센터와 연계하여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임

분류	명	%	향후 지원계획
경과적일자리 참여 중	120	20.3%	- 취업유지 및 일자리 알선
취업준비, 구직활동 중	162	27.4%	- 취업준비중으로 대상자에 맞는 취업알선
창업준비	11	1.9%	- 창업자금 및 교육 연계

분류	명	%	향후 지원계획
창업	4	0.7%	- 피아노학원 2/열쇠제작1/ 미용실1 창업했으나 수익금이 아직 836미만임 - 지속적 사후관리로 창업유지 될 수 있도록 지원
직업교육참여, 자격시험 준비	30	5.1%	- 직업교육 수료 후 취업알선
가사, 가족돌봄, 양육으로 인한 취업장애	35	5.9%	- 무한돌봄센터 연계로 복지서비스 지원
건강악화	91	15.4%	
신용불량으로 인한 취업장애	3	0.5%	- 신용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연계
고령으로 인한 취업장애	3	0.5%	- 도내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연계
공공근로, 자활근로, 희망근로 참여예정	19	3.2%	
구치소수감중	2	0.3%	
임신, 재혼	6	1.0%	
군입대 예정	2	0.3%	
중도탈락, 연락두절, 이사	71	12.0%	
취업기피	17	2.9%	
기타	15	2.5%	
총계	591	100.0%	

[사업종료 후 미취업자 현황]

- 이처럼 1년의 서비스 지원기간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것은 시범사업기간동안 지속적으로 대상자의 변화추이를 지켜보고 현재 1년으로 제한된 서비스지원기간에 대한 평가 점검을 통해 시범사업 이후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임

IV. 복지 및 고용네트워킹구축사업

주요사업성과

□ 외부인프라구축실적

항 목	누계 (건)
대상자연계를 위한 복지기관MOU 및 서비스연결	530
지역 네트워킹회의 참석 등	179
유관기관 사업홍보 (유관기관, 동/시 담당자등)	1,237
일자리관련 사업홍보 (구인업체/이웃사촌협약)	4,147
원스탑센터 협의체 구성 및 운영현황	102
외부인프라 구축실적 합계	6,195

□ 이웃사촌캠페인 약정 현황: 총 69개 기업 약정

□ 구인등록 현황 및 구인처 개발 - 연계 현황

구분	계	1. 기술기능			2.사무관리			3. 교육 법률	4.의료, 사회복지			5.문화예술			6.서비스			7.영업판매		8. 농림 어업	9.단순노무		
		기계, 금속, 전자, 통신	건축, 토목, 시설 관리	운전 등 기타	경영, 금융	일반 사무	경리 등 기타	강사, 보육 교사 등	보건 의료, 간호, 간병	사회 복지 관련	종교 등 기타	문화 창작 등	디자인 관련	조리 음식	이미 용 및 대인 서비스	전단 지, 검표 원, 구두, 미화 기타	영업 관련	판매 관련	농림, 어업	경비, 건물 관리	청소, 가사, 배달, 운반	제조, 건설, 단순 노무	
구인처 개발 활동	2,410	101	46	94	2	217	128	65	240	52	0	3	2	196	96	60	24	122	6	261	184	511	
구인 등록	3,864	63	65	125	9	279	185	95	333	88	1	3	4	239	156	115	48	119	17	400	405	1115	
취업 알선	2,629	75	44	70	6	214	101	82	343	49	0	1	3	174	111	50	21	85	6	305	314	575	

V. 서비스 품질관리 및 성과관리 사업

□ 서비스 품질관리사업

○ 일자리매니저 실무자 역량강화 사업 - 총 36회 494명 참여

진행 방법	- 취업사례관리를 위한 기본 역량강화교육을 지정 의무화 - 전문자문위원 및 영역별 전문강사 연계 교육 진행 -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진행 커리어카운셀링, 희망취업플래너양성과정, 직무역량강화교육	
세부 진행 내용	일자리매니저 업무매뉴얼 교육	○ 운영시스템, 서식활용, 복지고용네트워크 구축방법 등으로 교육 ○ 총 2회/ 31명 참석
	일자리매니저 양성교육	○ 상담기법, 지역네트워크활용법, 노동시장의 이해, 노동관계법규등으로 교육진행 ○ 총 8회(40시간)/ 253명 참석
	일자리매니저 보수교육	○ 직업흥미검사 활용법, 생애설계 프로그램의 이해, 정신보건대상자 사례 관리 방법등 ○ 총 4회(17시간)/ 109명 참석
	실무자직무역량 강화교육	○ 커리어컨설팅, 회의진행기법, 프리젠테이션방법 등 ○ 총 4회(20시간)/ 20명 참여
	커리어카운슬링교육	○ 개인 및 집단상담 기법 ○ 기초/심화과정 9회(48시간), 156명 참여
	희망취업플래너 양성교육	○ 희망리본프로젝트 참여자에 맞는 직업의식교육 및 교안개발 강사양성 과정 ○ 총 9회(63시간) /참석인원 81명

- 전문자문위원회 구성 및 간담회 1회 운영
- 업무매뉴얼, 취업가이드 제작배포
- 대상자 지원서비스 만족도 조사 - 1회 실시

분류	내용
조사대상	1차년도 희망리본프로젝트 참여대상자
조사표본	1천명 중 494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1:1 개별 면접조사
조사기간	2010년 2월 5일 ~ 2월 18일

분류	내용
주요 조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성과관리 자활시범사업의 종합 만족도는 83.4점 ○ 희망리본프로젝트가 지원하는 서비스를 경험하고 난 후 변화된 정도를 100점 만점으로 산출한 결과, 79.1점으로 나타남 ○ 서비스별(복지서비스/교육 훈련/취업지원서비스/일자리매니저)로 살펴보면, '일자리매니저'에 대한 만족도가 92.9점으로 타 서비스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이는 종합 만족도(83.4점)보다 9점 이상 높은 수준임 ○ 복지서비스 전체 만족도는 80.1점 ○ 교육 훈련 전체 만족도는 84.7점

□ 성과관리사업

- 실적관리와 사례 수퍼비전 제공을 위한 일자리매니저 월례회의 - 10회 운영
- 지역사업수행기관 기관장 간담회 - 4회 운영
- 사업중간평가 워크샵 - 1회 운영
- 사업성과보고대회 - 1회 진행
- 활동(성과)보고집, 희망취업사례집 발간

VI. 대외홍보사업

-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의 성과와 효과성을 알려내기 위해 홍보수단을 다양화하여 빈곤취약계층의 자활자립을 위한 복지-고용통합서비스에 지원 정책에 대한 효과성 확산함
- 경기도 사업수행기관인 경기광역자활센터(일자리원스탑센터)의 사업비전 및 방향을 효과적으로 알려내어 기관 인지도 향상 및 신뢰성을 강화하였음

① 기초홍보사업

- 홍보물 발간(3종/ 2만부 인쇄)
 - 희망리본프로젝트를 적극 알려내고 기관의 신뢰성 및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영역에 맞는 홍보물을 차별화하여 제작 배포함
 - 대상자용, 관련기관담당자용 리플렛 발간 이웃社촌 홍보리플렛 발간
- 일자리원스탑센터 CI개발
 - 희망리본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일자리원스탑센터의 기관이미지 향상을 위한 기업 및 복지기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CI제작 지역사업수행기관 배포
- 온라인 홍보(홈페이지 제작 운영 및 네이버 블로그 해피빈 운영)
 -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소통구조를 단일화하고 희망리본프로젝트 사업의 추진내용 및 성과를 온라인을 통해 홍보함으로써 사업추진의 객관성 유지
 - 젊은층의 활용도가 높은 네이버 [해피빈]블로그를 통하여 빈곤취약계층의 자활자립에 대한 사업추진 인지도 확대 기획모금을 통해 참여대상자를 위한 복지영역 확대 및 사업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효과적이었음

② 언론 및 방송 홍보

- 경인일보와의 업무협약으로 11월 한달간 언론공동캠페인 진행
- 기타 희망리본프로젝트관련 신문 8회, 방송 3회 진행
- 일자리원스탑센터 [희망리본프로젝트] 보도현황

일자	신문
08월 04일	경인일보- 일자리원스탑센터 -저소득층 일자리창출을 위한 언론공동캠페인 업무협약
11월 18일	경인일보 언론공동캠페인 1- 쏘아올린 자활의 꿈, 다시 태어날 당신을 위해 응원의 바람 분다
11월 24일	대한민국정책포털- 일용직 김모씨, 안정된 직장 얻은 비결 [희망리본프로젝트]덕택에 취업성공
11월 25일	경인일보 언론공동캠페인 2 - 일자리망 구축, 끈끈한 이웃社촌 가족의 삶도 바꾼다

일자	신문
12월 02일	경인일보 언론공동캠페인 3 - 일자리소셜 네트워크 모델, 새로운 인생 함께 설계하는 든든한 멘토
02월 03일	경인일보 - 더 커지는 일자리 희망리본 100일째 맞아
02월 04일	조선일보 - 경기도의 희망리본프로젝트, 모두 함께 일해야 살기 좋은 세상 온다
02월 25일	경기일보 - '희망리본프로젝트' 의미 되새긴다 '일자리나눔·취업성공자 대회'
일자	방송
02월 10일	한국정책방송[정보와이드 6] - 희망리본프로젝트 자립의 길 열어준다
02월 17일	경기방송 - 일자리로 가난탈출, 희망리본프로젝트
03월	노컷뉴스 - 경기도 희망리본프로젝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삶을 바꾼다

③ 기타홍보

구분	내용	추진실적
대상자 모집을 위한 플랭카드 홍보	대상자 모집 현수막 동주민센터 게시	242개
희망취업사례집발간	취업성공자, 일자리매니저수기 및 취업성공자 지원사례집 발간	500부
활동(성과)보고서 발간	희망리본프로젝트 1년간의 활동 및 성과 보고	500부
취업성공자대회 개최	취업성공자의 자활자립을 축하하고 구인기업 및 복지기관등 관련기관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는 자리	1회/ 2월 25일 진행

VII. 취업관련 성과보고

□ 취업관련

○ 구직성공자

구분	1개월이상 취업	1개월 미경과 취업자 (2월 1일 이후취업)	급여전 퇴사자 (1개월미만퇴사)	836미만 취업	구직성공인원
인원	377명	32명	91명	275명	775명

○ 취업률

구분	대상자	취업자	비율	취업자 (성과급 신청대상자)	비율
인원	1,000명	409명	40.9%	382명	38.2%

- 고용형태

구분	취업자	비율	취업자 (성과급 신청)	비율
정규직	169명	41%	142명	40%
계약직	240명	59%	208명	60%
합계	409명	100%	350명	100%

-임금분포

급여구분	취업자수	비율	취업자 (성과급 신청)	비율
83.6만원~90만원	146명	36%	129명	37%
91만원~100만원	95명	23%	77명	22%
101만원~110만원	39명	10%	32명	9%
111만원~120만원	53명	13%	43명	12%
121만원~130만원	25명	6%	21명	6%
131만원~140만원	11명	3%	9명	3%
141만원~150만원	18명	4%	17명	5%
151만원 이상	22명	5%	22명	6%
합계	409명	100%	350명	100%
평균급여: 1,072,260원				

- 업종구분

분류		취업자 수(명)	비율 (%)	취업신청자 수(명)	비율(%)
1. 기술기능	기계, 금속, 전자, 통신	5명	1.2%	5명	1.4%
	건축, 토목, 시설관리	4명	1.0%	4명	1.1%
	운전원 등 기타	4명	1.0%	2명	0.6%
2. 사무관리	경영, 금융	1명	0.2%	1명	0.3%
	일반사무	31명	7.6%	26명	7.4%
	경리 등 기타	10명	2.4%	8명	2.3%
3. 교육법률	강사, 보육교사 등	15명	3.7%	13명	3.7%
4. 의료, 사회복지	보건, 의료, 간호, 간병	46명	11.2%	41명	11.7%
	사회복지관련	6명	1.5%	6명	1.7%
	종교 등 기타	0명	0.0%	0명	0.0%
5. 문화예술	문화창작 등	0명	0.0%	0명	0.0%
	디자인관련	1명	0.2%	1명	0.3%
6. 서비스	조리음식	30명	7.3%	23명	6.6%
	이미용 및 대인서비스	35명	8.6%	33명	9.4%
	전단지, 검표원, 구두, 미화 기타	2명	0.5%	0명	0.0%
7. 영업판매	영업관련	8명	2.0%	8명	2.3%
	판매관련	17명	4.2%	13명	3.7%
8. 농림 어업	농림, 어업	3명	0.7%	2명	0.6%
9. 단순노무	경비, 물관리	27명	6.6%	23명	6.6%
	청소, 가사, 배달, 운반	65명	15.9%	58명	16.6%
	제조, 건설, 단순노무	99명	24.2%	83명	23.7%
합계		409명	100.0%	350명	100.0%

- 기타구분

보장구분(명)		성별구분(명)		유형구분(명)		업체구분(명)		학력구분(명)	
수급자	172	남자	287	1유형	74	일반업체	350	중졸이하	106
차상위	237	여자	122	2유형	148	사회서비스	17	고졸	269
				3유형	187	공동체	42	초대졸	34
합계	409	합계	409	합계	409	합계	409	합계	409

○ 취업유지율

취업자	6개월경과 취업자 (2009.9월 이전 취업자)	취업 유지자	6개월 유지 비율	취업 유지자 (성과급 신청)	성과급신청 비율
409명	186명	147명	79.0%	91명	49.4%

- 고용형태

구분	6개월 경과 취업자	비율	취업유지자	비율	6개월유지 신청자	비율
정규직	72명	39%	58명	40%	34명	37%
계약직	112명	61%	88명	60%	57명	63%
합계	184명	100%	146명	100%	91명	100%

- 임금분포

급여구분	6개월 경과 취업자	비율	취업 유지자	비율	6개월 유지 신청자	비율
83.6만원~90만원	58명	32%	49명	34%	32명	35%
91만원~100만원	46명	25%	37명	25%	18명	20%
101만원~110만원	23명	13%	19명	13%	13명	14%
111만원~120만원	26명	14%	20명	14%	13명	14%
121만원~130만원	11명	6%	6명	4%	4명	4%
131만원~140만원	5명	3%	4명	3%	3명	3%
141만원~150만원	6명	3%	3명	2%	2명	2%
151만원 이상	9명	5%	8명	5%	6명	7%
합계	184명	100%	146명	100%	91명	100%

○ 탈수급율/소득상향

대상자	탈수급확인인원	탈수급율	탈수급 성과급 신청자	신청비율
1000명	30명	3%	5명	16%

※ 탈수급 가능인원 : 2010년 2월 말 현재 77명

현재 근무상황 유지시(6개월이상 근무자 중) 178명 예상

- 탈수급자 기본사항

성별		보호유형		가족수			
남	여	수급자	차상위	1인	2인	3인	4인
14명 (47%)	16명 (53%)	26명 (87%)	4명 (13%)	5명 (17%)	6명 (20%)	15명 (50%)	4명 (13%)
30명		30명		30명			

- 탈수급자 일자리 현황

고용형태		일자리형태			기타	
정규직	계약직	일반업체	사회서비스	공동체	평균근로일수	평균임금
17명 (57%)	13명 (43%)	27명 (90%)	0명 (-)	3명 (10%)	198일	1,236,139원
30명		30명			-	

VIII. 2009년 사업평가 및 개선방향

1 사업추진과정 및 내용평가

□ 잘된 점

- 자활사업 비참여 수급자 차상위의 직접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자활지원의 효과성과
- 복지서비스 연계, 맞춤형취업알선,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적 경제활동유지 지원
 - 취업성공율 40%, 6개월 이상 취업유지율이 70%이상으로 탈수급의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수요자 중심 복지고용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때 실질적 자활성공율이 높은 것을 알수 있어 빈곤취약계층 개인별 특성에 맞춘 개별화된 복지고용 통합지원 방식의 효과성을 입증함
- 빈곤취약계층에게 맞는 교육프로그램개발(희망취업설계), 일자리매니저 양성교육을 통한전문역량 강화
- 대상자 복지자원 연계를 위한 지역사회네트워크망 구축 일반구인기업 인프라 확대를 위한이웃社촌캠페인을 통한 빈곤취약계층 채용인식변화는 1차년도 사업을 통해 효과성과 확대가능성 기회

특히, 경기도무한돌봄센터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2차년도 복지고용네트워크 구성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임
- 시범사업을 도내 지역자활센터와 함께 운영 기존의 복지자원 및 일자리망을 적극 연계함으로써 초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됨

□ 한계점

- 1차년도 참여대상자가 31개 시군에 분포되어있어 지역센터가 부재한 경우 관리시스템이 부재하였음. 이를 해소하고자 협력센터의 구조로 일자리지원센터와의 협력지원 체계를 마련하였으나 밀착형 사례관리가 어려움에 따른 낮은 취업률의 결과로 나타남

구분	취업성공율	
	참여대상자(명)	성공률(%)
거점센터	503명	55%
지역센터	366명	45%
협력센터	114명	38%

- 업무표준화 시스템과 매뉴얼로 지역센터가 운영되었으나 센터별 역량편차 발생 이는 센터별 추진의지, 일자리매니저의 경력현황 등에 따른 것으로 보임

- 대상자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활용기능 부재로 인한 업무시간 소요 등 차질 발생 대상자의 효율적 관리 및 성과분석을 위한 전산시스템 안정화 필요
- 지자체 사업 담당자의 이해부족으로 대상자모집 대상자 지원체계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음. 향후 더욱 효과적이고 강화된 민관의 업무협력체계 필요
- 기타 시범사업 지침 및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원활한 대상자 지원 및 사업추진에 어려움발생(불성실 참여자에 대한 제재 미흡)

□ 개선방향

- 10개 지역센터 중심 도시형 성과관리형 자활사업 다각화 모델구축
 - 기존의 4개 거점센터, 10개 지역센터, 8개 협력센터로 구분되었던 시스템을 성과와 집 중성이높았던 거점센터 운영방식으로 전환하여 10개 지역센터로 정비
 - 10개 지역센터가 도내 20개 지역 대상자의 밀착사례관리로 도시형 성과관리형 자 활사업 다 각화 모델 구축
- 중앙센터 집중 업무추진으로 지역센터 역량편차 해소
 - 업무·지원체계·지원방향 및 일자리매니저 역량통일을 위한 중앙지침 및 업무 매뉴얼강화(업무매뉴얼, 교육매뉴얼, 사업매뉴얼 보강)
 - 지침 준수여부 집중점검 및 패널티 강화
- 효율적인 대상자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구조 강화
 - 대상자 참여현황 및 취업현황에 대한 활동내역 월별보고 사업 설명회, 민관 연찬 회를 통한 협력구조 강화
- 지침, 제도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제안
 - 사업 추진상 발생하는 어려움 및 현안을 신속하게 정책 제안함으로써 시범사업이 원활하게제도화될 수 있도록 연구사업 진행예정

② 희망리본프로젝트 사업추진으로 본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

□ 빈곤취약계층 자활성공을 위한 지속적 사례관리 필요

- 1차년도 사업참여자의 70%가 수급자, 70%이상이 여성, 67%이상이 4-50대 이상의 중고령 이상의 연령을 가진자로서, 일반시장으로의 취업진입이 어려운 계층이었음 또한 근로경력은 3년이상 10년 미만인 35%(352명), 3년미만이 28%(280명), 근로경험이 없는자가 17%(168명)였으나 이는 근로단절기간을 포함되지 않은 기간이므로 이직률과 함께 근로단절기간에 대한분석이 필요함
- 이들의 자활자립을 위한 경로가 기존 자활사업을 다각화하여 개인별 맞춤형 복지고용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에 시범사업의 의미가 있었음 대상자를 확정하고 정해

진 기간동안 일자리매니저의 1:1 책임사례관리를 통한 복지고용서비스 제공은 근로동기와 근로능력을 강화하고 취업후에도 안정적으로 취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한 희망리본프로젝트의 사업시스템으로 인해 참여자중의 40%의 대상자가 자활자립에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임

- 하지만 1년이라는 지원 기간에 따라 미취업자로 남은 대상자는 사업수행기관이 서비스를 지원할 의무는 없지만 미취업자 519명의 상태를 분석해 본 결과 591명중 327명(미취업자 중 55.3%)이 경과적일자리, 취업준비, 창업준비, 직업교육(자격증취득)을 준비하고 있어 이들의 자활자립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의 상황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 있음
- 따라서 시범사업 이후 빈곤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자활자립을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한 만큼 서비스 지원기간에 대한 점검 및 구조화가 필요할 것임

□ 취업자 취업인센티브 및 구인기업 인센티브의 필요성

- 희망리본프로젝트의 참여대상이 수급자·차상위이므로 이들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 및 취업에 성공하여 자활자립을 했을 경우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 사업이 기존의 자활사업과 차별성을 갖고 또한 유사사업과의 경쟁우위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취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거나 운영되고 있는 제도 안에서의 인센티브를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임
- 희망리본프로젝트가 구인기업에게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없는 점을 감안 노동부의 채용장려금제도를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유사사업과의 중복등록을 우려하여 활용하지 못하였음(장려금 제도를 활용하려면 대상자가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해야 함. 사업수행기관에서도 구인기업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것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운영부처에서 별도의 인센티브를 구성하지 못한다면 중앙부처 차원에서의 타 제(프로그램)와의 관계성에 있어 좀 더 오픈된 사업추진의 합의 필요

□ 대상자의 경과적일자리에 대한 실적 성과화 모색 필요

-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가족 등의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근로경험이 없어 즉시취업이 어려운 참여자의 경우 사례관리적 접근을 통해 차후 일반취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고, 긴급생계를 위해 우선 경과적일자리(836천원 미만 일자리)에 취업알선 하고 있음
- 이는 비록 성과와 실적으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지만 취업지원과 같은 경로로 근로의욕 고취상담, 교육, 동행면접 등을 통해 인턴이나 실습을 연계하고 있으며 사후관리도 지속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성과 및 실적으로 검토될 수 있어야 함
- 또한 건강상 이유로 1일 8시간 근로가 어려운 대상자의 경우 836천원 이하 일자리를 3개월이상 유지시 취업성가로 인정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주요사례보고

나는 직장인이다!

“오00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야윈 모습이었고 아무런 의욕도 기운도 없어보였다 그냥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업 참여를 안내를 하였기에 상담을 하러왔다우리사업에 대한 안내를 하며 처음 상담을 진행하였으나 때 취업에 대한 의지는 없어보였고 삶에 대한 의지조차도 보이지 않았던 것 같다몸이 불편하신 어머니를 돌보아 드리며 어머니와 함께 병원치료 동행해드리는 일이 그가 하는 유일한 외부활동 이었다.”

[일자리매니저 수기 중에서]

성명	오00(남)	나이	30	유형구분	1	학력	고졸
보장구분	일반수급자			취업일자	2010.1.4	취업직종	생산직
대상자 초기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머니와 갈등심화 - 정서적 불안 - 대인관계, 외부활동, 근로경험 전무 - eye contact 안됨, 위생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지저분한 외모 - 어머니 동행 외부치료 월1회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서적 지지 및 자존감 향상을 위한 밀착상담 - 자존감향상 및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희망취업설계II 교육지원 - 대상자욕구에 따른 직업교육 지원 - 어머니와 관계개선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 직업교육 연계 - 전산세무회계 자격증 취득 - 취업시 대인관계 예절교육 - 취업알선 3회, 동행면접 3회 - 경과적 일자리를 통한 취업훈련 후 취업성공 - 주1회 사후관리(대상자, 업체담당자 등 전화, 방문) 						

오00님은 어린시절 부모님의 갈등과 이혼으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본인은 학교 생활내내 친한 친구가 없었으며 조용한 학생으로 존재감 없이 학교생활을 마쳤다고 한다. 초등학교 3학년 무렵 신장제거 수술을 하였고 이후 꾸준한 약물치료로 인하여 현재에는 많이 회복된 상황이었다

병원에서는 건강상의 다른 문제는 없어 무리한 신체적 활동이 아니면 평범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한다. 졸업이후에는 친구들과 거의 교류가 없었으며 주로 집에서 어머니와만 생활을 하였다고 한다. 무기력해 보이는 오00님과 친밀감형성을 위하여 정기적인 상담을 진행

하였으며, 위생관리에 대해 수시로 강조하였다(머리비듬, 3주 동안 같은 복장, 입냄새 등) 또한 본인이 무엇을 하고 할 수 있고 하고 싶은지 표현해 본 경험이 없어 오00님의 의사표현을 듣는 방식으로 상담은 진행되었다

어머니와의 생계를 유지하고 일을 해야 할 나이가 지났다는 부담으로 취업에 대한 욕구는 있으나, 구체적인 목표나 계획은 부족해보였다 몇 개월간의 상담이 진행되고, 오00님은 드디어 건강상의 이유로 신체활동이 많은 분야보다는 사무직 분야의 취업을 희망하여 전산회계 교육 수강을 희망한다는 표현을 하였다

오00님의 첫 욕구표현이라 즉시 지역내 무료직업교육기관을 이용하여 교육을 수강하기로 계획하고, 교육에 대한 정보를 찾고 적합한 학원도 찾았다 처음 교육을 신청하러 갔을 때 그의 첫 번째 좌절이 시작되었다. 외모적으로 어리숙해 보이고 의사표현이 서툴다는 이유로 신청이 좌절되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일자리매니저와 함께 동행을 해서야 교육신청을 할 수 있었고 그는 이후에도 그때의 경험을 떠올리며 좌절을 딛고 건디는 법을 터득한 것 같다 교육수강 전 학교 졸업 이후 처음하는 외부활동인지라 교육생들과의 대인관계나 위생관리 등에 대해 여러차례 상담을 하였다.

교육수강을 기다리는 동안 희망취업설계Ⅱ 과정에도 참여하여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방법을 익혔으며 얼굴표정도 눈에 띄게 밝아졌다
오00님은 이어진 전산회계교육에 낯설고 쉽게 적응되지 않아 힘들긴 하였으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처음 오00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을 생각하면 교육받을 때 그의 노력이 어느 정도였을지를 알 수 가 있어 교육기간 내내 이틀에 한번 씩은 통화를 하였다. 긴 교육기간을 마치고 드디어 자격증 시험을 볼 때 즈음 오00님은 변해있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교육을 성실히 수료하였다는 자신감과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도 보였다. 그리고 드디어 오00님은 전산회계 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합격소식을 듣던 날 어머니께서 연락을 주어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매우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였다

자격증 취득 이후 오00님은 취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서류 준비에 있어서도 먼저 준비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센터에서 이력서·자기소개서 초안 작성과 면접 기술을 익히는 모의면접을 진행하였다. 처음보다는 적극적이고 '일단 해봐야겠죠' 라는 말로 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3번의 취업알선이 있었고, 처음에는 서류전형에서 불합격하였으며 두번째는 면접에서 불합격하였다. 두 번의 낙방으로 상심하여 의기소침한 모습을 보였으나 3번째 도전에서는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으로 취업에 성공하였다 오00님은 매우 기뻐하며,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동안 신체적인 활동이 거의 없던 그는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느라 처음에는 살이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였으나, 2주 경과 후부터는 근무환경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소극적인 오

00님의 성격으로 인하여 근무자가 많은 업체였다면 적응이 더 힘들 수 있었으나 업체 사장님과 일하는 시간이 많아 잘 적응 할 수 있었으리라 판단된다 남들보다는 조금 행동이 느린 오00님과 일자리매니저를 믿어준 업체의 사장님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방문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취업이후 자신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 신장제거 수술한 이후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는 비슷한 경험자들과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오00님의 취업으로 인하여 어머니 또한 매우 기뻐하며 아들의 변화에 놀라는 모습을 보이신다. 하지만 오래 동안 받던 생계지원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 수급권 탈락에 대한 불안감을 보이기도 하여, 오00님의 미래를 위해서 자립이 필요하며 어머니가 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믿어주어야 한다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 오00님은 센터에서 지원하는 문화공연 관람을 어머니와 함께 다닐 정도로 여유가 생기고 평범한 직장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쌍둥이와 일군 새 삶터

“저는 당시 5살짜리 아들 쌍둥이와 전기가 끊겨 선풍기조차 켤 수 없는 무더운 합판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무능력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으며 술만 먹으면 폭력을 일삼는 남편과는 이혼을 결심하고 포천에 내려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되어 친정식구들과도 아무런 교류가 없었습니다. 너무 힘든 나머지 두 아이를 시설에 보내고 삶의 터전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내 자신에게 너무나도 미안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지만 사는 것이 너무나도 즐겁다는 생각도 가지게 해 주셨습니다. 몇 년 만에 어딘가에 소속되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자신감도 생기고 주위를 둘러 볼 마음의 여유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변화가 생겼습니다. “

[취업성공자 수기 중에서]

성명	김정인	나이	30	유형 구분	2유형	학력	전문대졸
보장구분	조건부수급자			취업 일자	2009. 8. 1	취업 직종	강사
대상자 초기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 조정신청 중이었음 - 남편이 대상자 명의로 사채 사용, 채무조정상담 필요 - 남편의 폭력을 피해 나와 판넬집에서 거주 - 생계를 위해 취업이 급한 상태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회복상담지원(경기광역채무조정상담소 연결) - 취업지원 및 창업관련 서비스 연계 - 자활창업예비자학교 교육지원 - 희망키움뱅크 자금신청 지원 - 무한돌봄서비스 연결 - 사후관리 						

김00님은 5세 쌍둥이 아들 둘과 함께 살고 있었으며 남편과의 이혼조정기간을 한달 앞둔 상황이었다. 기악과 피아노를 전공한 김00님은 학교졸업 후 일찍 남편을 만나 결혼하였는데 남편은 무능력하고 술만 먹으면 폭력을 휘둘렀고 부양해야 하는 시댁식구가 많았다고 한다 아이들에게까지 행해지는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시어머님의 권유로 이혼결정까지 하게 되었고 급하게 도망치다시피 이사를 와서 바람 한점 통하지 않는 판넬집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남편이 자신의 명의로 사채를 쓰고 핸드폰도 개통하여 사용하는 것 때문에 채무조정상담이 시급한 상황이어서 경기광역채무조정상담소를 연결해 신용회복기금을 통한 환승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였다.

전기가 끊겨 한여름에 당장 선풍기도 돌릴 수 없는 형편이어서 생계가 시급하였고 피아노 학원에 취업 알선을하여 급여가 많지는 않지만 시간강사로 우선 급하게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와중에도 남편이 집으로 찾아와 폭력을 하는 듯 한 흔적이 보여 조심스럽게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쉼터나 주거연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김00님은 이혼조정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참고 버텨보겠다고 했으며 피아노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며 창업에 대한 준비를 하고자 하였다.

두세 차례의 학원이직을 통해 최종으로 저렴하게 인수가능한 피아노학원에서 일하게 되었다 이전 원장은 다른 사업장에 전념하는 상황이었으며 혼자 모든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9월 자활창업예비자학교를 권유하여 16시간 수강하고 수료증을 받았으며 이후 창업컨설팅을 3회 지원 받았으며 희망키움뱅크 3차 공고에 지원하여 최종합격하였다 이후 실사와 면접 이후 2천 만원 지원예정이다.

신학기를 대비하여 신입생 모집차원으로 4회 무료음악교실을 진행 중이며 현재 30명의 지원자가 접수하여 교육받고 있다 인근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교육바우처에 협력하고 있고 공부방 특기적성교육을 통해 교육생을 차츰 확보해 나가고 있다

김00님은 창업지원금 받고 권리관계 인수인계 마치면 자립은 물론 성공적인 창업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판단된다

1차년도 사업의 모니터링 결과보고

2010. 3월

중앙자활센터
서광국

I. 개요

1. 목적

- 기존의 자활사업 대상자 보다 폭넓은 대상자에 대한 1:1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상자 관리 능력 제고
 - 조건 부과 제외자유예자, 자활특례자 등 기존 자활사업 참여자 보다 대상 범주 확대에 따른 기존과는 다른 대상자 관리능력 향상
 - 육아·돌봄 등으로 일반노동시장 진입에 다양한 장애요인 제거를 위한 사회 서비스의 연계성에 대한 수행기관 제공 능력 제고
- 자활사업의 기본목표인 탈수급·탈빈곤을 위한 수행기관의 경쟁력 제고 및 다양성 확보에 대한 가능성 확보
 - 비영리기관에 한한 보조금 방식에서 탈피하여 전문성이 확보되는 영리 및 비영리기관으로의 자활사업의 확장성 확인
 -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방식 도입으로 인한 사례관리능력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요인에 대한 사전 정보 및 내용 확인
- 사업의 서비스 비용에 대한 명확한 원가분석에 기초한 예산투입과 성과에 연동된 사업 지원 방식 채택으로 합리적인 예산투입과 효과성 확보
 - 예산의 투입과 관련된 기본급 및 성과급에 대한 적절성과 이에 따른 예산투입의 적절성을 확인 및 판단의 기초 자료 생산
 - 성과관리방식에 따른 성과급에 대한 내용 확인과 현장에서 실행되는 부문에서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사후적 현장 확인을 통한 문제점 발굴 및 대응

2. 모니터링 추진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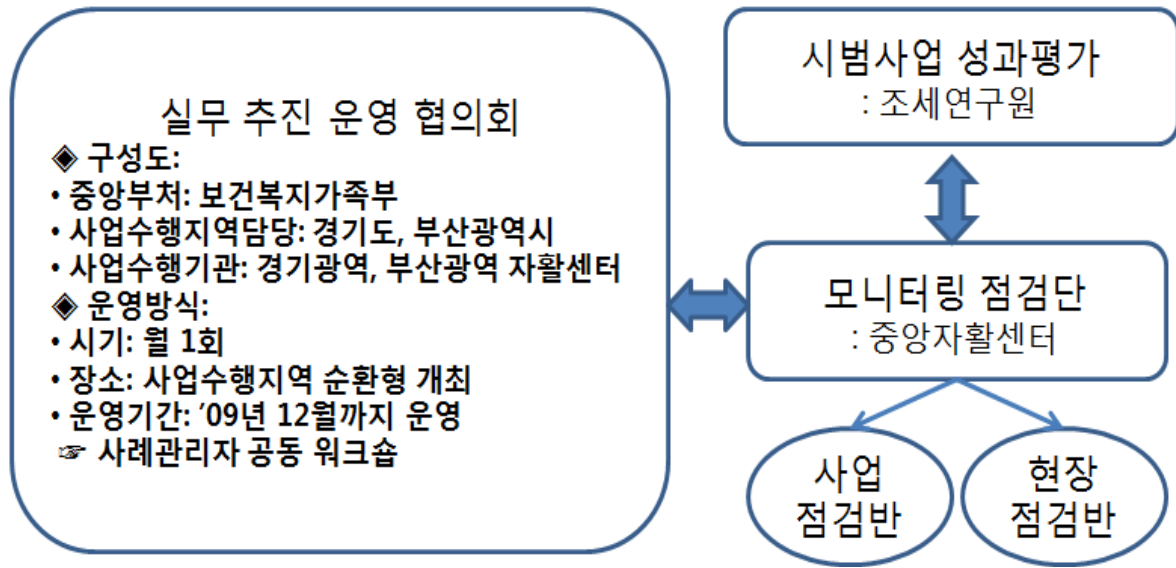
□ '09년 중점 추진 방향

- 1차년도 시범사업임을 감안,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한 전산 및 실적 관리와 함께 수시 사업수행기관과 의견수렴 자문을 통한 사업지도·점검 모니터링
- 시범사업의 성격상 문제점 이나 미비점·보완점에 대한 전문가 의견 지속적인 확인 및 사업의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기초 자료 산출
- 성과관리방식 도입의 취지를 고려 성과급의 기준 및 대상자 서비스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 실적에 대한 허위여부를 확인하여 성과급 지급과 환수 업무 수행 철저

□ 모니터링 체계 및 운영방식

- 사업 수행의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과 책임을 고려한 협의체 형식의 '실무추진운영협의회'와 사업진행 전반을 점검하는 '모니터링 점검단'으로 이원화 구성·운영

<모니터링 체계도>



- 실무추진운영협의회의 주요 참여자 및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리
 - 참여자: 보건복지가족부, 경기도, 부산광역시, 사업수행기관(경기도, 부산시)
 - 논의 내용: 지침해서, 사업수행의 현장애로사항 정리보고 및 해결 모니터링과정에서 발견된 내용 협의, 수행기관과의 협의 및 협력 필요사 등 현장과 정책부서와 밀접한 문제 해결중심 회의
 - 회의 운영방식: 월1회 개최를 원칙으로 진행하고 필요시 수시개최
- 모니터링 점검반은 「현장점검반」 과 「사업점검반」 으로 분리하고, 본 시범사업의 서비스 전문성과 성과관리 조기 구축체계 마련 추진
 - 사업점검반: 분기별 형식으로 보건복지가족부 부산시, 경기도, 경기광역센터, 부산광역센터, 한국지역자활센터 협회, 관련 연구자가 참여하며 대상자 사례관리 및 사업의 성과관리에 대한 지도자문 중심으로 운영
 - 현장점검반: 해당지역의 현장 상시모니터링 요원(지역별 1명, 한시적 운영)과 중앙자활센터가 주도로 사업대상자의 사례관리의 적절성 연계성, 적시성 등 사업효과와 연관된 서비스 내용과 이에 따른 비용(기본급·실비·성과급) 지급 및 환수 점검을 진행

□ 모니터링 세부 확인 내용

- 사업 내용 모니터링 세부 항목 및 내용
 - 대상자 서비스 내용, 대상자 관리 및 유지, 비용지급(기본급, 성과급/실비), 수행기관 운영 및 사후관리 부문으로 구분 확인
 - 주요점검 체크리스트는 <표 3-1>이며, 이에 항목별 적절성, 연계성, 적시성 등의 정성적 판단내용 통해 확인

<표 3-1> 모니터링 주요 체크리스트 및 세부 내용

구분	확인항목	세부내용	비고
대상자 서비스 내용	초기면접 및 개인별 활동계획 수립(ISP)	개인별 활동계획 수립유무, 정도, 수행실적 등	
	참여자 수행기관의 서비스 (사회서비스 및 교육훈련 제공)	제공유형, 제공서비스 수준, 참여자 맞춤형연계성 등	
대상자 관리 및 유지	대상자 분류 및 이첩	지자체와 대상자 이첩 과정, 참여자 기본정보 확인 방법 등	
	사후관리	사후관리 계획, 점검방안 등 확인	
	대상자 유형 분류	대상자 발굴, 대상자 분류 및 서비스 제공 수준	
비용지급 (기본급, 성과급, 실비)	서비스 비용 확인	비용의 적절성, 비용지급 항목 등 확인	
	성과급 지급	신청서류 확인, 현장 확인, 대상자(취업처) 확인, 성과 목표별 신청 서류 허위 여부 확인	
수행기관 운영 사후관리	사례관리자 관리	사례관리자와 관련된 등 제반사항 확인	
	참여자 관리	참여자과 관련된 데이터 및 서비스 관리 확인	
	회사경영	대표자 변경 등 회사의 내·외부 환경 변화 사항 확인	

- 대상자의 사례관리, 성과관련 데이터에 관한 상시 실적 관리 병행을 위한 전산 시스템 (붙임 3) 운영
 - 전산시스템의 사례관리 내용과 실적을 입력토록 조치하고 실적 및 대상자서비스 내용관련 데이터 수시 분석
 - 수탁기관도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관리하고 이를 통한 성과목표치 대비 월별 분기별 실적 확인
- 기본급 사용과 성과급(①기본급②1차 성과급③2차 성과급④3차 성과급 지급)에 모니터링 연계 후 지급
 - 수행기관의 기초서비스와 관련된 사례관리 계획에 맞춘 과정관리정도와 연동하여 기본급 지급, 사후 취업지원서비스 비용의 적절성 판단으로 활용

◇ 수탁기관의 사례관리 계획 확인

- 사례관리의 방법, 대상, 내용, 사례관리자 채용 정도 등 기관(사업자)이 제공하는 서비스 준비 계획 검토(→제출된 사업계획의 진행정도에 초점)
- 기관(사업자)의 사례관리 능력, 타서비스 연계정도, 특화사례관리 영역 등에 대한 서비스 質과 관련된 확인

- 성과급은 성과기준 서류 확인과 별도로 현장모니터링을 연동하여 성과지표에 대한 실적, 진실성(허위여부 등), 적정성 확인을 거친 후(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성과급을 지급 진행

◇ 수탁기관(사업자)의 실적 허위보고 확인 수준

- 수탁기관(사업자)의 실적 보고서 일반기업과 자활공동체 등 취업처와 관련하여 노무·인사담당자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문서를 통해 확인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샘플링을 통해 현장 확인 병행(예산의 범위내)
- 창업의 경우, 현장 확인을 원칙으로 하며, 부당한 허위가능성이 판단되는 창업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자치단체와 협의 조치 진행(비용 환수, 계약파기 등)

◇ 취업유지와 탈수급(소득수준 향상)에 대한 확인방법에 대하여 해당사업수행기관과의 확인방안에 대한 협의 및 사례관리자 협력관계 구축

- 2차 성과급의 경우 해당 서류제출(6개월 참여를 확인할수 있는 통장사본 취업확인서, 근로계약서 등)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대상자의 보호와 사업수행의 원활한 유지를 위하여 수행기관이 별도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
- 3차성과급은 지자체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탈수급, 소득상향)으로 해당자치단체의 확인을 거쳐 지급하되, 해당수행기관이 확인에 필요한 기간소요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협의체를 통한 협조 진행

- 참고 1) 사례관리자 체크리스트: 사례관리자에 대한 기본 정보와 그들이 관리하는 대상자의 범위와 서비스의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하여 보고(붙임1)
- 2) 대상자용은 대상자의 기본 정보와 취업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그들의 욕구와 얼마나 맞춤형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 중심으로 정리하여 보(붙임 2)

II. 모니터링 진행 결과

1. 사업 추진 진행 기간별 모니터링 확인 내용

□ 사업 초반기

- 시범사업의 특성상 해당지역과 수행기관의 당초 예상되지 않은 사안발생(계약, 대상자 선정 등)으로 초기 안착 지연 발생
 - 경기지역: 지자체 초기 대상자 풀(pool)작업 미흡 및 경기광역자활센터 사업구설거점센터·지역수행기관 지정 다소 지연
 - 부산지역: 1순위 사업자(맥시머스, 美) 선정 조정기간 지연 및 탈락으로 2순위 계약자(부산광역자활센터)와의 계약으로 사업 진행 지연
- 수행기관의 실무자의 사업취지와 내용에 대한 이해도와 해당사업의 지도점검기관인 지자체 담당자의 사업이해도 편차 존재
 - 경기지역: 거점센터, 지역자활센터, 협력센터의 종사자들의 사업취지와 내용에 대한

- 편차가 존재, 성과중심&사례관리 중심인지 기관마다 제각각 이해도 수준으로 정리
- 부산지역: 일원화된 체제를 가지고 출범하였으나 기존 유사사업경험이나 사례관리경험 부족 등으로 초기 사례관리자의 역할과 내용을 구성하는데 다소간의 지연 발생

□ 사업 중반기

- 사업이 점차 안정화가 진행되면서 지자체수행기관 담당자 사업이해도가 높아졌지만 지침이나 기준에 대하여 명확화 지속화 필요
 - 경기지역: 대상자 서비스와 관련하여 점차 안정화 되었지만 취업처 기준과 관련한 부분(자활공동체 등), 사업실시 하위기관별 서비스의 편차 등 조정 필요
 - 부산지역: 성과중심에 초점을 둔 초기 사업 방식 집중과 사례관리의 모델화 가능성 도출의 어려움 예상
- 유사사업(희망근로 등)에 대한 참여와 대상자의 관리유지와 관련된 논의 내용 초점
 - 경기지역: 희망근로의 참여 및 사업 서비스 중단(이사, 사망 등)사유 발생에 대한 대응 방식에 대한 검토 진행
 - 부산지역: 차상위 계층의 참여기간내의 소득 보전의 필요성 및 중도탈락자 처리 실비 지급방식의 적절성 등 검토 진행

□ 사업 종반기

- 1차년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수행기관은 사업의 성과에 대한 홍보 및 진행 내용의 안정성 확보 진행
 - 경기지역: 성과대상자에 대한 수행실무자와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성공대회 개최등을 통한 지역내의 관심 환기와 관련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조체계 구축
 - 부산지역: 당초 사업 종료시점을 12월에 맞춘 사업 추진으로 성공대회 등 당초 진행 내용을 조기에 진행한 면이 있으나 사업내용의 안정적인 추진과 성과를 확대할수 있도록 하는 기관내 조직 및 사업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
- 2차년도 사업 진행에 대한 준비 및 1차년도 사업 종료에 따른 대상자 관리 사항 확인
 - 경기지역: 자활사업 대상자 모집시기 문제나, 시군구의 담당자 변경에 따른 사업취지의 이해부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수행기관의 노력 등 확인 1차년도 사업 대상자 관리 방안 여부 등 확인
 - 부산지역: 사업 수행기관의 적극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지역홍보 및 지자체 실무담당자들과의 연계성 등 대상자 모집 관련 내용 확인 1차년도 사업 대상자 관리 방안 여부 등 확인

2. 사업 추진 진행 사례관리자 모니터링 진행 내용

□ 수행기관별 사례관리자 모니터링 내용: 경기도

- 별도 채용인력에 대한 기준 차이로 유사서비스 경험이 없는 사례관리자의 경우 사례관리보다는 구직처와 구인처를 매개하거나 연계에 집중
 - 대상자의 다양한 취·창업욕구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욕구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행기관의 전략적인 관심과 판단 우선 고려
 - 수행기관의 슈퍼비전을 제공하는 역할에 대한 초기 역할을 명확히 하지 않아이에 대한사례관리자들의 해결능력이 매우 낮게 책정되었으나 점차 중앙중심의 사례관리 문제해결능력이 배양됨에 따라 점차 사업문제 해결 대응 및 능력에 대한 편차 축소
- 초기 대상자 발굴에 대한 지자체 협조가 미흡함에 따라 대상자를 발굴하거나 대상자를 설득하는 업무를 병행하는 등 수행기관의 업무적 실질량의 확대가 요구되었으며수행기관의 사례관리자들의 경우 이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초기 대상자를 발굴하고 그들에게 참여확인서를 받는 등의 어려움 발생
 - 수급자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역할이나 이해도가 낮더라도 연계가 가능하거나 시간적 소모가 덜 하였으나 차상위 계층의 경우 이에 대한 소득확인(재산확인)이 진행되고, 행정적 업무로드에 따른 사회복지공무원의 확인 과정이 다소 많은 시간이 필요

□ 수행기관별 사례관리자 모니터링 내용: 부산시

- 단독 사업자 형태로 모든 사례관리자를 채용하여 한 근무처에서 근무하고 사업성과를 비교 하는 경쟁체계를 구축 다만 사업의 사례관리자 채용에 대한 내부 기준이 보다 명확하지 않아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상자별 서비스의 질에 대한 편차 발생 우려
 - 서비스 질에 대한 편차는 성과급 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 과정에서 사례관리자에 대한 선호도가 분명해지고 사례관리자에 대한 호의 편차 발생, 사업수행기관의 향후 지속적인 사업성과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편차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
- 취업초기의 진행을 보면 우선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대상자를 외부 노동시장으로 연계 하기는 하였지만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가 불분명하고 서비스의 요구나 욕구가 없는 상황에서 수행기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보이는 경향 존재
- 초기 대상자 발굴에서부터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관리의지와 지속적인 사업진행에 대한 관심으로 지자체의 대상자 인계 사업진행관리의 표준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음.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수행기관의 적극적인 관리가 가뿔토록 되어있어 방향성과 사업성과를 높이는 긍정적 측면이 강하게 작동됨
 - 그러나 현재의 비영리 기관을 벗어나 영리기관이나 지자체의 관리가 어려운 수행기관의 경우 사업관리의 애로가 발생한 소지가 있음 향후 사업수행기관의 유효경쟁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진행될 개연성이 높아보임

1) 수행기관에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사업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

2) 수행기관의 사업대상자와 자활사업대상자의 중복으로 인한 자활사업 수행기관(부산지역자활센터)의 적극적인 불만 토로

3. 사업 추진 진행 모니터링 피드백 내용

□ 사업 초반기

- 시범사업의 초기임을 감안, 사업의 취지와 대상자 모집에 대한 기관과의 역할 구분 및 독려 진행
 - 경기·부산지역: 대상자 모집, 배정, 초기 상담진행 등에 대한 지자체와 수행기관의 책무에 대한 사업 취지 및 지침 내용 설명에 초점
 - 경기·부산지역: 기존사업과의 차이 및 사례관리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사업 취지 및 지침 내용 설명에 주력
- 수행기관과의 사업에 대한 전반적 이해도 제고와 수행기관과의 사업초기 진행의 혼란 차단을 위한 워크숍 진행

- 수행기관의 사업 초기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조기에 해결하고 이해도에 사업수행기관들의 편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수행기관과의 워크숍 진행의 필요성 공감
 - 수행기관의 본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더불어 모니터링시 전산적으로 수시 확인하는 방안에 대한 수행기관의 종사자들에게 설명·학습하는 기회를 동시 마련
 - 수행기관의 종사자들의 사업이해도의 편차가 두드러지는 사업초기의 상황을 조기에 극복하여 종사자들의 대상자 우선 선별 선택(Creaming)과 대상자 선별 서비스 제공(Parking)의 문제 차단
- 워크숍 진행내용: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의 진행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설명과 향후 사업의 평가를 진행할 조세연구원에서 사업평가 방안에 대한 설명과 수행기관 종사자들의 주요 질의 응답(Q/A) 형식으로 진행
 - 주요 발표 내용: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도입 배경과 향후 이를 통한 자활사업과의 연계성, 자활사업을 보다 성과중심적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사업도입 취지 중심 전달
 - 더불어 조세연구원의 성과평가 진행과 관련하여 향후 예정된 평가에 대한 준비와 향후 성과지표의 검토 등, 내부적 내용보다는 기존의 외국사례에서 검토된 성과평가와 계약서상의 중요한 확인 지표 위주 설명, 이에 대한 부산 경기 동일 계약방식(계약서 동일)으로 진행됨으로 인해 사업의 진행 점검을 담당하는 지자체의 역할도 동시에 필요함을 강조

□ 사업 중반기

- 사업진행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적 시각을 반영하고 사업 진행의 방향성에 대한 고착화 진행
 - 경기·부산지역: 실무추진협의회⁴⁾를 통해 사업 진행상의 애로사항(대상자관리, 성과급

3) 주요 프로그램: 성과관리형 시범사업 지침 설명, 시스템 설명, 수행기관의 그동안 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 공유, 수행기관 종사자 개선 사항 토론, 자활의 사례관리 검토

신청 프로세스, 지자체 담당자와의 소통방법 등에 대한 부분과 향후 수행기관 및 사업 평가 관련 내용 확인 등의 대한 수행기관의 의견 수렴 진행

- 경기·부산지역: 사업점검단⁵⁾을 통해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안 및 현장에서 발생하는 내용에 대한 '10년도 지침 반영 여부 등 개선 논의
- 사업 중간평가와 더불어 사업 내용에 대한 기존 사업 및 유사사업과의 차이점에 대한 홍보 강화
 - 경기·부산지역: 사업내용에 대한 중간평가를 통해 사업진행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기회를 확보하고, 향후 최종보고에서 필요한 사항 등 논의 진행
 - 경기·부산지역: 교육, 사례관리, 취업사전사후 서비스내용 등 진행되는 사업내용별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업점검반을 운영 필요한 내용의 자문 및 상호기관간의 정보 교류 진행

□ 사업 종반기

- 1차년도 사업이 완료에 따른 기관들의 최종평가 내용 및 '10년도 2차 사업 준비 사항에 대한 의견 교류 진행
 - 경기·부산지역: 시범사업 시스템에 대한 보완사항 및 '10년도 지침상 개정 내용 중심 의견 교환 및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의 참여자(수혜자)에 대한 만족도를 포괄하는 점검방식의 평가진행을 통해 향후 사업의 확장성에 대한 미비점 등을 확인
- 2차년도 사업 진행에 대한 지자체, 수행기관의 준비사항 독려 및 확대되는 지역(전북, 인천)사항 전달
 - 경기·부산지역: 지자체의 사업대상자 모집과정, 수행기관의 서비스 준비, 향후 사례관리 모델화를 위한 유형화의 적절성 등 확인, 2차년도 사업 대상 확대 지역에 따른 사업 성과에 대한 자긍심 부여

4. 수행기관의 사업 성과 및 성과급 지급 결과

□ 수행기관의 사업성과

- 전체 수행기관의 취업자수⁶⁾는 1,022명(64)이며 이직이나 경과적 일자리, 재취업등을 포함한 구직·구인 연계 성공은 1328건을 기록함
- 현재사업 종료가 되는 '10년 2월 현재 취업유지자수⁷⁾는 616명이며, 일부가 건강상의 이유나 해당업체의 근무부적응등으로 중도탈락

4) 실무추진 협의회는 보건복지가족부, 부산시, 경기도, 수행기관(경기/부산 광역자활), 조세연구원, 중앙자활센터의 담당자가 참여하는 지침의 해석과 지자체와 수행기관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중심회의 (Solution Council)추진. 주요 논의 결과: 성과급 지급 기준, 시스템관련 상황에 대하여 지자체와 수행기관의 의견차를 줄이고, 지침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정리, 별도로 예산집행과 관련된 기준결정, 기본급 실비 지급 및 대상자의 보완 등 사안을 논의

5) 사업점검단은 사업진행에 따라 전문성을 보장하는 측면의 사업점검 모니터링 회의체로 구성되어 사업 전문성을 보장, 사업점검 모니터링의 경우 본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해당 분야의 전문가(사례관리, 취업지원, 기관운영, 사회서비스 연계 등)를 참석하고 수행기관이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을 수행하는 역할 수행과 더불어 수행기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점검하고 논의하며 제도 개선, 이나 지침개선사항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6) 최저임금이상 취업(창업)한 사람수(재취업 포함)

7) 중도탈락 건수를 제외한 현재취업(창업) 유지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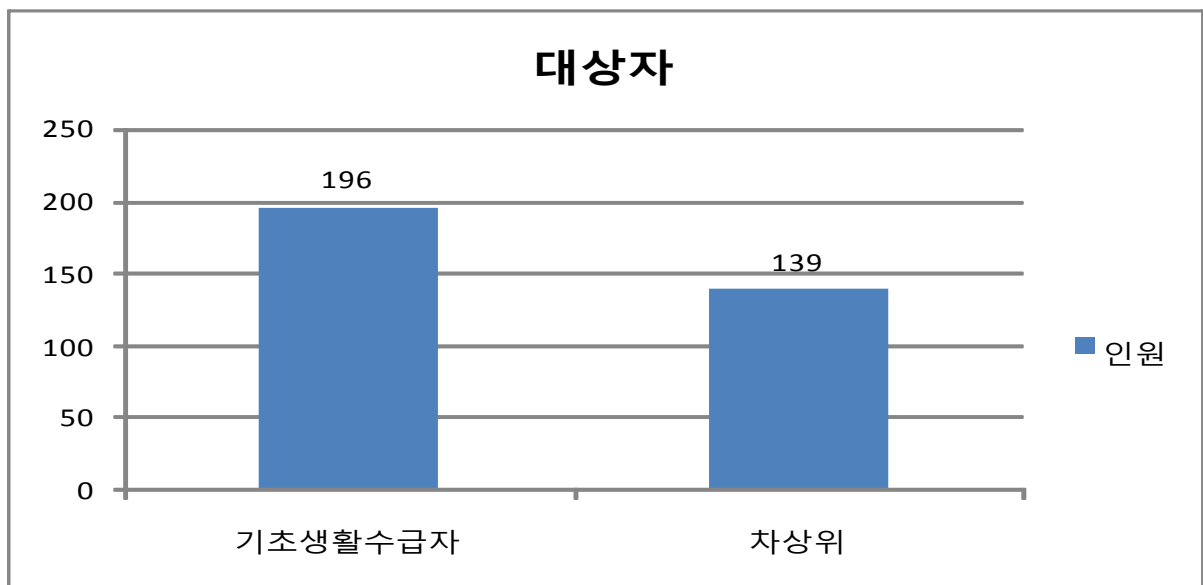
- 서비스 내용과 관련하여 취업알선(8,331), 교육훈련(2,772), 사회서비스연계(3,273), 동행 면접이나 취업준비관련 지원이(3,258) 진행됨

■ 수행기관별 사업성과

- (경기도) 초기 사업진행이 점차 안정화되면서 사업성과 확장
 - 매우 높은 취업자 실적(501명, '10. 2월 말 기준)을 유지, 더불어 취업성과도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는 등 일정한 성과 획득
 - 다만 일부 참여자가 의도하거나 구인처 선택의 폭이 좁은 상황에서 연계된 일자리질과 관련된 초기 논란은 있었으나 불가피한 연계로 보이며 향후 사업진행 평가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 (경기도) 매월 취업자 및 취업 성과급 신청자 현황 분석
 - 취업자 대상자의 경우를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구분하여 매월 성과를 보면 수급자가 다소 높은 성과를 획득(표 3-2)

<표 3-2> 취업자 대상자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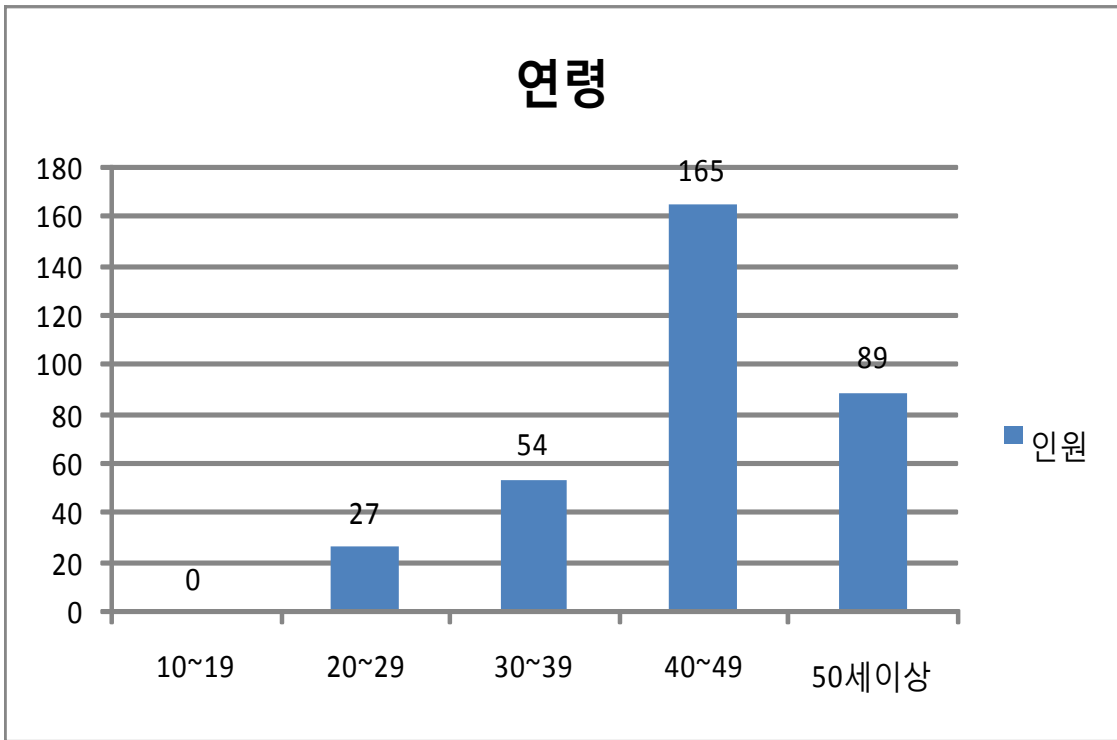
구분	취업인원(취업유지누계)									비고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0 1월	'10 2월	
수급자	47	16 (73)	42 (87)	46 (129)	23 (152)	22 (154)	18 (170)	21명 (186)	23 (196)	
차상위계층	34	12 (60)	25 (82)	26 (97)	14 (111)	11 (130)	11 (136)	7명 (134)	13 (139)	



- 취업성과신청자의 연령 및 성별, 업종, 급여 분포를 보면 자활사업의 대상자와 유사한 특성(여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에 비해 급여 등)의 분포를 보면 상대적으로 높은 결과를 보이면서 사업의 성과가 지속화 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표 3-3> 취업성과급 신청자 연령 및 성별

	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0~19	0	0	0	0	0	0	1	1	1	1	1	0	0	0	0	2	1	4
20~29	0	0	0	5	3	1	0	1	0	0	1	2	0	4	1	2	2	3
30~39	0	2	0	4	2	4	1	3	1	9	1	7	2	9	3	13	2	7
40~49	9	8	7	9	5	13	4	15	11	14	3	11	4	18	3	12	5	14
50세 이상	2	10	2	2	5	1	2	2	5	6	4	2	7	11	5	2	8	5
계	31		29		34		30		48		32		55		43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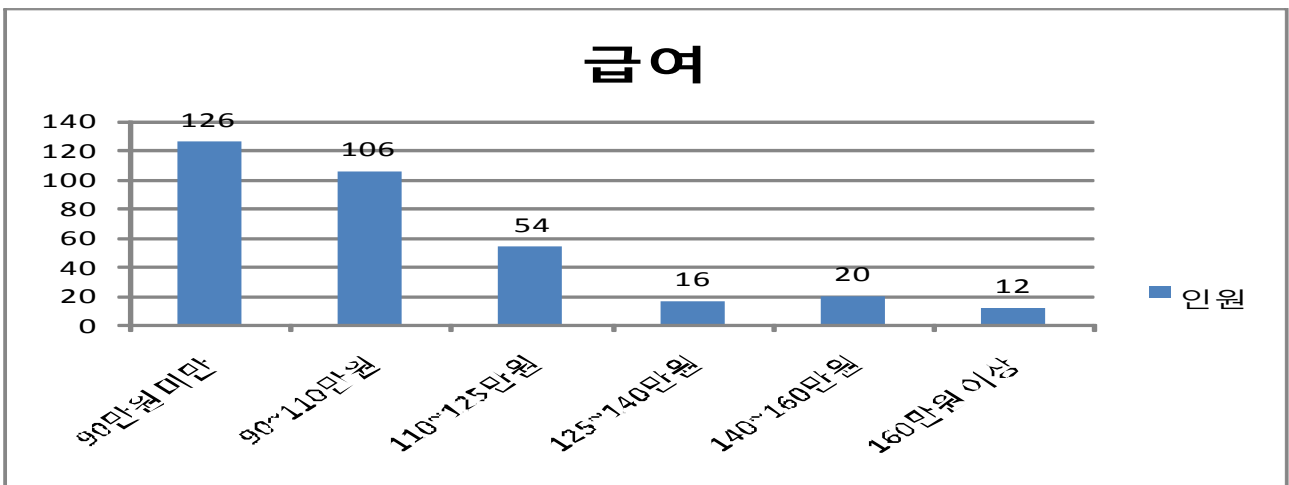
8) 자활사업의 경우 최고액은 870만원으로 현재의 급여 분포에 비해 매우 떨어지는 상황

<표 3-4> 취업성과급 신청자 업종 분포

구 분	계										비고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사무회계	1	6	2	4	3	2	4	6	8		
생산직	-	8	10	2	7	5	8	8	10		
청소업	-	4	3	5	6	2	5	2	3		
사회복지, 의료	6	4	5	5	13	10	10	5	7		
배달	2	1	1	1	4	-	-	-	1		
전기기사	1	1	-	-	-	-	-	-	-		
놀이선생	-	1	-	-	-	-	-	-	-		
취업매니저	-	1	-	-	-	-	-	-	-		
경비	-	2	4	1	6	2	4	2	2		
업무지원	-	1	-	-	-	-	-	-	-		
가공·조리	-	-	-	-	-	2	10	5	7		
서비스	-	-	8	12	9	6	8	8	7		
건설,설비	-	-	1	-	-	3	2	1	4		
기타	-	-	-	-	-	-	4	5	2		
창업	-	-	-	-	-	-	-	1	-		

<표 3-5> 취업성과급 신청자 급여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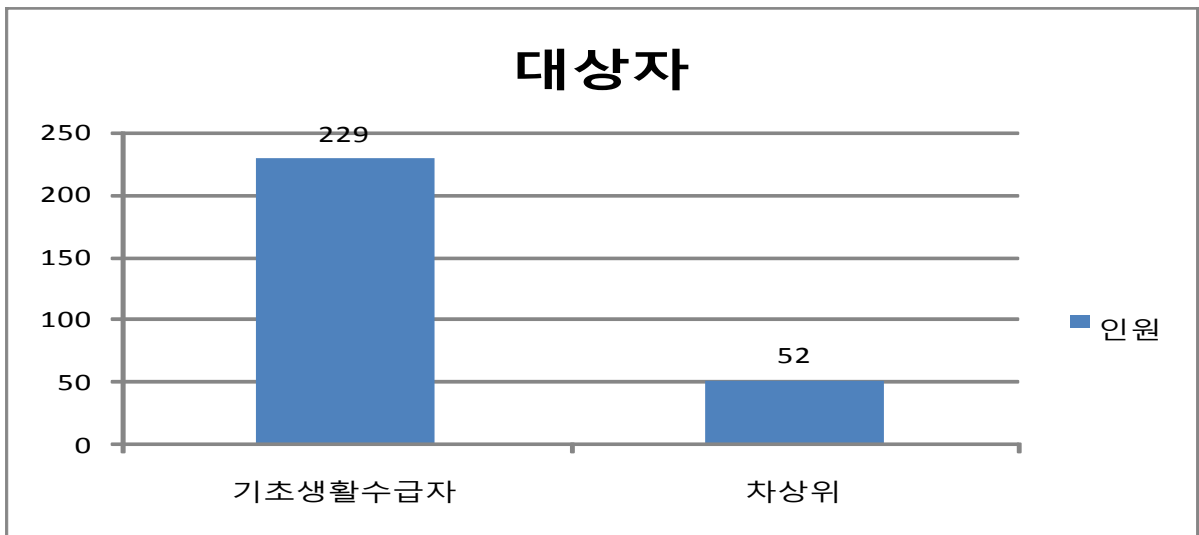
연 봉	계										비고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900만원 이상~1,100만원 미만	20	8	12	9	16	10	25	10	12		
1,100만원 이상~1,300만원 미만	3	13	8	11	14	15	15	20	18		
1,300만원 이상~1,500만원 미만	4	4	8	7	8	3	5	7	8		
1,500만원 이상~1,700만원 미만	4	4	6	2	5	2	4	1	2		
1,700만원 이상	0	0	0	1	2	2	6	4	11		



- (부산시)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로 점차 사업성과 확장에 탄력
 - 매우 높은 취업자 실적(521명, '10. 2월 말 기준)을 유지, 더불어 취업성과도 일정하게 유지하는 등 사업의 높은 성과 획득
 - 하지만 연령대가 젊고 근로능력이 높은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취업에 연계하면서 취업 성과가 발생하기 어려운 대상고연령, 상대적 기능 미비, 취업의지 박약 등에 대한 효과를 확보하는데 다소 지연 성과를 지속화하기 위한 사업적 전략확보가 우선적 고려 필요
- (부산시) 매월 취업자 및 취업 성과급 신청자 현황 분석
 - 부산시의 경우 수급자 대비 차상위 비율이 경기도에 비해 낮은 상황에서 수급자 중심의 취업성과가 두드러지면서 사업의 대상자에 대한 특성분석이 평가시 보다 정밀하게 검토(표-6)

<표 3-6> 취업자 대상자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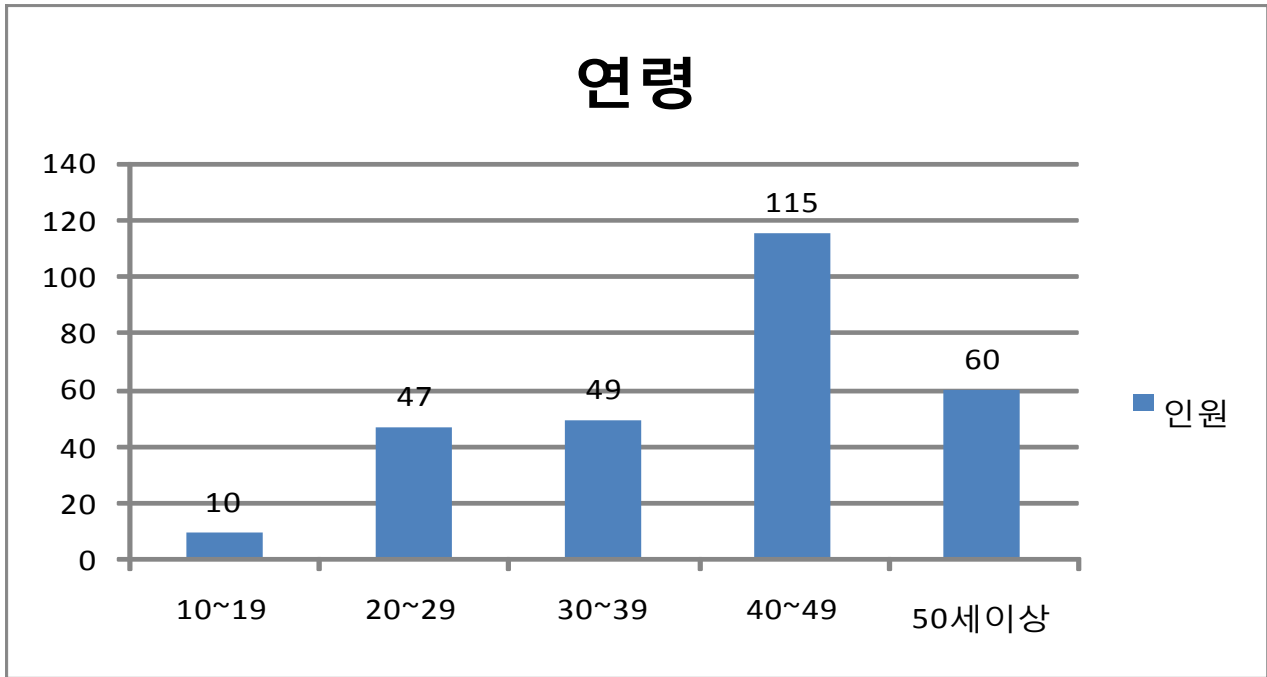
구분	취업인원(취업유지누계)									비고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0 1월	'10 2월	
수급자	64	50 (116)	69 (144)	60 (166)	52 (181)	38 (199)	46 (208)	25 (222)	26 (229)	
차상위계층	14	5 (17)	9 (19)	18 (33)	15 (35)	6 (36)	13 (43)	9 (50)	2 (52)	



- 취업성과신청자의 연령 및 성별, 업종, 급여 분포를 보면 자활사업의 대상자에 비해 연령대는 다소 젊어지고 급여도 상당히 높은 업종에 분포하는 등 사업의 대상자와 취업처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됨
- 특히 일부 업종의 취업처의 경우 사업대상자를 지속적으로 채용해주는 기업이 존재하는 등 수행기관의 사업실적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구인 개척 활동이 적절하게 성과를 보이고 있음.)

<표 3-7> 취업성과급 신청자 연령 및 성별

구분	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0~19	0	3	0	3	1	0	0	1	0	0	0	0	0	0	0	0	1
20~29	2	7	2	5	3	3	1	8	1	1	1	1	5	4	1	2	
30~39	5	5	0	4	2	5	0	9	0	12	1	2	2	3	0	4	
40~49	4	8	4	11	5	12	7	10	7	12	0	3	6	2	3	8	
50세 이상	3	1	5	0	6	4	0	3	6	7	0	0	3	1	4	1	
계	38		34		41		39		46		8		26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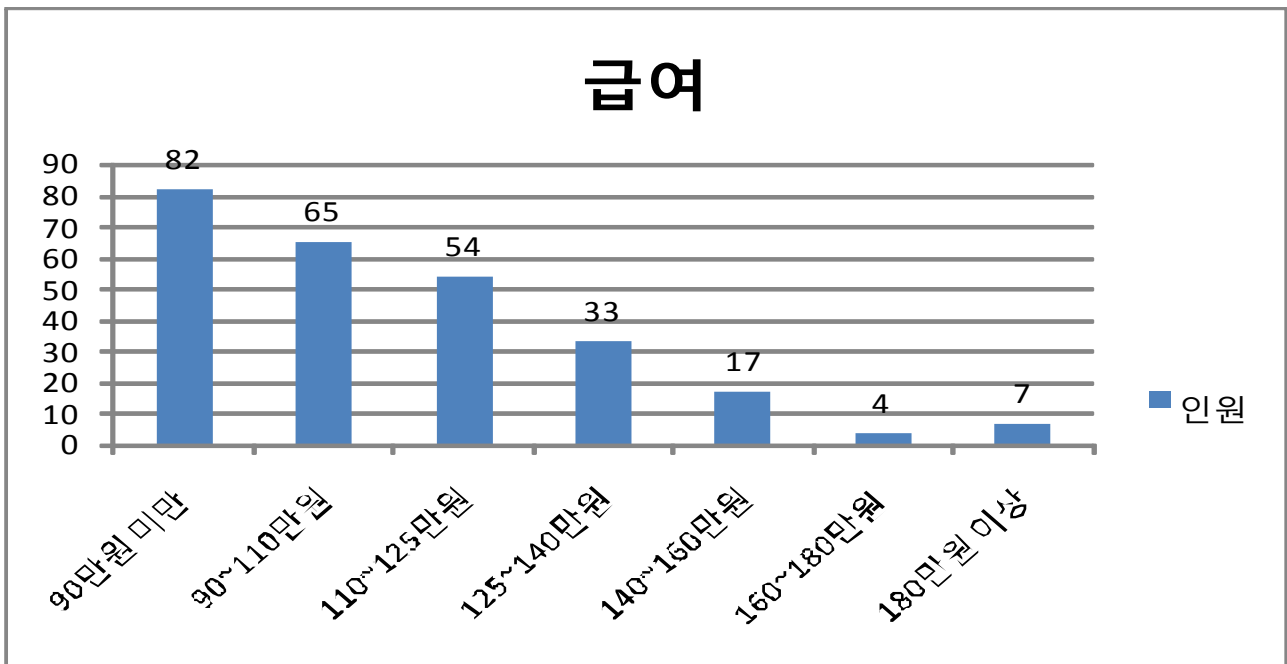
9) 부산지역의 경우 사업성과급 신청을 7월부터 진행하지 않고 8월부터 진행되면서 8월 성과급 신청자 분포 결과 정리, 7월의 성과급 신청은 수행기관내부처 자체적 판단에 따라 성과급 신청을 순연

<표 3-8> 취업성과급 신청자 업종 분포

구 분	계								비고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사무회계	3	-	2	19	-	-	3	4	
생산·제조	9	12	12	7	13	4	2	2	
청소업	2	1	-	-	3	-	1	2	
사회복지,의료	9	3	5	5	6	3	1	2	
배달	-	-	-	-	2	-	-	-	
경비	3	6	3	2	4	-	3	3	
서비스	9	7	15	3	15	-	7	6	
수리·수선업	-	2	-	-	-	-	-	-	
기타	3	3	-	-	3	1	5	3	
창업	0	0	4	3	0	0	4	0	

<표 3-9> 취업성과급 신청자 급여 분포

연 봉	계								비고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900만원 이상~1,100만원 미만	2	15	9	8	17	3	2	6	
1,100만원 이상~1,300만원 미만	14	6	9	14	17	2	14	11	
1,300만원 이상~1,500만원 미만	4	8	11	11	7	1	1	3	
1,500만원 이상~1,700만원 미만	1	4	5	2	5	1	3	0	
1,700만원 이상	3	1	3	1	0	1	2	4	



□ 수행기관 신청 성과급 지급 결과

- (경기도)의 경우 초기 성과급 신청자와 지급자는 다음과 같다. 누락되는 경우는 성과급 대상자 허위라기보다는 취업기준에 대한 불명확성에 대한 정(正)의 결과이며, 사업의 초기임을 감안하며 대상자에 대한 확인서류에 대한 수행기관의 준비 상황이 매우 높은 상황임

<표 3-10> 취업성과급 신청자/지급자 매월 실적 분포

구 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합계	비고
신청자	취업	31	29	34	30	48	32	55	42	302	
	창업	-	-	-	-	-	-	-	1	299	
지급자		30	28	34	30	48	31	55	43	299	미지급 사유: 정부일자리 사업 or 급여 확인 불가 업종

- (부산시)의 경우 초기 성과급 신청자와 지급자는 다음과 같다. 누락되는 경우는 경기와 마찬가지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취업성과기준인 최저임금 확인이 어려운 직종이나, 수행기관에서 사회공헌 차원에서 직접 채용하는 경우 등에 대한 불인정 사례로 판단, 다만 부산시의 경우는 취업과 창업을 병행하면서 창업에 대한 본격적인 성과급을 신청할 경우 이에 대한 확인의 과정에서 누락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개연성이 있는 상황.

<표 3-11> 취업성과급 신청자/지급자 매월 실적 분포

구 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합계	비고
신청자	취업	38	34	37	36	47	9	22	113	
	창업	-	-	4	3	-	-	4		
지급자		34	32	38	37	42	8	25	104	미지급 사유: 정부일자리 사업 or 서류불일치, 급여확인 불가업종

□ 성과급 지급 확인 모니터링시 만족도 결과

- (경기도)취업성공자에 대한 성과급 모니터링시 취업처의 업무만족도와 취업처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취업처에 대한 연계성 정도를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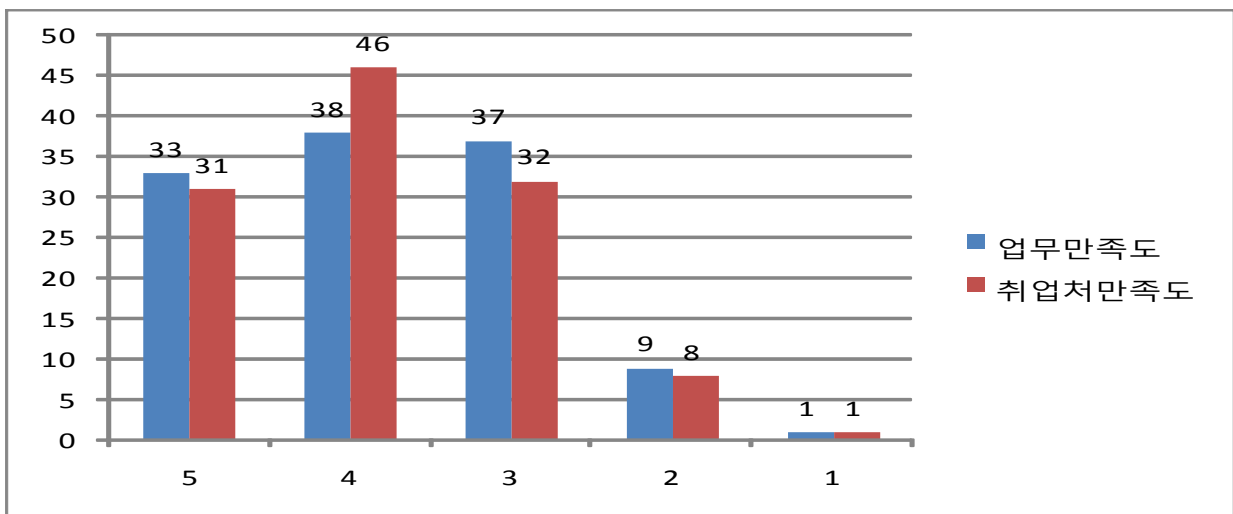
10) 정부일자리 사업에 대한 기준이 보다 명확히 적용되어 지역자활센터, 부산광역시활인력지원본부 취업자 제외 등

<표 3-12> 취업성과급 대상자 만족도 조사 경기도 결과
 업무 만족도(명)

범위	5 (매우 만족)	4	3	2	1 (매우 불만족)	계	비고
7월 성과급대상자	7	2	-	-	-	9	
8월 성과급대상자	4	6	2	-	-	12	
9월 성과급대상자	4	4	5	2	-	15	
10월 성과급대상자	2	2	6	-	-	10	
11월 성과급대상자	2	7	5	2	1	17	
12월 성과급대상자	8	2	4	2	-	16	
1월 성과급대상자	2	13	8	2	-	25	
2월 성과급대상자	4	2	7	1	-	14	
합계	33	38	37	9	1	118	

취업처 만족도(명)

범위	5	4	3	2	1	계	비고
7월 성과급대상자	6	2	1	-	-	9	
8월 성과급대상자	4	5	3	-	-	12	
9월 성과급대상자	4	5	4	2	-	15	
10월 성과급대상자	3	2	5	-	-	10	
11월 성과급대상자	-	7	7	2	1	17	
12월 성과급대상자	6	7	2	1	-	16	
1월 성과급대상자	5	14	5	1	-	25	
2월 성과급대상자	3	4	5	2	-	14	
합계	31	46	32	8	1	118	



○ (부산시)의 경우도 취업성공자에 대한 성과급 모니터링시 취업처의 업무만족도와 취업처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취업처에 대한 연계성의 정도로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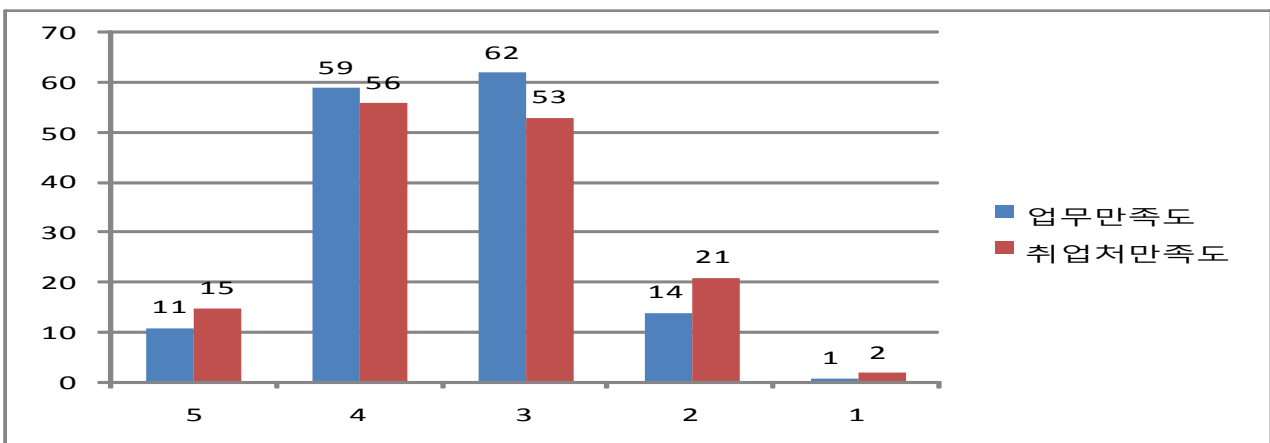
<표 3-13> 취업성과급 대상자 만족도 조사 부산시 결과

업무 만족도(명)

범위	5 (매우 만족)	4	3	2	1 (매우 불만족)	계	비고
8월 성과급대상자	3	8	6	2	-	19	
9월 성과급대상자	2	9	12	2	-	25	
10월 성과급대상자	4	7	14	2	-	27	
11월 성과급대상자	2	10	9	2	1	24	
12월 성과급대상자	-	18	12	3	-	33	
1월 성과급대상자	-	2	2	1	-	5	
2월 성과급대상자	-	5	7	2	-	14	
합계	11	59	62	14	1	147	

취업처 만족도(명)

범위	5	4	3	2	1	계	비고
8월 성과급대상자	5	9	3	2	-	19	
9월 성과급대상자	4	8	10	2	1	25	
10월 성과급대상자	4	11	9	3	-	27	
11월 성과급대상자	2	9	7	5	1	24	
12월 성과급대상자	-	14	14	5	-	33	
1월 성과급대상자	-	1	3	1	-	5	
2월 성과급대상자	-	4	7	3	-	14	
합계	15	56	53	21	2	147	



Ⅲ. 마무리 하며

□ 모니터링 수행 평가

- 성과관리형 시범사업의 모니터링 진행에 대하여 수행기관간의 협조가 원활하게 진행
다만 초기 모니터링기관과 평가기관에 대한 역할구분이 모호수행기관에서 모니터링
을 바라보는 시각이 혼재
- 더불어 사례관리자들의 모니터링기관에 대한 인지가 낮은 상황에서 모니터링 진행으로
적절한 모니터링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거나 재고지 하는 등의 불필요한 시간 소요 발
생,
- 사업수행기관의 입장에서 모니터링 기관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이미지나 내용이 전달
되지 않아, 모니터링기관에게 사업해결의 솔루션을 제공해 줄 것을 초기에 요구하며이
에 대한 논의 시간이 필요, 특히 일부수행기관의 경우 모니터링의 역할을 자체적으로
진행하면서 중복의 이미지로 다가오면서 현장의 이중적 부담으로 인지초기 확인의 어
려움 발생
- 차차 사업성과를 확인하는 모니터링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수행기관들의 사업내용에 대
한 관찰과 전략적 판단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 등의 역할로 집중화되는 경향이 뚜렷해짐

□ 세부사항별 평가

- 성과대상자 확인:
 - 경기광역자활센터: 우선 수행기관의 초기 서류 미비(급여통장 등)에 대한 지적등을
통해 서류를 준비하고 취업확인서에 단순히 해당 기업의 정보만 기재하여 정확
한 성과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서류 보완 지시등을 통해 점차 취업확인의 노하우
가 정착화되도록 진행됨
 - 부산광역자활센터: 부산지역의 경우 모니터링의 지역적 고려면에서는 경기도에 비
해 상당한 정도의 수월성이 담보되고 있으나 여전히 취업처의 다양화로 인한 부
산인근의 취업의 경우 이를 확인하는데 역시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 부
산의 경우 일반노동시장 취업이 많고, 이에 대한 서류 및 참여자의 급여확인 통장
등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수행기관의 서류 보완 등을
요구하면 성과 확인 진행됨
- 실무추진협의회 모니터링: 사업초기 지자체와 복지부, 수행기관의 지침해석에 대한 논
란과 대상자 이관의 문제등에 따른 논란을 차단하는 등의 일정한 역할을 수행점차적
으로 사업이 안정화단계로 진행되면서 향후 사업의 준비과정에 대한 논의틀로 전환 추
진됨.
- 사업점검 모니터링 : 수행기관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어야 하는 자문과 자문을 해주는
참여자의 전문성등 서로가 Win-Win 할수 있는 단계로 설정 사업의 초기임을 감안 목

표를 한정지어 진행 '09년 목표는 대상자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10년에는 시범사업의 모델의 초기화, '11년에는 모델의 확장성 검토 등의 시점별 목표화 추진 진행 예정

- 전산화 확인 모니터링: 전산화를 통한 수행기관 사업진행과 상당 내용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실무회의체에서 결정하도록 유도, 특히 성과대상자의 특이한 경우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관리취업연계, 취업후 사례관리의 내용과 서비스 제공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향후 표준화가 가능한지에 대한 수시확인이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임

□ 향후 중점 고려 사항

- 사업성과에 대한 비용지급의 모니터링의 철저함과 더불어 서비스내용과 대상자 관리에 대한 수행기관의 확인 및 점검 중앙정부와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사업 진행상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사업의 효과를 최대화 할수 있도록 하는 안정적인 프로세스 체계 정착 유도
- 성과중심 대상자 모니터링에서 탈피하여 미성과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자활의 취업지원 사례관리의 모델 구축을 위한 내용과 현장의 적합도 높은 대안 발굴에 초점을 둔 사업 진행 필요, 특히 사업수행기관이 아닌 전문가적 식견과 균형적 사고를 통해 자활의 새로운 취업프로그램으로서의 가능성과 확장성을 확보
- 기존의 사업지역과 더불어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전북과 인천의 사업모델에 대한 초기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본래의 사업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는 결과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행기관의 면밀한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의사교환을 통해 자활 취업지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프레임(예산, 수행구조, 서비스 내용 등)과 자활사업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내용을 제시할 필요

<붙임 1>

사례관리자용

모니터링 체크 리스트

사례관리자 기본 정보

o 성 명: **【남()/여()】**

o 경력 특이 사항:

- 경력 내용:

o 사례관리자 인원 및 특징:

- 사례관리 대상 특성:①연령대②가구특성③대상특성

사례관리 서비스 내용 및 평가

- 개인별 활동계획 적절성
- 성과급 대상자 초기면담 시점
- 성과급 대상자와의 면담지속 기간
- 성과급 대상자 차수별 주요 면담 내용

※ 대상자 자체 발굴 인원: 명

o 취업처 연계 과정:

- 개인발굴의 경우
- 기관발굴의 경우

o 취업 진행과정:

- 사회서비스 연계 특징:

※ 사회서비스 연계 有·無
※ 사회서비스 연계 내용 및 특징

취업유지 성과급 지급 시 관련 확인 사항

○ 취업처 확인자: (인)

○ 대상자의 업무적응도:

- 업무 적응도:

⑤ ④ ③ ② ①

○ 취업처 담당자 만족도

- 취업처 대상자 만족도:

⑤ ④ ③ ② ①

○ 취업 유지기간: 월 일~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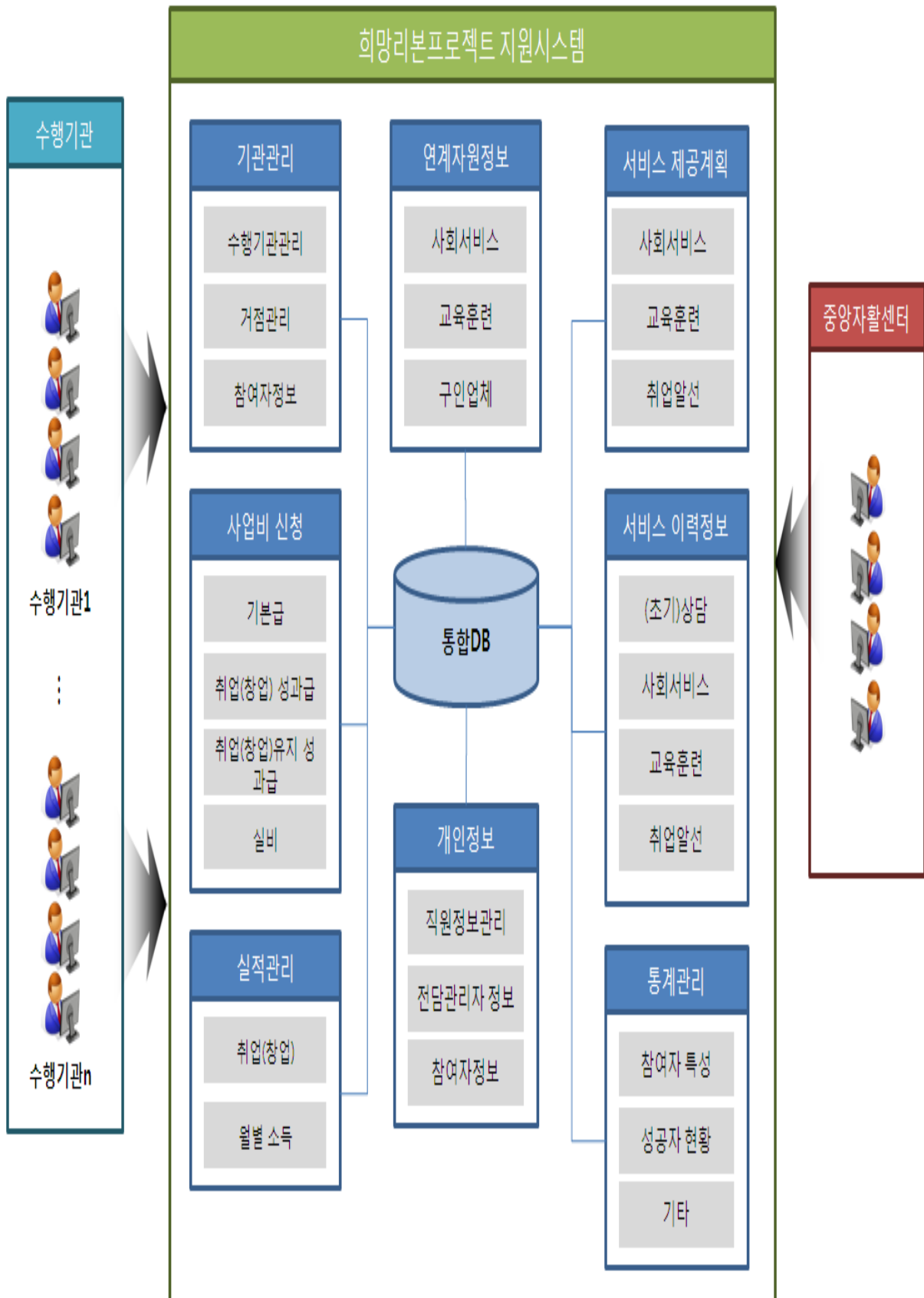
○ 취업 유지기간 동안 특이사항:

--

모니터링 결과

실시자	년 월 일	확인자	년 월 일
	(인)		(인)

<붙임 3> 희망리본 프로젝트 시스템 개요도



- 중양자활센터
 - 사업수행기관관리
 - 사업수행기관별가?
 - 사업수행기관연도?
 - 전담관리자일괄복?
 - 사회서비스관리
 - 교육유형관리
 - 공통코드관리
 - 사업수행기관별사?
 - 사업수행기관별수?
- 사업수행기관
 - 사업수행기관인사?
 - 사업수행기관거점?
 - 대상자등록
 - 전담관리자별대상?
 - 대상자별초기상담?
 - 사업비요청
 - 사회서비스연계기?
 - 사회서비스연계기?
 - 교육훈련기관관리
 - 교육훈련기관현황
- 전담관리자
 - 대상자별초기상담?
 - 성공스케줄관리
 - 활동계획및실적
 - 대상자별실비지급?
 - 대상자소득관리
 - 구인업체관리
 - 업체별대상자현황
- 통계표
 - 성당진행현황
 - 사업현황_성과급
 - 사업현황_성과급
 - 참여자의특성_유형
 - 참여자의특성_연령
 - 참여자의특성_학력
 - 참여자의특성_가구
 - 참여자의특성_경력
 - 기관서비스_초기사
 - 기관서비스_전담관
 - 성공자통계_전체
 - 성공자통계_월별전
 - 성공자통계_취업자

대상자별초기상담지등록

사업년도: 2009 사업수행기관: 경기광역시중양자활센터 거점: 고양 조회

전담관리자: 대상자:

Total 1,000 건

상세 Excel

NO	대상자	성별	생년월일	우편번호	주소1	주소2	연락처	휴대폰번호
1		여자	1964-10-15	463-866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010
2		여자	1970-10-17	463-808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010
3		남자	1963-10-15	420-818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010
4		여자	1977-12-25	440-816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255-7758	010
5		남자	1971-05-25	429-833	경기 시흥시 율곡동			010
6		여자	1957-11-03	422-814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송내1동		032-323-8219	010
7		여자	1965-03-03	420-818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010
8		여자	1955-05-06	413-753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주공1단지 101-106		953-3373	011
9		남자	1951-01-07	480-830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010
10		여자	1966-05-07	422-040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010
11		여자	1971-08-22	480-923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금오주공2단지 201-204			010
12		여자	1956-08-12	413-865	경기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952-6647	011
13		여자	1962-01-03	472-865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010
14		여자	1968-04-22	480-847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3동			011
15		여자	1969-02-10	480-812	경기 의정부시 가흥2동		031-878-9424	010
16		남자	1967-08-09	413-735	경기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벽산아파트 101-307			010
17		남자	1964-10-10	422-818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송내2동			010
18		여자	1990-04-15	480-863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			010
19		여자	1965-07-31	413-010	경기 파주시 금촌동		946-9743	010
20		여자	1976-10-09	423-804	경기 광명시 광명7동			010
21		여자	1980-06-01	459-813	경기 평택시 서정동			011
22		여자	1976-01-06	437-080	경기 의왕시 내손동			010
23		여자	1973-11-01	435-829	경기 군포시 금정동		070-8171-1890	010
24		여자	1954-10-08	422-040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010
25		여자	1976-11-21	469-832	경기 여주군 금서면 이포리		031)882-9581	011
26		여자	1969-01-08	426-821	경기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032-502-2116	010
27		여자	1973-03-18	413-771	경기 파주시 금촌2동 새마을아파트 101-120			010
28		남자	1965-08-21	487-726	경기 포천시 소흘읍 주공아파트		543-1967	010
29		여자	1990-03-05	477-804	경기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031-582-8238	010
30		남자	1953-01-04	413-010	경기 파주시 금촌동			010
31		남자	1965-01-11	425-829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2동		031-480-5197	010
32		여자	1976-01-13	420-856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2동			010
33		여자	1966-07-20	421-807	경기 부천시 오정구 내동			010
34		여자	1969-04-06	463-876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010

1차년도 성과관리형 자활사업 분석

2010. 3월

한국조세연구원

전 병 힐

I. 서론

-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운영되어 온 자활사업은 사업 참여자들로 하여금 취·창업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자활사업이 취약계층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사업참여자들의 소득유지에 기여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으나, 자활사업의 궁극적 목표라 할 수 있는 수급자들의 경제적 자립이란 기준에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옴
 - 낮은 취·창업률 및 탈수급률이 이러한 지적의 근거임

- 취·창업률 및 탈수급률의 개선을 통해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써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을 200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하여 운영함
 - 부산과 경기지역에서 각각 1000명을 대상으로 도입함
 - 기존의 자활사업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경제적 성과와는 독립적으로 정액에 유사한 방식으로 사업비를 제공하였으나, 시범사업에서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취·창업 및 탈수급에 대한 유인을 부여하여 경제적 성과지표를 향상시키려 함
 - 구체적으로 1차년도 사업에서는 대상자 1인당 150만원의 기본급을 제공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직장에 취·창업하는 경우 85만원, 6개월 이상 취·창업이 지속되는 경우 85만원, 탈수급하는 경우 110만원의 성과급을 추가로 제공하는 계약구조임
 - 그러므로, 참여자 1인에 대하여 최대 430만원까지 사업비가 증가할 수도 있음

- 이와 같이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은 취·창업에 대한 성과지표를 계약구조에 포함함으로써 서비스제공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성과지표를 개선하려는 노력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음
 - 서비스 제공자가 취업연계 또는 교육훈련서비스 제공 등 이전과 비교하여 질적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요 성과지표를 개선하려는 시도임
 - 기존의 자활사업과 원칙적으로 동질적인 집단을 사업대상으로 하며, 사업 참여자의 유인구조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에 대한 유인제공에 의한 서비스 질적 향상 및 다양화 등이 성과지표를 개선하는 유일한 통로일 수밖에 없음

□ 성과지표에 연계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계약구조는 서비스 제공자의 전략적 행동 및 사업의 효율성 등의 문제점을 가질 수 있음

- 우선, 성과지표를 개선하고자 하는 서비스 제공자의 노력이 취·창업이 용이한 사업대상의 선정 및 이들에게로 서비스를 집중하는 식의 전략적 행동이 존재할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음
- 또한, 새로운 계약구조 아래서의 1인당 사업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성과지표가 개선되었다고 해도 그 폭이 충분하지 않으면 새로운 사업의 도일을 통해 효율성을 제공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이런 맥락에서 성과관리형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효과평가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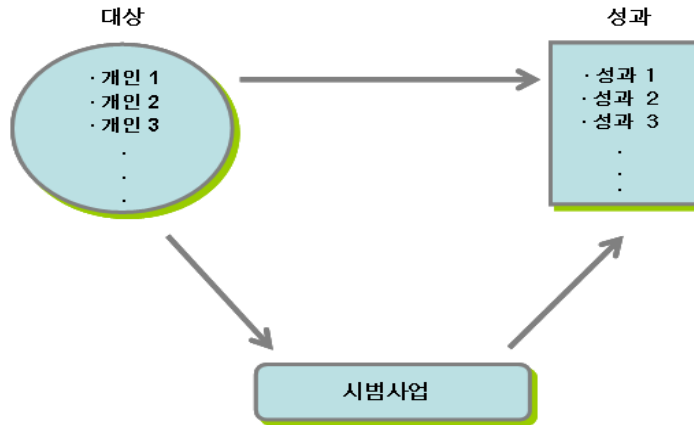
□ 본고는 시범사업의 효과평가에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함

- 시범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정보가 구축되어 있는 시범사업 DB를 이용해 주요 분석을 할 것임
- 시범사업 DB는 시범사업의 모든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기본적인 사회인구학적 정보, 직업 경력, 기초생활수급여부, 사업참여 이후 제공된 서비스의 유형 및 횟수, 취업일, 퇴직일, 급여수준, 직종 등의 취·창업에 대한 여러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 시범사업 참여자를 일종의 실험집단으로 간주할 때 이들에 대한 정보는 비교적 잘 완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 본고의 분석을 통해 성과관리형 시범사업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음

- 시범사업 참여자에 대한 정보는 DB를 통해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으나, 이들과 비교할 수 있는 유사한 집단, 즉 기존 자활사업 참여자 혹은 유사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임
- 따라서, 주어진 자료만으로 얻어진 시범사업의 취·창업률 및 탈수급률을 시범사업의 순수한 효과라고 볼 수 없음
 - 시범사업의 효과와 여러 가지 혼동요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임
- 통제집단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여 의미있는 비교가 불가능하므로, 차선택으로 기존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취·창업률 및 탈수급률을 시범사업의 결과와 비교해보았음
- 이렇게 얻어진 결과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시범사업의 효과를 순수하게 나타낸다고 보기는 곤란하므로, 시범사업의 효과에 대한 하나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그림 4-1] 성과결정요인과 분석대상



□ 시범사업의 성과는 근본적으로 사업 참여자의 특성과 사업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효과에 의존하게 됨

- 따라서, 시범사업의 성과를 관측함에 있어서 사업자의 특성 및 시범사업의 서비스와의 연관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함
- 이하에서는 [그림 4-1]에 나타난 3가지 요소, 즉 시범사업 참여자, 시범사업의 서비스, 주요 경제적 성과 및 이들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 볼 것임
- 즉, 성과관리형 자활 시범사업의 자료를 기초로 참여자 집단의 주요 특성, 제공된 서비스 유형 및 여러 경제적 성과변수와의 관계에 대해 조사

□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될 것임

- 2장에서는 성과관리형 자활사업 참여자 집단의 경제적·인구학적 변수에 대한 정보를 조사
 - 기본적으로 다음의 질문에 대답하고자 함
 - 어떤 유형의 개인들이 사업에 참여하였는지와 지역간 참여자 간에 차별적 특징이 존재하는지의 여부
 -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력, 정부보조수혜 여부 및 금액, 장애 및 질병, 혼인 상태, 가구특성 등
 - 지역 간 사업 참여자의 차이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 3장에서는 시범사업을 통해 제공된 서비스의 유형과 2장에서 조사된 참여자의 특성과의 연관성을 보려함
- 4장은 취업률, 취업소요기간 및 취업지속기간, 탈수급률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이 참여자 특성 및 제공된 서비스와 어떤 관련을 갖는지 파악하려함
- 5장은 주요 내용 요약 및 결론임

II. 시범사업의 참여자

1. 시범사업 참여자 특성

□ 사업 참여자 2000명에 대한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 기초 인구학적 변수와 취업 관련 요인을 지역별 요약

- 전체 참여자 중 여성 비율은 약 68.3%이며, 평균 연령은 약 41.7세 수준임
- 교육수준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지 않은 참여자로 한정할 때¹⁾, 약 42.5%가 고졸 미만, 48.7%가 고졸 이상, 대졸 미만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 약 8.8%가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음
- 건강요인을 고려해 보면, 5.8%가 장애요인을, 15.6%가 질병을 보유하고 있음

<표 4-1> 시범사업 참여자 기초 통계량 (개인)

	전체	부산	경기
여성 (%)	68.3	66.4	70.3
연령 (세)	41.7 (10.2)	42.0 (10.7)	41.5 (9.64)
교육수준 (%)			
중학교 졸업 이하	30.3	31.1	29.5
고등학교 재학·중퇴	12.2	3.5	20.9
고등학교 졸업	44.6	50.1	39.1
(전문) 대학교 재학·중퇴	4.1	3.3	4.9
(전문) 대학교 졸업 이상	8.8	12.0	5.6
장애 (%)	5.6	5.3	5.9
질병 (%)	15.7	20.8	10.6
가구원수 (명)	2.67 (1.28)	2.78 (1.26)	2.57 (1.29)
자격증 (%)	21.4	18.1	24.7
표본수	2000	1000	1000

* () 안은 표준편차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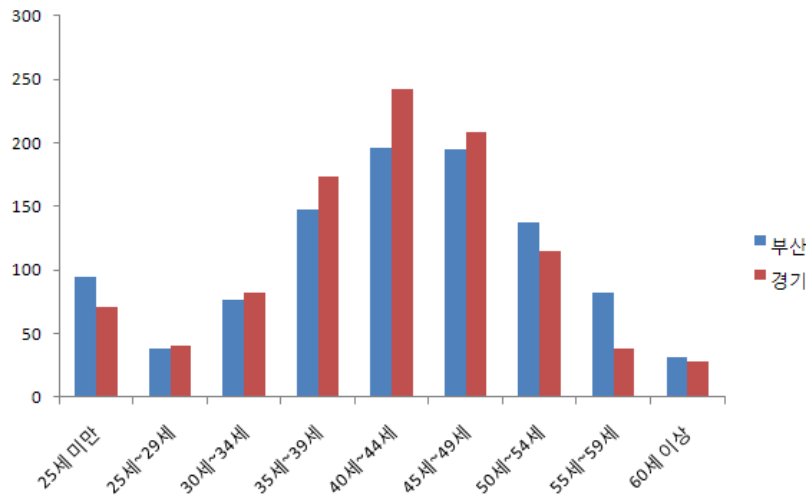
□ 지역별 참여자의 이질성 비교

- 참여자의 성별 비중 및 평균연령을 비교할 때, 부산과 경기 지역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함

1) 본 연구의 교육수준 분류에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관측치는 3개

- 부산지역 참여자의 여성비율은 66.4%, 경기 지역의 여성비율은 70.3%로, 경기 지역의 여성참여율 비율이 다소 높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님²⁾
- 평균 연령을 비교하면, 부산 참여자의 평균은 31.1세, 경기 참여자의 평균은 29.5세로 나타나, 두 지역간 차이는 약 1.6세이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님³⁾
- 다만, 지역간 연령 분포를 비교해 보면, 경기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참여자들이 35세~49세에 집중되어 있음 (경기:62.5%, 부산:53.9%)
- 근로능력표의 연령별 분류 기준연령에 따라 분류할 때 ①35세 이하, ②35세 이상55세 이하, ③ 56세 이상으로 세분하여 본다면, 경기지역이 2그룹에 속한 참여자가 많으며, 부산지역은 1그룹과 3그룹에 속한 참여자가 많음을 확인

[그림 4-2] 시범사업 참여자 연령 분포



- 교육수준에 대한 평가는 부산 지역이 경기지역보다 보다 고학력자를 많이 포함하고 있음
 - 예컨대 고졸미만의 학력을 가진 개인의 비율을 기준으로 할 때, 부산 34.6% v.s. 경기 51.4%
- 참여자 취업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장애유무 측면에서는 부산과 경기 지역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지 않음⁴⁾

2) 두 집단의 평균이 같다는 가설에 대한 양측검정의 p-값은 0.6임

3) 두 집단의 평균이 같다는 가설에 대한 양측검정의 p-값은 0.27임

4) p-value>0.1

<표 4-2> 질병 보유 여부 프로빗 분석

변수	추정치	표준오차
부산지역	0.0940***	0.016
연령 50세 이상	0.0896***	0.022
여성	-0.0238	0.018

주1. 모든 설명변수는 주어진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임

주2. 추정치는 다른 설명변수가 평균값을 가질 때, 해당 더미변수의 값이 0에서 1로 변할 때 한계효과를 나타냄.

주3. 표준오차는 이분산성에 강건한 추정방식 사용

***: p-value<1%

○ 질병 유무의 경우 부산 20.8%, 경기 10.6%로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일반적으로 건강상태는 연령, 성별 등의 요인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 인구학적 요인을 통제하고 나면 두 집단간 질병보유율의 차이는 사라질 수도 가능성도 존재함

- 부산 지역 참여자의 높은 질병 보유율의 원인이 50세 이상 연령층 및 남성의 높은 비중에 의한 것인지 확인해보기 위해 질병 보유 여부에 대한 프로빗(probit) 분석을 시행함

- 연령 요인 및 성별 요인을 조정한 상태에서도 부산지역 참여자의 질병보유율은 경기 지역에 비해 약 9.4% 정도 높아진다는 결과를 얻으므로, 두 집단간의 차이는 다소간 감소하나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임

· <표 4-2>의 추정 결과는 각 요인이 질병 보유더미에 미치는 한계효과를 보여주고있음

· 구체적으로 다른 설명변수의 값이 주어진 표본의 평균치를 갖는다고 가정할 때 부산지역 참여가 경기지역 참여자에 비해 9.4% 높다는 의미임, 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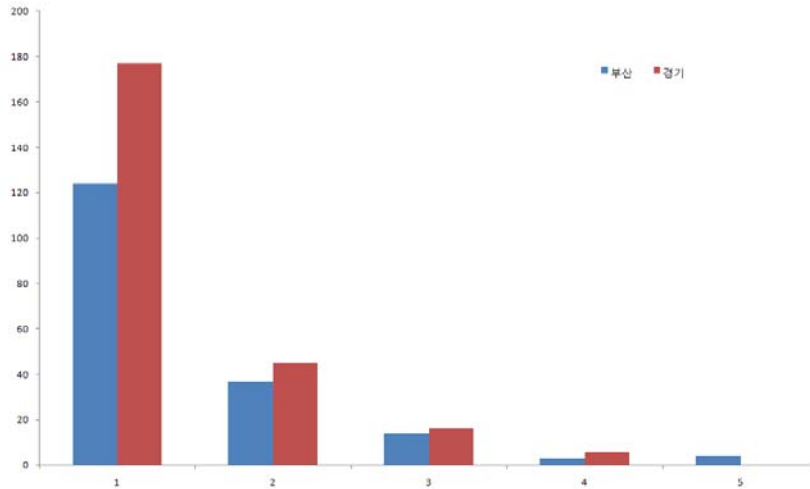
$$\Pr(\text{질병보유}|_{\text{부산}}, x_2 = \bar{x}_2, x_3 = \bar{x}_3) - \Pr(\text{질병보유}|_{\text{경기}}, x_2 = \bar{x}_2, x_3 = \bar{x}_3) = 9.6\%$$

- 장애여부, 교육수준⁵⁾ 등 다른 설명변수를 추가적으로 통제하여 분석하여도 추정치의 차이만 있을뿐 두 지역간 이질성에 대한 결론이 바뀌지는 않음

- 따라서, 사회경제학적 요인을 고려한 상태에서도 경기 지역 참여자가 부산지역 참여자에 비해 보다 건강한 상태라고 할 수 있음

5) 경제상태에 대한 대리변수로 포함함

[그림 4-3] 자격증 보유 분포



주: 자격증을 1개 이상 보유한 참여자들의 보유한 자격증 수의 분포

- 자격증 보유 유무를 비교하면, 경기 지역의 참여자 중 약 24.7%가 1개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데 비해, 부산 지역의 참여자 중 1개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약 18.1%임
 - 두 지역간 차이는 6.6%로, 이는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한 결과임
 - 질병보유와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요인의 효과를 통제한 이후에도, 경기 지역 참여자가 부산지역에 비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비중은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하게 큰 차이를 보임
 - [그림 4-3]에서와 같이 보유한 자격증 수의 분포를 살펴볼 때도 경기지역 참여자가 비슷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 자격증 보유가 취업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면, 경기 지역 참여자가 사전적으로 취업 가능성이 보다 높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보고된 자격증의 다양성·이질성으로 인하여 다른 결과를 얻을 가능성도 존재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경기지역의 여성 비율이 높으며, 연령은 낮고, 고학력자의 비중은 낮고, 장애 보유율은 높으며, 질병 보유 비율은 낮고, 자격증 보유자 및 평균 보유 개수는 높음
 - 이 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교육, 질병 및 자격증 보유 관련 항목임

2. 근로능력평가

- 앞서 살펴보았던 자활시범사업 참여자의 특성 및 부산·경기 지역으로 구분한 참여자의 특성에 대한 단일지표 (single index)를 생성하여 다시 요약·비교해 봄

- 두 지역간 참여자간에 이질적 특성이 존재함은 이미 확인하였으나, 이로부터 자활사업 참여 시점의 사전적 취업 가능성이란 기준에서 지역별 참여자에 대한 절대적, 상대적 비교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는 곤란함
 - 취업 등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준다고 믿어지는 다양한 차원의 요인이 존재함
 -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선정에 대한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모든 요인에 대해 일관적인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게 일반적임
 - 예컨대, 학력 수준에서 부산지역 참여자가 우위를 보이나, 질병보유란 관점에서 오히려 경기지역 참여자가 우위를 보임
 - 일반적으로 사전적인 능력 평가에 보다 많은 요인을 포함하는 것이 정보의 충분성을 높이는 장점을 가지나 동시에 일관된 순위 (ordering)에 대한 판별을 어렵게 하는 문제점을 가짐
- 단일지표를 사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함
 - 교육수준·건강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정보가 크게 손실되지 않는 정도에서 하나의 지표로 요약함으로써 분석의 단순화를 꾀할 수 있음
 - 물론 단일지표 구축에 포함될 요인선정과 요인별 가중치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음
 - 이중 요인선정의 문제는 단일지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단일지표 구축에 따른 순수한 문제는 후자임

□ 단일지표에 대한 제안은 가치판단을 요구하는 작업인 동시에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새로운 단일지표를 제안하는 대신 자활사업대상자 분류에 사용되는 근로능력점수를 이용할 것임

- 근로능력점수는 연령, 건강상태, 직업이력 및 학력, 재량 점수 등 4개의 영역별 평가점수를 합산하는 방식
 - 연령, 건강, 직업·학력의 3개 영역에서 각각 3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추가적으로 기타 요인을 고려하여 평가자의 재량에 따라 추가적으로 20점까지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
- 조사된 자료가 허용하는 한도에서 근로능력점수표 판단 기준과 유사한 방식으로 각 참여자의 능력점수 평가
 - 우선 재량점수 영역은 본고에서 객관적으로 부여하기 곤란함
 - 재량점수 영역을 제외하면 전체 참여자를 부문별로 3개 그룹으로 분류하므로, 전체 가입자를 27개 집단으로 구분한 후 개별 집단에 최저 15점에서 최고 80점까지의 점수를 부여
 - 3개 영역의 27개 집단을 하나의 기준으로 서수적, 기수적인 의미의 순위를 설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이용가능한 수준에서 연령, 건강상태, 직업이력 및 학력의 영역에서 20~80점 범위에서 각 참여자의 능력을 평가

- <표 4-3>에 제시된 방식으로 수정된 근로능력점수를 평가할 것임
- 한가지 주의할 사항은 고려되고 있는 3개의 영역 중 건강, 직업이력 및 학력 영역에서 본고에서 사용한 점수가 실제 근로능력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임
 - 예컨대 비등록장애인은 건강 영역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본고에서는 주어진 정보의 제약으로 인해 비등록장애인 여부가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음
 - 직업 경력 및 학력에서도 유사한 가능성이 존재함
 - 따라서, 여기서 얻어진 근로능력점수는 실제 근로능력점수를 과대추정할 가능성 존재

<표 4-3> 근로능력점수 평가기준

기준	세부기준	점수	비 고
① 근로능력평가 기준표			
1. 연령 (30)	18세-35세	30	실질적으로 취업가능한 연령
	36세-55세	20	취업 및 자활능력유지가 가능한 연령
	56세-64세	10	취업능력이 약화된 연령
2. 건강 상태(25)	양호	25	건강상태가 양호한 자
	보통	15	경질환이 있지만, 근로활동에 지장이 없는자 등
	보통이하	5	5-6급 장애인, 비등록장애인 등
3. 직업 이력 및 학력(25)	상	25	- 최근 3년내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취업 또는 자영업 경험이 있는 자(공공근로·취로사업제외) -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상)을 소지하고 있는 자 ※ 종사하는 직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격증도 포함(단, 운전면허증은 직종과 직접 관련된 경우) - 대학(2년제) 졸업 이상 학력자
	중	15	- 최근 4~5년내 1개월이상 지속적으로 노동시장 취업 또는 자영업 운영경험이 있는 자(공공근로·취로사업제외) - 중·고졸 이상 학력자
	하	5	- 최근 3년 이내에 공공근로·취로사업 참여자 - 기타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재량 점수(20)	- 개인의 직업이력, 근로욕구, 드러나지 않은 장애여부, 가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점을 부여.		
② 본 연구			
1. 연령 (30)	18세-35세	30	근로능력평가와 동일
	36세-55세	20	
	56세-64세	10	
2. 건강 상태(25)	양호	25	장애와 질병이 없는 자
	보통	15	1-4등급 장애인 혹은 질병이 있는 자
	보통이하	5	5-6급 장애인
3. 직업 이력 및 학력(25)	상	25	-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 대학(2년제) 졸업 이상 학력자
	중	15	- 중·고졸 이상 학력자
	하	5	- 기타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표 4-3>에 따라 근로능력점수를 조사한 결과 시범사업 참여자의 평균 점수는 59.2점이며, 각 영역별 평균은 연령 부문 21.5점, 건강 부문 22.7점, 학력 부문 14.9점으로 나타남

-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점수 적용 방식이 실제 점수 산정방식에 비해 완화된 기준을 사용했으므로 실제 점수보다 높은 수치를 가지게 됨

<표 4-4> 지역별 근로능력점수

	전체	부산	경기	p-value
연령	21.51 (5.36)	21.38 (5.60)	21.64 (5.11)	0.278
건강상태	22.72 (4.89)	22.24 (5.22)	23.19 (4.50)	<0.001
직업이력 및 학력	14.92 (5.43)	15.19 (5.47)	14.66 (5.38)	0.029
총점	59.15 (10.25)	58.81 (11.16)	59.49 (9.25)	0.138

* ()안의 수는 표준편차를 나타냄

** p-value는 이분산 가정하에 두 지역간 평균이 동일하다는 가설에 대해 계산됨

□ 지역별 참가자의 근로능력 점수를 비교하면, 부산은 58.8점, 경기는 59.5점으로 나타나, 경기 지역 참여자가 다소간 높은 근로능력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됨

- 근로능력점수 총점의 지역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므로, 적어도 총점의 평균과 관련하여 두 지역 참여자간에 이질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님
- 두 지역간 근로능력점수의 평균 차이는 건강 영역과 직업이력 및 학력 영역에서 차이가 서로 상쇄되고 남은 결과임
 - 아래에 설명하겠지만, 건강과 학력 영역에서 두 지역은 유의한 차이를 보임
 - 부산지역 참여자가 높은 질병 보유율을 보이는 동시에 높은 학력 수준을 갖는 참여자의 비중이 높으나, 이 두 가지 요인이 근로능력 평가에 다른 방향으로 작동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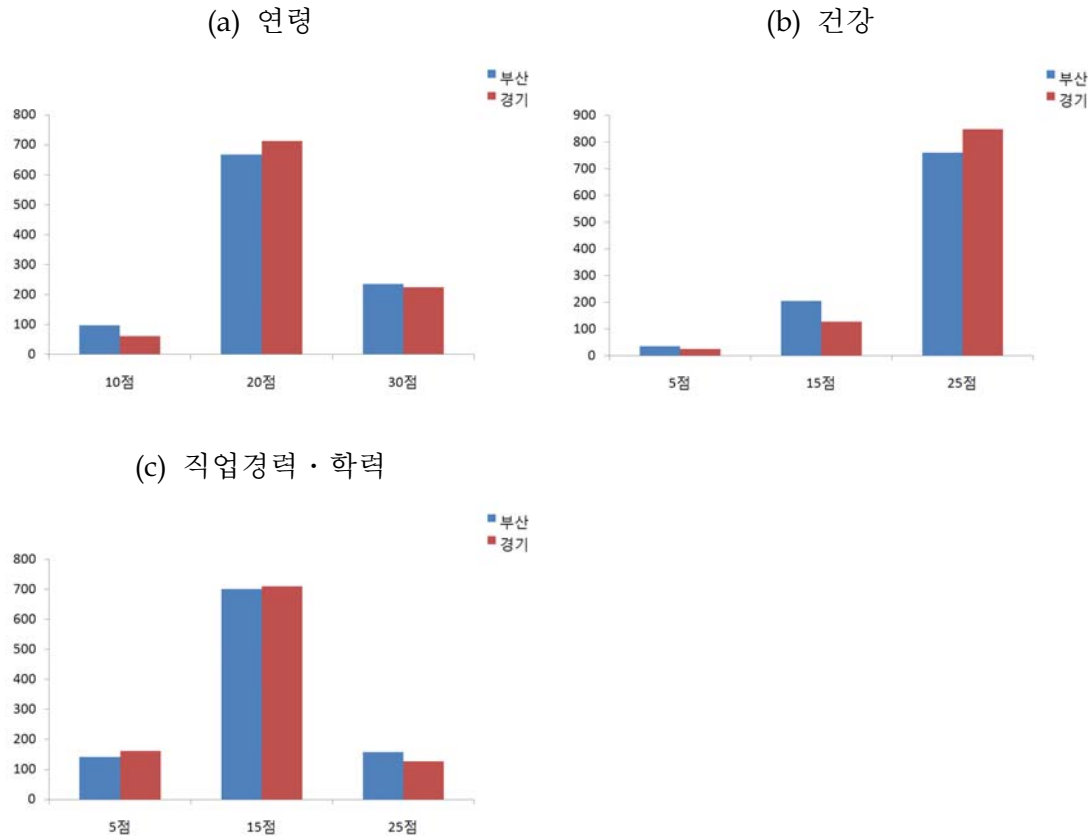
□ 그러나, 근로능력점수의 분포 및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지역간 이질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 근로능력점수의 두 지역간 분포가 동일하다는 가설은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유의수준 하에서 기각됨⁶⁾
- 건강 영역의 평균점수는 경기 지역이 유의한 수준으로 높은 평균 점수를 보이며, 직업 경력 및 학력 영역에서는 반대로 부산 지역이 유의한 수준의 높은 평균 점수를 보이고 있음

6) p-value<0.01

- 이 사실은 앞서 살펴본 지역간 참여자의 기초통계량 비교 결과와 일치함
- [그림 4-4]에 나타난 각 영역별 지역간 분포는 이러한 차이를 더욱 뚜렷이 보여줌

[그림 4-4] 지역별 근로능력평가점수 분포



□ 여기서 구축된 근로능력평가 점수는 실제 근로능력평가 이용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대리변수 (proxy variable)의 역할을 위해 구성된 것이므로, 이 변수에 대한 해석과 이용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함

- 이미 언급한 일부 영역에서의 과대추정 경향 외에도 다른 방향의 편의(bias)를 가질 수도 있음
- 근로능력평가 점수가 취업 또는 탈수급 등의 경제적 성과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반영함에 있어서도 보다 신중한 접근 필요
 - 두 변수간의 관계에 대해 암묵적·명시적으로 부가하는 가정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게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임

3. 시범사업 참여자의 가구 특성

□ 사업 참여자 2000명의 가구에 대한 특성이 <표 4-5>에 요약·제시됨

- 참여자 중 가구주의 비율이 전체 57.5%, 평균적인 가구원 수는 2.63명임
- 가구구성원 조합에 따라 가구유형을 구분하였을 때, 약 82.8%의 가구가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함
 - 한부모 가구의 비중이 약 52%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격요건 및 우선순위 결정에 소득요건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 혼인상태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66명의 참여자를 제외할 때, 이혼 상태인 참여자가 41.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배우자가 있는 참여자가 27.2%, 미혼인 참여자 16.5%의 순서로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여기서 이혼인 참여자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가구유형의 한부모 가정의 높은 비중과도 관련됨
- 전체 참여자 중 54.0%의 참여자가 사업참여 시점에 가구 소득이 있다고 조사되었으며, 전체 가구의 월소득의 평균은 약 38만원임
 - 소득이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여 평균소득을 계산하면 약 70만원으로, 2009년 기준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수준임
- 전체 참여자의 가구 중 77.6%가 사업참여 시점 현재 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이임
 - 일반수급대상 가구는 20.0%, 조건부수급대상 가구는 57.0%, 자활특례 대상이 0.6%임

<표 4-5> 시범사업 참여자 기초 통계량 (가구)

	전체	부산	경기
가구주 (%)	57.5	77.7	37.2
가구원수 (명)	2.67 (1.28)	2.78 (1.26)	2.57 (1.29)
가구유형* (%)			
독신	3.3	1.0	5.6
부부	0.1	0.0	0.2
부부+자녀	30.9	36.3	25.4
한부모+자녀	51.9	49.0	54.8
3세대	0.2	0.1	0.3
형제·자매	0.2	0.0	0.3
조부모+손자녀	0.8	1.0	0.5
기타	12.7	12.5	12.9
혼인상태** (%)			
유배우자	27.2	28.0	26.4
별거	30.0	3.3	2.7
사별	8.7	11.2	6.1
이혼	41.0	36.0	46.2
미혼	16.5	18.5	14.3
기타	4.1	2.9	5.4
가구소득 유*** (%)	54.0	73.6	34.3
가구 월소득*** (만원)	37.8 (42.8)	50.1 (41.4)	25.5 (40.6)
기초생활보장 대상 (%)	77.6	85.0	70.0
표본수	2000	1000	1000

주: () 안은 표준편차를 나타냄

*: 정보가 제공되지 않거나, 중복 체크된 11명 (부산 1명, 경기 10명) 제외

**: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66명 (부산:1명, 경기:65명)을 제외하였으며, 항목간 중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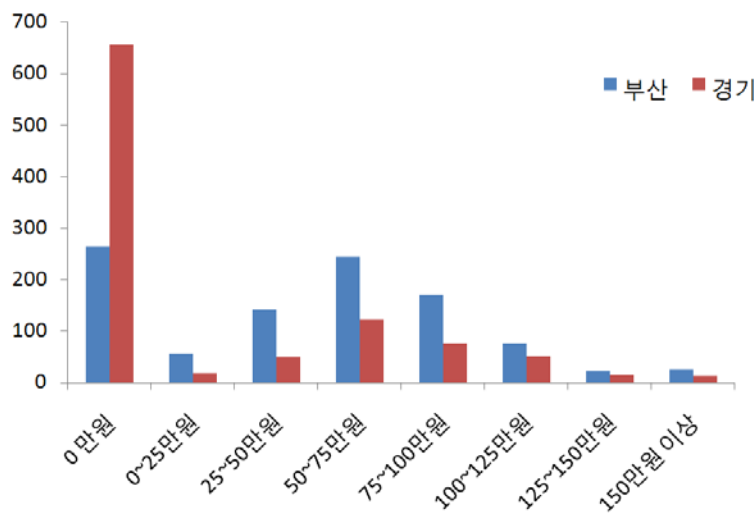
***: 사업참여 시점에 정부보조금 외에 기타 가구 소득 존재 여부

□ 지역별 참여자의 가구 비교

- 가구주의 비율을 비교할 때, 부산이 77.7%, 경기도가 37.2%로 나타나, 두 지역간에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확인됨
- 부산 지역 참여자의 평균 가구원수는 2.78명, 경기 지역 참여자의 평균 가구원수는 2.57명임
- 가구 구성원 조합에 따른 가구유형의 분류에서 경기 지역이 부산 지역에 비해 독신가구, 한부모가구의 비중이 높으나,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의 비중은 낮음

- 사별 또는 이혼한 참여자 비중이 경기 지역은 52.3%, 부산 지역은 49.7%로 차이를 보이며, 이것이 경기 지역의 한부모가구 비중이 높은 이유를 부분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기혼, 이혼+사별을 제외하고 남은 항목인 미혼 참여자의 비중은 부산 지역 참여자의 비중이 더 높음
 - 이 차이는 대략적으로 두 지역간 25세 미만 참여자의 비중에 의해 설명됨
- 사업 참여 시점에 정부보조지원금 이외 가구소득을 가지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부산이 73.6%, 경기가 34.3%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정부지원금 이외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가구 비중의 차이는 두 지역 참여가구의 월평균 소득 역시 차이를 가져옴
 - 부산은 50.1 만원, 경기는 25.5 만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임⁷⁾
 - [그림 4-5]에 제시된 지역별 가구 월소득 분포 역시 이러한 사실을 보여줌
- 사업참여 시점을 기준으로 부산지역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가구는 85.0%, 경기 지역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가구는 70.0%로, 두 지역간에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차이는 앞서 설명한 가구 월소득 분포의 지역간 차이와도 일치하는 결과임

[그림 4-5] 시범사업 참여자 가구 월평균 소득 분포



7) p-값<0.01

Ⅲ. 시범사업의 서비스 유형 및 결정요인

1. 서비스 제공 패턴

□ 두 지역간 서비스 및 면담제공에서 보이는 차이가 자활사업대상자의 이질성에 따른 것인지 혹은 지역 서비스 제공자가 다른 방식의 접근을 취한 결과인지는 흥미로운 주제임

- 자활사업대상자의 유형이 달라짐에 따라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 역시 달라져야 함
 - 실제 부산과 경기 지역 자활센터는 각각 6개 유형과 3개 유형으로 참여자를 구분하여 서비스 제공유형을 다르게 하고 있음
 - 이러한 사업대상자의 이질성에 추가하여 두 지역 자활센터가 다른 방식으로 취업 및 자활을 지원한 효과도 있을 것임

□ 부산과 경기 지역 참여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가능성에 대한 모형 분석

- <각 유형별 서비스 제공 여부를 프로빗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가 <표 4-6>에 제시

□ 부산과 경기 지역 참여자가 서비스를 받을 확률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 2가지 특징으로 요약됨

- 근로능력점수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부산지역 참여자가 경기지역 참여자에 비해 서비스를 받을 확률이 낮음
- 부산 지역 참여자는 근로능력점수가 높을수록 서비스를 제공받을 확률이 유의하게 증가하나, 경기지역 참여자에게서는 이런 경향이 보이지 않음

□ 두 지역의 서비스 제공 확률의 차이는 상당부분 취업·면접 서비스와 교육훈련 서비스 제공 확률의 지역간 차이로 설명됨

- 근로능력점수를 통제한 이후에도 약 13.4%p 정도 서비스를 받을 확률이 낮음
 - 따라서, 두 지역의 차이 14%p 중 근로능력점수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은 0.5%p에 지나지 않음
- 근로능력점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부산지역이 서비스를 제공할 확률이 낮은 이유는 취업·면접 서비스와 교육훈련서비스를 제공할 확률이 낮았기 때문
 - 근로능력점수가 표본평균값을 갖는다고 할 때, 경기 지역 참여자가 부산지역 참여자에 보다 취업·면접 서비스를 받을 확률은 11.3%p, 교육훈련 서비스를 받을 확률은 20.8%p 높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임
 - 사회서비스를 받을 확률의 차이는 1.1%p에 그침

□ 근로능력점수의 변화에 따른 서비스 제공 확률이 지역별로 다른 영향을 받는 현상 역시 취업·면접 서비스와 교육훈련서비스 부분에서의 차이로 설명됨

- 근로능력점수가 서비스를 받을 확률에 주는 영향이 두 지역간 뚜렷한 차이를 보임
 - 부산지역 참여자에 대해서는 근로능력점수가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확률이 뚜렷하게 증가하나, 경기지역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발견되지 않음
 - 구체적으로 부산 지역은 근로능력점수가 10점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확률이 11.0%p 증가하나, 경기 지역은 0.2%p 증가함⁸⁾
- 근로능력점수의 영역별 점수에 따라 각 영역별 점수 더미변수 (dummy variable)을 만들어서 어느 영역에서 지역간 차이가 발생하는지 확인해봄
 - 각 영역에서 3개 집단으로 나누어지므로, 가장 낮은 점수를 갖는 집단을 근거 집단(reference group)으로 간주하여 생략하고, 나머지 2 집단에 대한 더미변수를 설명변수로 포함함
 - 예컨대, 연령1은 연령이 36세 이상 55세 이하로 연령영역에서 가장 높은 30점을 받은 집단을 의미하고, 연령2는 연령 18세 이상 35세 이하에 속한 집단을 나타내는 더미변수임
- 부산 지역이 높은 근로능력점수를 갖는 참여자에게 서비스 제공할 확률이 높은 이유는 연령과 능력 및 학력 기준에서 우수한 집단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유의한 수준으로 높았기 때문임
 - 모형 (2)에서 연령 및 능력 영역에서의 차이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확률에 대한 영향에서 지역 간 차이가 보이는 것으로 확인됨
 - 근로능력점수 각 영역별 더미변수와 지역 간 상호작용을 고려한 상태에서 두 지역간 차이는 여전히 존재함
 - 경기 지역의 서비스 제공 확률은 각 영역별 점수에 따라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이에 비해 부산 지역은 연령점수가 30점인 집단이 연령점수 10점인 집단에 비해 서비스를 받을 확률이 26.2%p 높고, 연령점수가 20점인 집단은 연령점수가 10점인 집단에 비해 서비스를 받을 확률이 15.6%p 높고, 능력 및 학력 점수가 25점인 집단은 10점인 집단에 비해 서비스를 받을 확률이 16.1%p 높음
 - 부산 지역에서 관측된 연령과 능력·학력 영역 점수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확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임

□ 사회서비스 제공 확률에 대해서는 다른 서비스 영역에서와는 다르게 두 부문이 비교적 유사한 특성을 보임

- 모형 (7)에서 두 지역 참여자 모두 근로능력점수가 증가할수록 서비스를 제공받을 확률이 유의한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예컨대 점수가 10점 증가하면 2.8%p 증가함

8) 주어진 확률은 각 설명변수가 표본평균값과 일치한다는 가정 아래서 계산됨

- 모형 (8)로부터 근로능력점수가 증가할수록 사회서비스가 증가할 확률은 능력 및 건강 영역에서의 차이에 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근로능력점수 증가가 사회서비스에 미치는 효과가 단조적(monotonic)이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함
 - 직업능력이 가장 우수한 집단과 비교하여 직업능력이 중간인 집단이사회서비스를 받을 확률이 큼
 - 부산 지역 참여자의 건강영역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발견됨
- 건강 수준과 사회서비스를 받을 확률과의 관계에서는 지역간 차이가 존재함
 - 부산 지역에서는 건강상태가 보통인 집단에 속하는 참여자가 건강상태가 보통 미만인 집단에 속하는 참여자에 비해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확률이 높으나, 경기 지역 참여자에 대해서 이러한 결과가 관측되지 않음

□ 이상을 종합할 때, 경기 지역이 부산지역에 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확률이 보다 높았으며, 부산지역은 근로능력점수가 높을수록 서비스가 유의한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경기지역은 근로능력점수와 서비스제공 여부와의 상관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두 지역 모두 자활사업 참여자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각 유형별로 서비스 및 접근 방식을 다르게 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유형별 분류와 근로능력점수와의 관계가 지역별로 서로 상이한 것으로 보임
- 경기지역 참여자들에게서 근로능력점수와 서비스제공 유형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상황은 경기지역 유형별 분류가 근로능력 점수에 따르지 않는 경우임
 - 다만, 본고에서 구축된 근로능력점수가 실제 근로능력점수와는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주의해야함

□ 근로능력점수와 서비스제공여부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리기는 곤란

- 효율성이란 측면에서 특정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성과변수(outcome variable)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근로능력점수와 서비스제공에 따른 성과변화 사이에 어떤 관계가 존재하는지는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
- 형평성이란 측면에서는 모든 참여자에게 필요에 따라 동일하게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임
 - 성과에 연동한 계약의 특성상 재원이 성과달성에 유리한 특정한 참여자 집단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최적이 아닐 수 있음

○ 개별 서비스 유형 및 성격을 고려한 유형별 서비스 배분의 적절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표 4-6> 서비스 제공 결정 요인 분석

	모든 유형		취업면접서비스	
	(1)	(2)	(3)	(4)
상수항	0.210*** (0.349)	0.178 (0.298)	-0.537** (0.259)	-0.383 (0.295)
지역	-1.735*** (0.349)	-1.222*** (0.392)	-1.073*** (0.346)	-0.688* (0.395)
(가상) 점수	0.005 (0.004)		0.009** (0.004)	
지역×(가상)점수	0.023*** (0.006)		0.013** (0.006)	
연령1 [‡]		-0.011 (0.177)		0.104 (0.169)
연령2 ^{‡‡}		-0.199 (0.192)		-0.087 (0.184)
건강1 [*]		-0.115 (0.270)		-0.180 (0.271)
건강2 ^{**}		0.296 (0.250)		0.333 (0.249)
능력1 [‡]		0.176 (0.115)		0.052 (0.112)
능력2 ^{‡‡}		-0.005 (0.154)		0.197 (0.151)
지역×연령1 [‡]		0.553** (0.233)		0.317 (0.233)
지역×연령2 ^{‡‡}		1.101*** (0.257)		0.762*** (0.256)
지역×건강1 [*]		0.387 (0.359)		0.159 (0.364)
지역×건강2 ^{**}		0.069 (0.337)		-0.174 (0.340)
지역×능력1 [‡]		0.065 (0.170)		0.151 (0.172)
지역×능력2 ^{‡‡}		0.512** (0.220)		0.213 (0.220)

· ()안은 표준편차를 나타냄

* : p-value<10% , ** : p-value<5% , *** : p-value<1%

● 지역: 부산=1

‡: 연령1=연령 36세 이상 55세 이하 집단 더미, ‡‡: 연령2= 연령 18세 이상 35세 이하 집단 더미

*: 건강1= 건강 보통 집단 더미, **: 건강2= 건강 상태 양호 집단

‡ : 능력1: 직업능력 중 집단 더미, ‡‡ : 능력2: 직업능력 상 집단 더미

	교육훈련		사회서비스	
	(5)	(6)	(7)	(8)
상수항	-0.319 (0.265)	-0.436 (0.305)	-1.995 ^{***} (0.353)	-1.819 ^{***} (0.420)
지역	-2.039 ^{***} (0.401)	-2.285 ^{***} (0.598)	0.595 (0.454)	0.189 (0.550)
(가상) 접수	-0.001 (0.004)		0.014 ^{**} (0.006)	
지역×(가상)접수	0.023 ^{***} (0.007)		-0.011 (0.007)	
연령1 [†]		-0.215 (0.170)		0.322 (0.264)
연령2 ^{††}		-0.251 (0.186)		0.177 (0.281)
건강1 [*]		0.112 (0.280)		-0.556 (0.381)
건강2 ^{**}		0.131 (0.259)		0.097 (0.327)
능력1 [‡]		0.207 [*] (0.116)		0.423 ^{**} (0.170)
능력2 ^{‡‡}		-0.029 (0.158)		0.362 [*] (0.214)
지역×연령1 [†]		0.949 ^{***} (0.318)		-0.053 (0.337)
지역×연령2 ^{††}		1.075 ^{***} (0.337)		0.107 (0.365)
지역×건강1 [*]		0.542 (0.538)		0.883 [*] (0.499)
지역×건강2 ^{**}		0.682 (0.518)		-0.080 (0.453)
지역×능력1 [‡]		-0.006 (0.211)		-0.391 (0.240)
지역×능력2 ^{‡‡}		0.398 (0.256)		-0.074 (0.420)

·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냄

* : p-value<10% , ** : p-value<5% , *** : p-value<1%

● 지역: 경기=1

†: 연령1=연령 18세 이상 35세 이하 집단 더미, ††: 연령2= 연령 36세 이상 55세 이하 집단 더미

*: 건강1= 건강 양호 집단 더미, **: 건강2= 건강 상태 보통 집단

‡ : 능력1: 직업능력 상 집단 더미, ‡‡ : 능력2: 직업능력 중 집단 더미

2. 면접횟수 및 실비 제공 횟수

□ 여기서는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다른 유형의 서비스의 제공으로 간주할 수 있는 면접 및 실비제공 횟수를 앞절과 비슷한 방식으로 분석하려 함

- 면접과 실비제공 역시 사업 참여자의 취업을 돕기 위한 사업기관의 노력 및 비용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취업·면접, 교육훈련, 사회서비스 연계 서비스와 비슷함

□ 면접과 실비제공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자가 평균적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횟수에 대한 분석을 하려함

- 앞절에서의 분석이 각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받을지 여부에 대한 분석이란 점에서 구분됨
- 따라서, 추정결과에 해석은 다소 달라짐
- 그러나, 분석의 초점이 개별 참여자가 갖는 특성이 면접 또는 실비제공 횟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에 있어 두 지역간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려 한다는 점에서는 앞절의 분석과 동일함

□ 자활사업 참여자가 받는 면접 또는 실비제공 횟수가 다음과 같은 확률모형을 따른다고 가정함

- 모형

$$- Y_i \sim \text{Poisson}(\lambda_i)^9)$$

$$- \lambda_i = \exp(\beta_0 + \beta_1 x_{1i} + \dots + \beta_k x_{ki})$$

- Y_i : 사업참여자 i 가 받은 면접 (또는 실비제공) 횟수

- x_{1i}, \dots, x_{ki} : 사업참여자 i 의 특성

- 해석

- x_{ij} 의 Y_i 의 조건부 기댓값에 대한 한계효과는 다음과 같음

$$\frac{\partial}{\partial x_{ij}} E(y_i | x_{1i}, \dots, x_{ki}) = \beta_j \times \exp(\beta_0 + \beta_1 x_{1i} + \dots + \beta_k x_{ki}) = \beta_j \times E(y_i | x_{1i}, \dots, x_{ki})$$

- 따라서, 모수 β_j 는 x_{ij} 가 한단위 변할 때 Y_i 의 조건부 기댓값이 변화하는 비율로 해석됨

9) $\text{Poisson}(\lambda)$ 는 모수 λ 를 갖는 프아송 분포를 뜻한다. 즉, $\text{Poisson}(\lambda)$ 를 분포함수로 갖는 확률변수 Y 에 대해 다음이 성립한다.

$$\Pr(Y=y|\lambda) = \frac{e^{-\lambda}\lambda^y}{y!}.$$

□ 근로능력점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부산지역 참여자가 경기지역 참여자에 비해 적은 면접횟수를 가지고 있으며, 근로능력점수가 높은 참여자일수록 보다 많은 면접 횟수를 가짐

- 근로능력점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부산지역 참여자의 면접횟수가 경기지역 참여자와 비교하면 약 $(\exp(-0.281 - 0.01 \times \text{근로능력점수}) - 1) \times 100\%$ 의 차이를 보임
 - 전체 참여자의 평균 근로능력점수인 59.1점에서 두 집단의 기대면접횟수를 비교해 보면, 부산은 20.2번, 경기는 29.8번의 평균값이 얻어지므로, 이 때 부산의 면접횟수는 경기지역에 비해 약 30.7% 낮다고 할 수 있음
- 근로능력점수가 증가할수록 면접횟수 역시 유의한 폭으로 증가함
 - 근로능력점수의 평균값을 가진 참여자와 비교하여, 근로능력점수가 10점 더 높은 또다른 참여자는 증가하면 약 6.2% 정도 더 많은 면접횟수가 기대됨을 확인
 - 근로능력점수가 증가함에 따라 면접횟수가 증가하는 관계는 능력 부문에 의해 설명됨
 - 직업능력이 하로 분류되는 참여자 집단과 비교하여 직업능력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참여자들이 약 22.3% 정도 더 많은 면접횟수를 가지기 때문임
 - 연령과 건강영역에서의 점수 차이는 면접횟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음
- 근로능력점수에 따라 기대되는 면접횟수가 증가하는 정도는 부산과 경기 두 지역 사이에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지는 않음

□ 실비제공횟수에서 부산과 경기 두 지역 간에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능력점수 중 직업능력의 차이가 실비제공횟수의 차이를 가져옴

- 실비제공횟수에서는 두 지역간에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 근로능력점수를 설명변수로 포함한 모형 (3)에서 근로능력점수의 차이가 실비제공횟수에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나타났으나, 영역별 점수에 따라 참여자 집단을 나누어 분석한 모형 (4)에서 직업능력점수가 중간인 집단이 직업능력이 최하로 분류된 집단에 비해 약 10.8% 정도의 추가적인 실비제공횟수를 갖는 것으로 보고됨

<표 4-7> 면접 및 실비제공 횟수 분석

	면접 횟수		실비제공 횟수	
	(1)	(2)	(3)	(4)
상수항	3.039 ^{***} (0.155)	3.230 ^{***} (0.173)	1.404 ^{***} (0.106)	1.356 ^{***} (0.121)
지역	-0.281 ^{***} (0.182)	-0.218 (0.204)	-0.058 (0.146)	0.091 (0.154)
(가상) 접수	0.006 ^{**} (0.003)		0.001 (0.002)	
지역×(가상)접수	-0.001 (0.003)		0.003 (0.002)	
연령1 [†]		0.148 (0.107)		0.011 (0.108)
연령2 ^{††}		0.156 (0.116)		-0.023 (0.076)
건강1 [*]		-0.114 (0.144)		-0.003 (0.112)
건강2 ^{**}		-0.048 (0.128)		-0.001 (0.102)
능력1 [‡]		0.076 (0.062)		0.103 ^{***} (0.049)
능력2 ^{‡‡}		0.201 ^{**} (0.084)		0.084 (0.063)
지역×연령1 [†]		-0.023 (0.120)		0.011 (0.108)
지역×연령2 ^{††}		0.124 (0.131)		0.145 (0.117)
지역×건강1 [*]		-0.002 (0.180)		0.004 (0.143)
지역×건강2 ^{**}		-0.124 (0.166)		-0.064 (0.130)
지역×능력1 [‡]		-0.072 (0.081)		0.036 (0.076)
지역×능력2 ^{‡‡}		-0.118 (0.105)		0.115 (0.090)

· ()안은 강건한 방식에 의해 구해진 표준오차를 나타냄

* : p-value<10% , ** : p-value<5% , *** : p-value<1%

● 지역: 부산=1

†: 연령1=연령 36세 이상 55세 이하 집단 더미, ††: 연령2= 연령 18세 이상 35세 이하 집단 더미

*: 건강1= 건강 보통 집단 더미, **: 건강2= 건강 상태 양호 집단

‡: 능력1: 직업능력 중 집단 더미, ‡‡: 능력2: 직업능력 상 집단 더미

□ 지금까지의 분석은 질적측면 및 실비 제공 규모 등의 다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수량에 대한 분석만을 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짐

IV. 시범사업의 경제적 성과

1. 성과평가의 쟁점

□ 기본 모형

○ 정의

- D_i : 성과연동형 자활사업 참여 여부 더미
- $y_{i,0}$: 자활사업 미참여시의 성과
- $y_{i,1}$: 자활사업 참여시의 성과

○ 자활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개인의 성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남

$$y_i = D_i y_{i,1} + (1 - D_i) y_{i,0}$$

○ 자활사업 참여로 얻는 효과는 $y_{i,1} - y_{i,0}$ 로 정의할 수 있으며, 자활사업의 효과 역시 $\overline{y_{i,1}} - \overline{y_{i,0}}$ 로 정의가 가능함

○ 근본적 문제

- 동일한 개인에 대해서 두 가지 가상적 상황, 즉 자활사업 참여시의 성과와 자활사업 미참여시의 성과 두 가지 중 하나만 관측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존재
- 즉, $(D_i, y_{i,0}, y_{i,1})$ 은 $(0, y_{i,0}, missing)$ 또는 $(1, missing, y_{i,1})$ 으로 관측됨

○ 단순하게 말해서 이에 대한 해결책은 자활사업 미참여시의 성과를 다른 유사집단에서 가져오는 방식으로 해결함

- 자활사업 참여자들로부터 구축되는 자료는 $(1, missing, y_{i,1})$ 에 해당되어 실험집단의 결과에 대한 정보 제공
- 나머지 자활사업 미참여에 대한 결과는 유사 집단의 성과를 이용하여 $(0, y_{i,0}, missing)$ 를 구축
- 이렇게 구성된 두 집단의 성과차이가 성과형 자활사업의 효과로 간주할 수 있음, 즉 $\overline{y_{i,1}} \mid \text{참여자} - \overline{y_{i,0}} \mid \text{미참여자, 유사집단}$

□ 따라서, 효과성 평가와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라 할 수 있는 가상적 상황 아래서의 경제적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이런 정보를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통제집단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임

○ 이런 맥락에서 성과형 자활사업 효과 측정의 성패는 시범사업 참여자들이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의 경제적 상황을 묘사해주는 주는 통제집단의 선정에 달려

- 통제집단이 성과형 자활사업 참여자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이들의 성과를 통해 사업참여자와 관련된 성과를 유추해낸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곤란하기 때문

- 통제집단 (비교집단) 의 선정
 - 기존 자활 사업 참여자 집단 (성과 미연동형 자활사업 참여자 집단)
 - 유사 사업 (노동부 사업) 참여 집단
 - 기타 빈곤층 집단
-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 집단이 성과형 자활 사업참여자와 (어느 정도의)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지가 중요한 점검사항임
 - 이런 의미에서 조건부 수급 참여자를 제외한 기타 집단이 주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음
 - 조건부 수급자의 경우 기존 자활사업 참여집단과의 비교는 여전히 유효함
- 통제집단에 따라 성과형 자활사업의 효과는 다르게 나타나며, 이 결과 또한 다른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함

□ 본 연구에서는 적절한 통제집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자료의 확보가 곤란하므로 시범사업의 효과를 측정할 수 없음

- 다만, 경제적 성과지표들과 참여자의 근로능력, 건강상태, 연령을 포함한 여러 사회경제적 변수와의 연관성을 파악하려 함
- 또한, 지역간 경제적 성과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만일 존재한다면 그 차이가 사업참여자의 이질성에서 기인한 것인지 혹은 다른 지역적 요인에 기인한 것인지 파악하려 함
 - 이 때 사업 참여자의 이질성에 의해 설명되고 남은 지역적 요인의 효과는 지역간 시범사업 운영의 차이에서 오는 효과 외에도 지역경제 효과를 포함하는 것임

□ 시범사업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평가하기는 곤란하나, 기존 자활사업의 취·창업률 및 탈수급률 자료를 이용하여 간접적인 측면에서 시범사업의 성과를 간략히 논의할 것임

□ 시범사업 성과 측정을 위해 여러 측면을 고려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할 수 있음

- 개념적 정의가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는 주된 경제 변수는 아래 아래와 같음
 - 취업률 (또는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
 - 탈수급률 (또는 탈수급까지 걸리는 기간)
 - 취업 후 소득수준
- 이들 경제적 변수를 성과지표로 사용할 경우 구체적인 정의를 위한 논의 필요
- 주된 분석 대상을 위에서 열거한 경제적 변수들로 한정할 필요는 없으며 개념적 정의를 포함한 분석상 기술적인 문제가 없는 다른 기준들 역시 고려대상으로 포함할 수도 있을 것임
 - 사회복지에서 사용되는 다른 지표 고려 가능성 고려해 볼 필요 있음

- 각각의 성과지표는 다른 방식의 추정을 요구함
 - 예컨대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은 생존분석 (survival analysis) 가 이용
 - 그 밖에도 지표의 성격과 비교집단 선정방식에 따라 로짓 모형, (p-score) 매칭 등의 방식이 이용될 수도 있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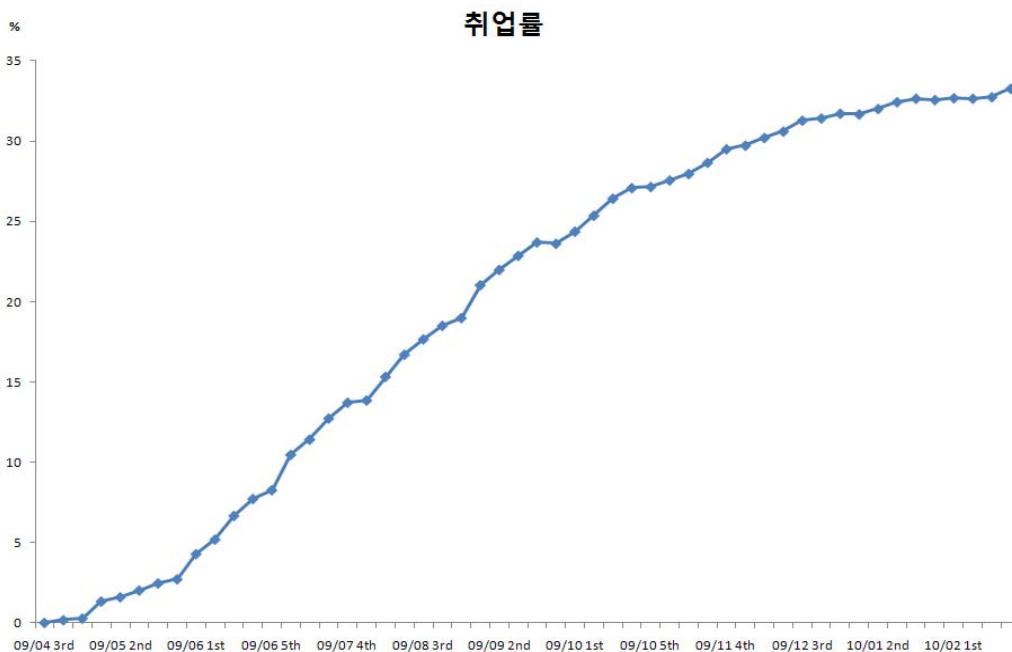
□ 본고에서는 경제적 성과변수로 취업률, 취업까지의 시간, 취업지속기간, 탈수급율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할 것임

2. 시범사업참여자의 취·창업률 및 직종

□ 시범사업참가자들의 취업률은 사업기간이 진행되어감에 따라 점차 상승하여 2009년 12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30%대의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음

- [그림 4-6]은 날짜별 사업참가인원을 가중치로 하여 주간 평균취업률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2010년 2월말을 기준으로 2000명의 참여자 중 약 650명 정도가 취·창업하고 있는 상태임

[그림 4-6] 시범사업 참가자 취업률



주: 세로축은 일별 시범사업 참가인원을 가중치로 하여 계산된 주간 평균 취업률임

□ 2000명의 사업 참여자 중 한 번 이상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는 1104명으로 참여자의 44.8%를 차지함

- 부산 39.6%, 경기 50.0%로 지역간 차이를 보임
 -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나타냄

<표 4-8> 취·창업률

	전체	부산	경기
취·창업률1	44.8%	39.6%	50.0%
취·창업률2	26.9%	21.2%	32.5%
취·창업률3	26.3%	20.9%	31.6%

- 주1: 취·창업률1은 사업기간 중 1번이라도 취업 또는 창업한 참여자의 비율
- 주2: 취·창업률2는 최저임금기준 이상을 만족하는 직업에 1번 이상 취·창업한 참여자의 비율
- 주3: 취·창업률3은 최저임금기준 이상을 만족하는 직업에 1번 이상 30일 이상 취·창업한 참여자의 비율

□ 계약상 취업유지 성과급 신청을 위한 요건인 최저임금이상을 받으며 30일 이상 취업 유지한 참여자는 부산 209명, 경기 316명으로 전체 525명에 해당함

- 취업성과급을 만족하는 참여자 비율 역시 경기 지역이 유의한 수준으로 높음
- 취업성과급 신청자 비율이 부산 35%, 부산 36.7%로 DB와 불일치하므로, 구축된 DB에 과소보고 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함
 - 이하의 분석은 DB의 부정확성에 따른 오류 가능성을 가짐

□ <표 4-8>에 제시된 취·창업률을 사업참여시 수급상태에 따라 분해해보면, 차상위계층의 취·창업률이 수급층에 비하여 높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음

- 수급층의 취·창업률은 약 23%이나, 차상위계층의 취·창업률은 약 37%에 해당함
- 이러한 패턴은 부산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경기지역에서 두드러짐
 - 경기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창업률을 갖는 현상은 차상위층에서의 높은 취·창업률에 의해 일부분 설명됨

<표 4-9> 시범사업참여 시점 수급유형별 인원 및 취업율

		수급자			수급자 계	차상위	전체
		일반수급	조건부 수급	자활특례			
부산	인원(명)	150	694	6	580	150	1000
	취업률(%)	23.33	19.74	33.33	20.5	23.33	20.9
경기	인원(명)	149	445	6	700	300	1000
	취업률(%)	23.69	26.97	66.67	26.14	44.33	31.6
전체	인원(명)	399	1139	12	1550	450	2000
	취업률(%)	23.56	22.56	50.00	23.03	37.33	26.3

주: 30일 이상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취업 또는 창업을 취·창업으로 간주함

- 월급여에 대한 정보가 있는 모든 취·창업 698건에 대해 월급여 분포를 조사해보면, 전체의 16%이하가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37%정도가 최저임금을 초과하나 10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0> 월급여 분포

(단위 : %)

월급여	부산	경기	전체
83.6만원 이하	9.4	20.4	16.2
83.6 ~100만원	39.1	35.9	37.1
100~120만원	20.7	24.3	22.9
120만원 이상	30.8	19.4	23.8
계	100.0	100.0	100.0

주: 월급여 정보가 있는 모든 취·창업에 대한 분포임

- 고용형태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 있는 모든 취업 1129건에 대하여 고용형태의 분포를 조사해보면, 정규직의 비율은 약 28%정도에 그치고 있음

<표 4-11> 고용형태 분포

(단위 : %)

	부산	경기	전체
정규직	29.2	26.7	27.9
비정규직(상용직)	52.7	41.6	46.9
비정규직(일용직)	2.6	10.3	6.6
비정규직(임시직)	15.5	21.5	18.6
소계	100.0	100.0	100.0

주: 근로유형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 모든 취업을 대상으로 함

□ 자활사업자의 취·창업은 단순노무직과 서비스직에 심하게 편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 특히, 단순 노무직의 비율이 전체 취·창업건수의 46%에 해당함

<표 4-12> 직종 분포

(단위 : %)

	부산	경기	전체
사무직	7.6	10.8	9.2
기술공 및 준전문가	4.7	4.6	4.6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10.8	5.6	8.1
단순노무직 근로자	41.5	50.3	46.0
서비스 근로자	25.0	16.9	20.8
장치, 기계조립원	7.6	2.9	5.1
기타	2.9	9.1	6.1
계	100.0	100.0	100.0

주: 직종정보가 제공된 모든 취·창업을 대상으로 함

□ 4대 보험가입 비율은 개별 보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약45~53%정도에 머무르고 있으며, 부산지역이 경기지역에 비해 높은 4대보험 가입비율을 보이고 있음

<표 4-13> 4대보험 가입 비율

(단위:%)

	부산	경기	전체
고용보험	59.4	48.0	53.4
건강보험	49.7	41.2	45.3
국민연금	49.9	41.6	45.5
산재보험	58.8	47.6	53.0

주: 4대보험 가입여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 모든 취·창업을 대상으로 함

3. 취·창업 결정 모형 분석

가. 취업 요인 분석

□ <표 4-8>에 나타난 지역간 취·창업률의 차이를 단순히 경기지역의 자활사업이 부산지역에 비해 좋은 성과를 나타내는 증거라고 판단하기는 곤란

- 사업참여자 집단의 특성, 경기적인 요인, 지역 특성 요인 등으로 지역간 통제되지 않은 혼동요인의 존재
 - 지역의 특성, 2009년 현재 경제적 요인의 경기·부산간 차별적 영향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근본적인 평가의 문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적절한 통제집단의 선정과도 관련되어 있음

□ 취업과의 상관 요인 분석

- 기본 모형
 - 취업을 결정하는 잠재변수 (latent variable) 가 존재하고, 이 값이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면 취업이 되는 것으로 이해함
 - 취업 모형에 포함되는 설명변수 x_i 와 관측되지 않는 확률적 요인 ε_i 가 존재함
 - 특히, 확률적 요인 ε_i 가 표준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 하에 프로빗 모형을 이용함
 - 즉, $d_i = 1 \Leftrightarrow d_i^* = x_i' \beta + \varepsilon_i > 0$ where $\varepsilon_i \sim i.i.d. N(0,1)$
 - d_i : 참여자 i 가 취업을 하였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갖는 지시변수
 - x_i : 참여자 i 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

□ 다른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부산지역이 경기지역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낮은 취·창업률을 보임

- 모형 (2)에 따르면 부산 취업률이 경기지역보다 약 10.2%p 낮음
 - 다른 모형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얻음

□ 구체적인 추정결과는 모형에 통제된 변수들에 따라 달라지지만, 가상적으로 구성된 근로능력점수가 증가할수록 취·창업 확률 역시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됨

- 가장 단순한 모형 (1)에 따르면, 근로능력점수가 10점 증가할 때 취업확률은 5.1%p 정도 증가함
 - 근로능력점수를 제외한 다른 요인을 추가적으로 통제한 모형 (2)와 (3)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얻음
 - 모형 (2) : 5.7%p 증가
 - 모형 (3) : 경기지역 : 2.4%p 증가, 부산지역: 8.6%p 증가

□ 가상적인 근로능력점수가 취업확률과 유의한 수준에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연령·건강·능력의 3개 영역으로 나누어 개별 영역에서의 관련성을 파악

- 모형 (4)는 개별 영역에서 점수가 가장 낮은 집단을 기준으로 하여, 나머지 2개 집단에 대한 더미를 포함한 모형임
 - 근로능력점수 평가와 관련된 8개의 더미변수가 설명변수로 포함됨
- 연령과 능력 분야는 취업확률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 영역인 건강 분야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즉, 근로능력점수가 증가함에 따라 취업확률이 증가하는 이유는 연령 영역과 직업 능력의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높은 취업률을 갖기 때문임
 - 모형 (4)에 따르면 연령점수가 하인 집단, 즉 56세 이상인 집단에 비하여 연령점수가 중 (36~55세)인 집단의 취업률이 8.1%p 높다는 결과를 얻음
 - 연령점수가 상(18~35세)인 집단의 취업률은 연령점수가 하인 집단에 비해 11.3%p 높은 취업률을 가짐
 - 직업능력점수가 중과 상인 집단의 취업률은 직업능력점수가 하인 집단에 비해 각각 7.4%p와 13.4%p 높은 취업률을 가짐
- 건강 영역과 취업확률의 연관성이 유의한 수준을 보이지 않는 것은 소수자 우대 (affirmative action) 또는 낮은 유보임금 (reservation wage)의 결과일 수 있음

□ 영역별 평가 대신 개별 결정 요인을 직접 통제하여 모형 (5)를 추정한 결과 역시 유사함

- 근로능력점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직접적으로 통제하여 각 요인의 효과를 보면 아래와 같음
 - 연령이 10세 증가하면, 취업확률은 1.6%p 감소하나 그 폭이 유의하지 않음
 - 고등학교와 대학교 졸업자는 고등학교졸업 미만자에 비해 각각 7.5%p, 8.2%p 높은 취업률을 보임
 - 장애요인 보유는 취업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질병 보유는 취업률을 11.1%p 낮춤

○ (4)의 결과와는 다르게 건강요인, 특히 질병보유가 취업여부에 유의한 수준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4> 취업 결정 요인 분석

	(1)	(2)	(3)	(4)	(5)
상수항	-1.567*** (0.186)	-1.379*** (0.192)	-0.833*** (0.272)	-0.972*** (0.223)	-0.267 (0.164)
(가상) 점수	0.016*** (0.003)	0.018*** (0.003)	0.007 (0.005)		
여성		-0.190*** (0.067)	-0.147 (0.093)	-0.197*** (0.067)	-0.223*** (0.069)
가구주		-0.057 (0.067)	0.046 (0.086)	-0.053 (0.067)	-0.066 (0.068)
지역		-0.319*** (0.067)	-1.281*** (0.393)	-0.310*** (0.068)	-0.309*** (0.070)
지역×(가상)점수			0.020*** (0.006)		
지역×여성			-0.076 (0.134)		
지역×가구주			-0.264* (0.137)		
연령1 [†]				0.263** (0.131)	
연령2 ^{††}				0.333** (0.143)	
건강1*				-0.108 (0.200)	
건강2**				0.210 (0.187)	
능력1 [‡]				0.238** (0.095)	
능력2 ^{‡‡}				0.386*** (0.118)	
연령					-0.005 (0.003)
고등학교 졸업					0.235*** (0.069)
대학교 졸업					0.243** (0.116)
자격증 보유					0.386*** (0.073)
장애요인					-0.138 (0.143)
질병요인					-0.385*** (0.096)

·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냄

* : p-value<10% , ** : p-value<5% , *** : p-value<1%

● 지역: 부산=1

†: 연령1=연령 36세 이상 55세 이하 집단 더미, ††: 연령2= 연령 18세 이상35세 이하 집단 더미

*: 건강1= 건강 양호 보통 더미, **: 건강2= 건강 상태 양호 집단

‡: 능력1: 직업능력 중 집단 더미, ‡‡: 능력2: 직업능력 상 집단 더미

- <표 4-14>에 나타난 분석의 결과는 부산과 경기 지역의 단순 취업률을 비교한 결과가 적어도 <표 4-14>의 분석에 포함된 요인들의 효과에 기인한 차이는 아님을 보여줌
- 따라서, 부산과 경기의 다른 취업률 수준이 참여자들의 특성 요인, 특히 기본적인 인구변수 (demographic variable)과 근로능력점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은 아님
- 그럼에도, 두 지역간 취업률의 차이를 단순히 성과의 차이로 해석하기는 무리임
 - 통제되지 않은 다른 요인들의 효과가 있을 수 있음
 - 예컨대, 지역적 효과가 존재할 수 있음
 - 즉, 특정 지역이 산업구조로 인해 취업이 다른 지역에 비해 어려울 가능성도 있으며, 연도효과 (year effect) 등 경기적 요인이 지역별로 상이한 영향을 줄 수도 있음
 - 따라서, 지역간 차이는 성과의 차이와 기타 요인의 차이로 이해해야 함
 - 즉, 지역간 차이= 성과의 차이 + 혼동효과 (confounding effect)
 - 혼동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통제집단의 존재 또는 이에 대한 정보가 필요
 - 예컨대,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유산한 개인들의 취업률 등의 정보

나. 취업기준 변경

- 지금까지의 분석은 1일 이상 취업한 경험이 있는 모든 참여자를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취업에 대한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음
 - 취업지속기간을 계산하기 곤란한 9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보고된 전체 취·창업 건수는 부산 545건, 경기 586건으로, 전체 1131건에 해당함
 - 모든 취업을 집계하였으므로, 참여자가 여러 번 집계될 수 있음
 - 이 중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취업으로 한정하면, 부산 240건, 경기 340건으로, 전체 580건임
 -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는 전체 취업 중 약 96.2%가 30일 이상, 약 71.2%가 90일 이상의 취업 지속 기간을 보이고 있음
 - 최장 취업기간을 갖는 취업으로 한정하여도 30일 이상이 97.7%, 90일 이상이 75.0%로 높은 편임

<표 4-15> 취업지속요건별 취업 건수

(단위 : 건, 명)

		1일 이상	30일 이상	90일 이상	180일 이상
모든 취업	부산	240	231	174	97
	경기	340	327	239	136
	전체	580	558	413	233
최장 취업	부산	212	209	167	96
	경기	325	316	236	136
	전체	537	525	403	232

주1: 모든 취업은 최저임금을 만족하며, 취업지속일자가 가능한 모든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며, 중복 취업도 집계함

주2: 최장 취업은 각 참여자가 최저임금이상을 받으며 가장 오래 취업했던 취업을 기준으로 함

주3: 취업일수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함

□ <표 4-8>과 <표 4-15>에서 보이듯이, 취업요건에 대한 정의에 따라 취·창업성공 여부는 일반적으로 영향받게 됨

- 취업지속기간 최소취업지속 기간 등의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계약과 연동된다는 측면에서 최소기한은 중요한 의미를 가짐
 - 현재 계약구조 아래서 30일 지속, 180일 지속 요건이 부여됨
- 취업성과와 관련된 주요 분석도 취업요건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질 수 있음

□ 취업요건이 없을 때 취업달성률이 42.1%였음에 비해, 최저임금수준을 부과하면 취업달성률은 26.8%, 여기에 다시 30일을 최소지속요건으로 추가하면 취업달성률은 26.3%, 180일을 최소요건으로 하면 11.6%로 낮아짐

- 취업지속기간은 2010년 2월 28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므로, 최소취업기간 유지에 따른 실제 취업률은 더 증가할 수도 있음
 - 예컨대, 2010년 2월 28일 현재 30일 미만 취업하고 있는 참여자의 경우 이후 30일 이상 취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2010년 2월 28일 현재 취업하고 있으나 30일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참여자의 수는 76명, 180일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참여자는 367명임

□ <표 4-15>에 따르면, 취업지속요건을 부여하여 취업률을 계산하여도 부산과 경기 지역 간의 참여율에서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발견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음

□ 취업지속기간을 부여해 취업을 새롭게 정의하여 취업결정요인 분석을 하여도 비슷한 결론에 얻음

○ 구체적인 결과는 본문에서는 생략하기로 함

다. 제공된 서비스와 취·창업 여부

□ 앞절의 분석을 통하여 부산과 경기지역의 취·창업 성공률의 차이는 근로능력점수, 성별, 교육수준, 자격증 보유, 건강상태 등의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여전히 유의한 수준임을 확인함

○ 지역간 자활사업 참여자의 이질성에서 기인하는 효과를 제거한 후에도 취·창업 여부에 차이가 발생한 것임

○ 참여자 집단의 차이 외에도 부산과 경기 지역이 서로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면 이것 역시 두 지역간 차별성을 설명할 수도 있음

- <표 4-8> ~ <표 4-10>은 경기지역의 참여자가 부산지역 참여자에 비해 보다 많은 서비스 지원을 받았음을 보여줌

- 제공된 서비스의 차이, 즉 처치 (treatment)의 차이가 성과에 차이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존재함

□ 최저임금을 만족하며 30일 이업 여부와 1회 이상 서비스 제공 여부의 상관계수는 0.45로 나타남

○ 특히, 취업면접 서비스 제공과 취·창업 여부의 상관계수는 0.63으로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관측됨

○ 이에 반해 다른 두가지 서비스에서는 이런 경향이 뚜렷이 관측되지 않음

- 교육훈련 서비스: -0.002

- 사회서비스 연계: 0.072

□ 제공된 서비스의 차이가 취업성과에 영향을 주는지를 앞 절의 취업요인 분석과 동일한 방식을 이용하여 확인함

○ 앞 절 분석의 확장된 내용임

<표 4-16> 취업 결정 요인 분석

종속변수	최저임금 30일 취업			최저임금 180일 취업
	(1)	(2)	(3)	(4)
상수항	-2.811*** (0.258)	-2.567*** (0.266)	-2.066*** (0.238)	-2.402*** (0.275)
(가상) 점수	0.011*** (0.004)	0.009** (0.004)		
여성	-0.247*** (0.078)	-0.215** (0.087)	-0.219** (0.089)	0.055 (0.099)
가구주	-0.179** (0.078)	-0.180** (0.088)	-0.171* (0.089)	-0.114 (0.098)
지역	-0.140* (0.079)	-0.177* (0.092)	-0.199** (0.095)	-0.197* (0.106)
서비스 제공	1.982*** (0.140)			
면담횟수 상위	0.154** (0.076)	0.166* (0.087)	0.173** (0.088)	-0.173* (0.098)
실비제공횟수 상위	0.336*** (0.072)	0.303* (0.087)	0.288*** (0.087)	0.453*** (0.101)
취업면접서비스 제공		2.269*** (0.108)	2.251*** (0.108)	1.643*** (0.132)
교육훈련서비스 제공		-0.116 (0.096)	-0.145 (0.097)	-0.415*** (0.113)
사회서비스 제공		0.084 (0.122)	0.054 (0.123)	0.164 (0.133)
연령			-0.002 (0.004)	0.000 (0.005)
고등학교 졸업			0.181** (0.089)	0.042 (0.100)
대학교 졸업			0.198 (0.149)	0.277* (0.159)
자격증 보유			0.130 (0.093)	0.063 (0.102)
장애요인			0.051 (0.192)	0.113 (0.210)
질병요인			-0.175 (0.129)	-0.146 (0.147)

주1: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냄. 지역: 부산=1.

주2* : p-value<10% , ** : p-value<5% , *** : p-value<1%

□ 모형 (1)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서비스를 1회 이상 제공받은 참여자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참여자에 비해 취업률이 37.7%p 높게 나타남

- 서비스의 내역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 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통제한 모형 (2)와 모형 (3)에서 취업면접 서비스의 제공이 취업성공과 유의한 수준의 상관관계를 가짐이 확인됨
- 다른 2가지 유형의 서비스, 교육훈련 및 취업연계 서비스에서는 유의한 효과를 찾지 못함
- 취업면접 서비스의 효과와 다른 유형의 서비스의 효과가 발현되는 시간이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음

□ 180일 이상 최소임금기준을 만족하여 취업한 경우를 취업성공으로 간주한 모형 (4)에서도 취업면접서비스의 효과가 유의한 양의 효과가 나타났으나, 교육훈련 서비스의 제공이 유의한 수준에서 낮은 취업성공률과 관련되어 있다는 결과를 얻음

- 기대 임금수준의 상승 혹은 시차 (time lag)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결과일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서비스 제공 내역 및 여부를 추가적으로 통제한 이후 부산과 경기지역간 차이를 나타내는 지역더미의 효과가 이전과 비교하여 줄어들었다는 것임

- <표 4-8>에서 두 지역간 차이가 약 10.2%p였으나, 서비스 제공 여부를 포함한 후에는 지역 변수의 효과가 3.2~4.2%p로 감소하게 됨

□ 또 다른 서비스로 간주할 수 있는 면담횟수 및 실비제공 횟수가 취업성공 여부와 관련을 갖는 것으로 보임

- 모형 (1)-(3)에 의하면 면담 횟수를 기준으로 상위 50% 집단과 하위 50% 집단으로 구분하여 볼 때, 상위 50% 집단이 하위 50% 집단에 비해 보다 높은 취업성공률을 보임
- 실비제공횟수에 대해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음
- 다만, 180일을 기준으로 취업을 정의할 때 면담횟수가 많은 집단이 적은 집단에 비해 낮은 취업률을 갖는다는 결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다른 모형과 차이점을 보임

□ 다른 요인들, 즉 근로능력점수 및 사회경제적 요인들에 대한 결과는 여기서 생략하기로 함

□ 서비스 제공 결정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이 사업참여자의 특성, 특히 사전적으로 기대되는 취업달성 여부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는 점에서 본 절의 분석결과는 한계를 가짐에 유의

○ 이러한 관계가 성립한다면 내생성으로 인해 불일치 추정량일 가능성 존재함

□ 따라서, 주어진 결과를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여러 서비스 제공 결정에 관련된 기제와 제공된 서비스가 어떤 경로를 통해 취업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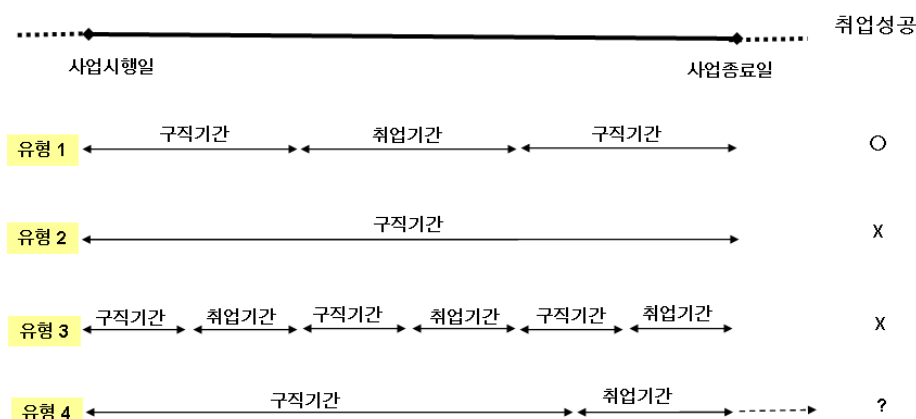
4. 취업소요기간 분석

□ 2~3절에서 분석하였던 취업달성 여부는 기본적으로 취업까지의 소요기간과 취업 이후의 지속기간에 의해 영향받게 됨

○ [그림 4-7]에서 보이듯이 소요기간이 증가시키거나, 취업지속기간을 단축시키는 요인은 취업달성과 음의 상관관계를 갖게 됨

- 유형 2의 경우 긴 구직기간으로 인하여 사업종료일 시점까지 취업달성을 하지 못한 경우이고, 유형 3은 구직기간은 짧으나 취업 이후 근로기간이 기준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취업성공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임

[그림 4-7] 취업요건, 취업소요기간, 취업지속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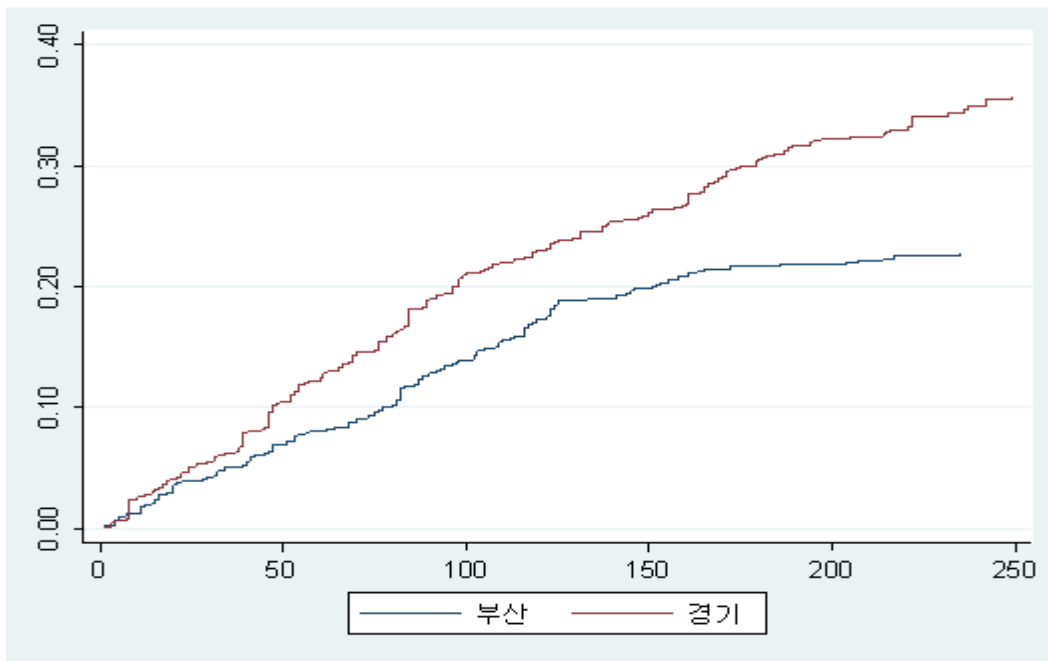
□ 따라서, 4절과 5절에서는 취업률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취업소요기간과 취업지속기간의 2가지 변수와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것임

○ 지금까지 확인되었던 부산과 경기의 취·창업률의 차이가 취업소요기간과 취업지속기간 중 어느 경로를 통해 발생하는지도 확인하게 됨

□ 부산과 경기 지역의 취·창업률의 차이는 취업소요기간의 차이에 의해 설명됨

- [그림 4-8]은 최저임금 이상을 받으며, 30일 이상 일한 직장을 찾은 참여자들의 누적비율을 소요기간에 따라 나타냄
 - 다시 말해, 사업 참여일로부터 취·창업까지 걸린 시간의 누적비율을 의미함
 - 사업 참여자가 취업까지 걸린 소요시간을 T 라고 하면, [그림 4-7]은 소요시간 T 의 누적분포함수, 즉 $F_T(t) = \Pr(T \leq t)$ 를 보여줌¹⁰⁾
- 소요기간별 취업성공자의 누적비율을 비교해 보면, 모든 시점에서 경기 지역의 취업성공 비율이 부산지역보다 높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음
 - 30일 시점의 취업성공비율이 경기도는 5.4%, 부산은 4.2%
 - 90일 시점의 취업성공비율이 경기도는 11.8%, 부산은 7.8%
 - 180일 시점의 취업성공비율이 경기도는 23.5%, 부산은 19.7%

[그림 4-8] 취업달성률



주: 가로축은 사업 참여일로부터 최저임금 및 30일 지속요건을 만족하는 취·창업까지의 경과일을 의미하며, 세로축은 각 경과일까지 누적 취·창업자 성공비율을 나타냄.

10) 정확하게는 경험적 분포함수 (empirical distribution)을 나타냄. 구체적으로 사업 참여자가 n 명, 사업 참여자 i 의 소요시간이 T_i 라고 하면, 경험적 분포함수 $G_T(t) = \frac{1}{n} \sum_{i=1}^n 1_{T_i \leq t}$ 로 정의됨. 여기서 $1_{\{ \}}$ 은 $\{ \}$ 안의 조건을 만족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 지시함수 (indicator function)을 의미함.

□ 따라서, 두 지역간 취업률의 차이는 사업 참여 후 구직에 성공하기까지 걸린 시간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음

○ 이러한 까닭에서 취업소요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이 중요함

○ 즉, 관심변수는 참여자 i 의 구직소요시간 t_i

- 즉, 최초 취업시기와 사업참여 시기와의 차이를 보기로 함

$$t_i = t_{\text{첫번째취업},i} - t_{\text{사업참여},i}$$

○ 구직소요시간의 적절히 변환(transformation)한 변수를 이용해 분석

○ 모든 참여자에 대해서 구직소요시간이 관측되지 않는다는 기술적인 문제가 존재함

- 주어진 시점, 즉 2010년 2월 28일까지 취업이 안된 가입자의 구직소요시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임

- 단순하게 ① 이들 미취업자 정보를 무시하고 소요기간이 있는 가입자만 고려하는 방식과 ② 현재까지의 기간을 소요기간을 간주하고 사용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으나 두 가지 접근방식 모두 과소추정의 오류가 있음

- 논의의 편의를 위해 $t_i > c$, 즉 구직소요기간이 c 보다 긴 가입자들은 구직소요기간이 관측되지 않는다고 가정함

· 즉, 관측치 $y_i = \min(t_i, c)$ 의 관계를 만족함

· c : 사업참여일부터 사업종료일까지의 기간

- 접근 1

· $E[t_i | t_i \leq c] \leq E[t_i]$ 의 관계로 인해 과소추정하게 됨

· 예외적으로 $\Pr(t_i > c) = 0$ 이면 위의 식의 양변이 같아져 과소추정문제가 사라지나, 이는 모든 가입자에 대해서 소요기간 정보가 관측되는 경우에만 발생함

- 접근 2

· 접근 1과 비슷한 이유에서 과소추정하게 됨, 즉

$$\begin{aligned} E[t_i] &= \Pr(t_i \leq c) \times E[t_i | t_i \leq c] + \Pr(t_i > c) \times E[t_i | t_i > c] \\ &\leq \Pr(t_i \leq c) \times E[t_i | t_i \leq c] + \Pr(t_i > c) \times E[y_i | t_i > c] \\ &= E[y_i] \end{aligned}$$

· 접근 2 역시 모든 가입자에 대해서 관측치가 이용한 경우에만 과소추정문제가 사라지게 됨

□ 로그-소요시간과 구직에 대한 생존분석 (survival analysis)이 가능

□ 선형모형 (로그-소요시간)

○ 모형

- $y_i = \min(t_i, c)$

- $\ln t_i = x_i' \beta + \varepsilon_i$, $\varepsilon_i \sim N(0, \sigma^2)$

- 위의 모형은 절단된 로그정규분포 (truncated log-normal distribution)을 따르는 것으로, 최우추정법을 이용 할 수 있음
- 분석을 위해 참여자들의 사업 참여일 정보가 있어야 하나, 현재 DB상에는 이에 대한 정보가 일부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음
 - 사업 참여일보다 취업일이 앞서는 경우가 있는 경우, 사업 확정일인 부산 3월 13일, 경기 4월 8일로 대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사업 확정일보다도 취업일이 앞서는 취·창업은 고려하지 않았음
 - 추후의 분석에서는 정확한 사업 참여일자에 자료 확보 방안 고려되어야 함
- 모형 (1)은 능력평가 점수와 지역더미 만을 넣어 소요기간을 분석함
 - 근로능력점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경기 지역이 부산지역에 비해 약 56% 증가된 소요기간을 가짐
 - 근로능력점수가 10점 증가하면, 소요기간이 약 25%정도 감소함
- 모형 (1)의 추정결과는 지역별 평균 근로능력점수를 갖는 사업 참여자의 취업소요기간에 대한 중위값은 부산과 경기 각각 약 1500일과 840일임
 - 부산 지역 참여자의 평균근로능력점수는 58.8점이며, 경기 지역 참여자의 근로능력점수의 평균은 59.5점
 - 특성 x 를 갖는 사업 참여자의 소요기간에 대한 중위값(median)은 $\exp(x'\beta)$ 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추정함¹¹⁾
- 모형 (2)를 통해 평가점수의 구체적인 요인을 통제하여 모형을 분석
 - 모형 (1)과 동일하게 지역변수가 유의한 차이를 가져옴
 - 교육수준 변수들이 소요시간에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고졸미만 학력을 비교대상으로 할 때, 고졸자는 약 46%, 대졸자는 50% 짧은 소요기간을 가짐
 - 자격증 보유 역시 소요기간을 69% 줄임
 - 건강영역에서는 장애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를 가지지 않았으나, 질병을 보유한 참여자는 건강한 참여자에 비해 약 86% 정도 긴 소요기간을 갖는다는 결과를 확인함
- 취업소요기간을 증가시키는 요인은 사업종료일 시점까지 취업달성률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됨
 - 이런 점에서 <표 4-17>의 분석은 <표 4-14>을 다른 방식으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실제 각 요인이 취업달성에 미치는 효과의 방향도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음
 - 예컨대, <표 4-17>의 모형 (2)에서 질병 보유는 취업소요기간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이는 <표 4-17>의 모형 (5)에서 질병보유가 취업성공율을 낮춘다는 결과와 부합됨

11) 구직소요기간까지의 평균값은 다소 복잡함. 특성 x 를 가진 참여자의 구직소요기간의 평균은 $\exp(x'\beta + 0.5 \times \sigma^2)$ 임.

<표 4-17> 취업소요시간 분석 (선형 회귀분석)

	(1)		(2)	
상수항	8.479 ^{***}	(0.419)	7.061 ^{***}	(0.289)
점수	-0.029 ^{***}	(0.007)		
지역더미	0.561 ^{***}	(0.132)	0.538 ^{***}	(0.136)
여성			0.429 ^{***}	(0.144)
연령1 [‡]			-0.339	(0.274)
연령2 ^{‡‡}			-0.353	(0.299)
고등학교 졸업			-0.459 ^{***}	(0.241)
대학교 졸업			-0.495 ^{**}	(0.144)
자격증 보유			-0.689 ^{***}	(0.152)
장애요인			0.228	(0.297)
질병요인			0.864 ^{***}	(0.205)
σ^2	5.018		4.875	

·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냄

* : p-value<10% , ** : p-value<5% , *** : p-value<1%

• 지역: 경기=1

‡: 연령1=연령 36세 이상 55세 이하 집단 더미

‡‡: 연령2= 연령 18세 이상 35세 이하 집단 더미

□ 생존분석 모형

○ 모형

- 위험률 (hazard rate)이 웨이블 (Weibull)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함

- 즉,

$$h(t) = \lambda p(\lambda t)^{p-1}$$

- 위험률은 시점 t까지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시점 t에 사건이 발생할 조건부 확률로 이해 가능함

- 구체적으로

$$h(t) := \frac{f(t)}{1-F(t)}$$

· T: 사건 발생 시간

· $f(t)$: 확률 변수 T의 확률밀도함수

- $F(t)$: 확률변수 T 의 누적분포함수¹²⁾
-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시점 t 까지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 즉 시점 t 까지 생존할 확률은 아래와 같이 주어짐

$$S(t) := \Pr(T \geq t) = \exp(-\lambda^p t^p)$$

- 이 모형에서 모수 p 는 시간에 따라 사건이 발생할 조건부 확률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의미함
 - 예컨대, $p=1$ 이면 시간과 무관하게 일정한 위험률을 가지게 되며, $p>1$ 이면 시간이 갈수록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증가하게 됨
- 모수 λ 는 일반적으로 참여자 특성에 따라 의존하는 부분임
 - 즉, $\lambda = \exp(x_i' \beta)$ 의 형태로 파라메트라이제이션(parametrization) 하게 됨
- 이 모형으로부터 특성 x_i 를 가진 개인 i 에서 관측되는 조건부 평균소요기간은 다음과 같게 됨

$$E[t_i | x_i] = \exp(-x_i' \beta) \Gamma(1 + p^{-1})$$

12) 암묵적으로 확률변수 T 의 누적분포함수가 연속적이라는 가정을 사용하였다. 정확한 표현을 위해서는 분모의 $1 - F(t)$ 는 $\Pr(T \geq t)$ 로 수정되어야 한다.

<표 4-18> 취업소요시간 분석 (생존분석)

	(1)		(2)	
상수항	-6.585 ^{***}	(0.344)	-5.629 ^{***}	(0.276)
지역더미	-0.396 ^{***}	(0.090)	-0.387 ^{***}	(0.093)
근로능력점수	0.021 ^{***}	(0.005)		
여성			-0.316 ^{***}	(0.096)
연령1 [†]			0.259	(0.207)
연령2 ^{‡‡}			0.318	(0.220)
고등학교 졸업			0.323 ^{***}	(0.098)
대학교 졸업			0.303 [*]	(0.164)
자격증 보유			0.537 ^{***}	(0.097)
장애요인			-0.168	(0.206)
질병요인			-0.616 ^{***}	(0.156)
p	0.770		0.778	

· ()안은 표준편차를 나타냄

* : p-value<10% , ** : p-value<5% , *** : p-value<1%

• 지역: 경기=1

†: 연령1=연령 36세 이상 55세 이하 집단 더미

‡‡: 연령2= 연령 18세 이상 35세 이하 집단 더미

□ 주어진 시점까지 요건을 만족하는 직종에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를 가정할 때, 경기 지역 참여자가 동일한 근로능력점수를 가진 부산 지역 참여자에 비해 약 22.7% 정도 높은 취업성공률을 보임

○ 앞서 소개한 위험률에 해당함

- 이는 $h(t) = \lim_{h \rightarrow 0} Pr(t < T \leq T+h | T > h)$ 가 성립하기 때문임

- 즉, 위험률은 주어진 시점 t 까지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참여자들의 시점 t 에서 취업에 성공할 조건부 확률로 해석 가능함

○ 경기 지역의 높은 (조건부) 위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성공률과 연관됨

○ 두 지역의 평균적인 참여자, 즉 평균 근로능력점수를 가지고 있는 가상적인 참여자를 가정할 때, 부산지역과 경기지역 참여자의 평균적인 소요기간은 1150일과 1960일로 나타남

□ 근로능력점수가 10점이 높은 참여자는 그렇지 않은 참여자와 비교하여 약 23.9% 높은 위험률을 가짐

- 근로능력점수가 평균에서 10점 증가할 경우 취업소요기간은 부산의 경우 1960일에서 1480일로 약 480일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됨
- 동일한 상황을 가정할 때 경기는 1150일에서 870일로 약 280일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므로, 근로능력점수와 취업소요기간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함

□ 근로능력점수 대신 근로능력점수를 구성하는 요인들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으로 취업소요기간에 대한 생존분석을 시도했고, 여기서도 이전의 추정결과들에 부합되는 사실을 확인함

- 교육수준, 자격증 보유, 질병 보유가 취업 상태로의 전환확률에 유의한 차이를 가져옴
- 고졸미만의 학력을 가진 집단과 비교하여,
- 연령은 유의한 효과를 갖지 않음
- 근로능력점수 대신 그것들의 요소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생존 분석을 다시 해봄
 - 기존의 취업률 분석과 취업소요기간 회귀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연령 수준 학력 수준, 자격증 보유 여부가 취업확률에 유의한 차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확인함
 - 56세 이상 (연령집단 3)을 기준으로 하면, 연령집단 1과 연령 집단 2는 각각 110%, 91% 높은 조건부 취업률을 보임
 - 질병이 있는 집단은 건강한 집단에 비하여 46% 정도 낮은 취업상태로의 전환률을 갖는 것으로 확인됨

5. 취업지속기간 분석(이직률 분석)

□ 취업 요건에 최소 근로기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는 직업에 취업하였을 때 근로지속기간 역시 취업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임

- 취업까지의 소요기간이 짧더라도 근로기간 역시 짧으면 부가된 취업요건을 달성하기 곤란함
- 따라서, 취업지속기간 역시 중요한 분석 대상임
 - 취업소요기간과 비슷한 방식으로 생존 분석을 하려함

-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는 모든 취·창업에서의 근로기간을 분석 대상으로 함
 - 동일한 참여자가 최저임금을 받는 취업이 2회 이상인 경우도 모두 포함함
 - 최저임금 이상을 받은 취·창업 580개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함

- <표 4-19>의 추정치는 취업 상태에서의 이탈확률을 결정하는 요인별 계수를 의미하므로, 계수의 값이 작을수록 취업지속기간이 길어짐을 의미함
 - 따라서, 계수의 값이 작을수록 취업성공여부가 개선됨

- 평균적인 근로능력점수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를 가정할 때 모형 (1)의 결과는 참여자가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는 직장에 취업한 경우 부산의 참여자는 460일, 경기지역의 참여자는 400일의 평균 근로기간을 가질 것임을 알 수 있음
 - 여기서 얻어진 결과는 다른 분석에서와는 다르게 취업 이후 부산지역 더미변수가 취업성과를 개선시키는 방향으로의 연관을 가지고 있으나, 두 지역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님
 - 두 지역 참여자 모두 30일 이내에 이직할 확률은 약 1% 정도임

- 취업 지속기간과 관련하여 성별 및 대학교육 이수여부만이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됨
 - 다른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동일한 시점에 여성은 남성에 비해 취업상태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47% 높음
 - 대학을 이수한 집단이 고졸 미만 집단에 비해 이탈할 가능성이 48% 높아서 사전적인 기대와 다름
 - 유보임금 또는 직무만족도의 차이에 기인하였을 수도 있음
 - 다른 요인들은 취업이탈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한가지 특이한 사실은 자격증 보유 여부가 이탈확률을 높인다는 것임
 - 대학교육 이수 여부와 유사한 이유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표 4-19> 취업지속시간 분석 (생존분석)

	(1)		(2)	
상수항	-7.151 ^{***}	(0.658)	-6.851 ^{***}	(0.546)
지역더미	-0.170	(0.164)	-0.125	(0.178)
근로능력점수	0.000	(0.008)		
여성			-0.636 ^{***}	(0.166)
연령1 [†]			0.073	(0.352)
연령2 ^{‡‡}			0.213	(0.384)
고등학교 졸업			-0.083	(0.176)
대학교 졸업			-0.659 [*]	(0.359)
자격증 보유			-0.038	(0.179)
장애요인			-0.380	(0.361)
질병요인			-0.259	(0.319)
p	1.185		1.206	

· ()안은 표준편차를 나타냄

* : p-value<10% , ** : p-value<5% , *** : p-value<1%

• 지역: 경기=1

†: 연령1=연령 36세 이상 55세 이하 집단 더미

‡‡: 연령2= 연령 18세 이상 35세 이하 집단 더미

□ 지금까지 취업지속기간에 대한 생존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부산과 경기 지역간 차이가 발생하는 취업성공률의 차이는 적어도 취업지속기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음

○ 따라서, 높은 취업률 또는 취업까지의 소요시간에 의해 설명됨

□ <표 4-9>의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6개월 이상 취업유지율을 이론적으로 계산해보면 72.3%라는 수치를 얻을 수 있음

○ 6개월 이상 취업유지율은 최저임금 이상을 받으며 1개월 이상 취업한 참여자가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할 확률로 정의함

○ 취업지속기간을 T 라고 하면, 6개월 이상 취업유지율은 다음과 같은 조건부확률로 나타낼 수 있음

$$(*) = \Pr(T \geq 180 | T \geq 30) = \frac{\Pr(T \geq 180)}{\Pr(T \geq 30)}$$

- 4절에서의 결과를 이용해 위의 조건부확률은 다시 다음과 같이 생존함수를 이용해 적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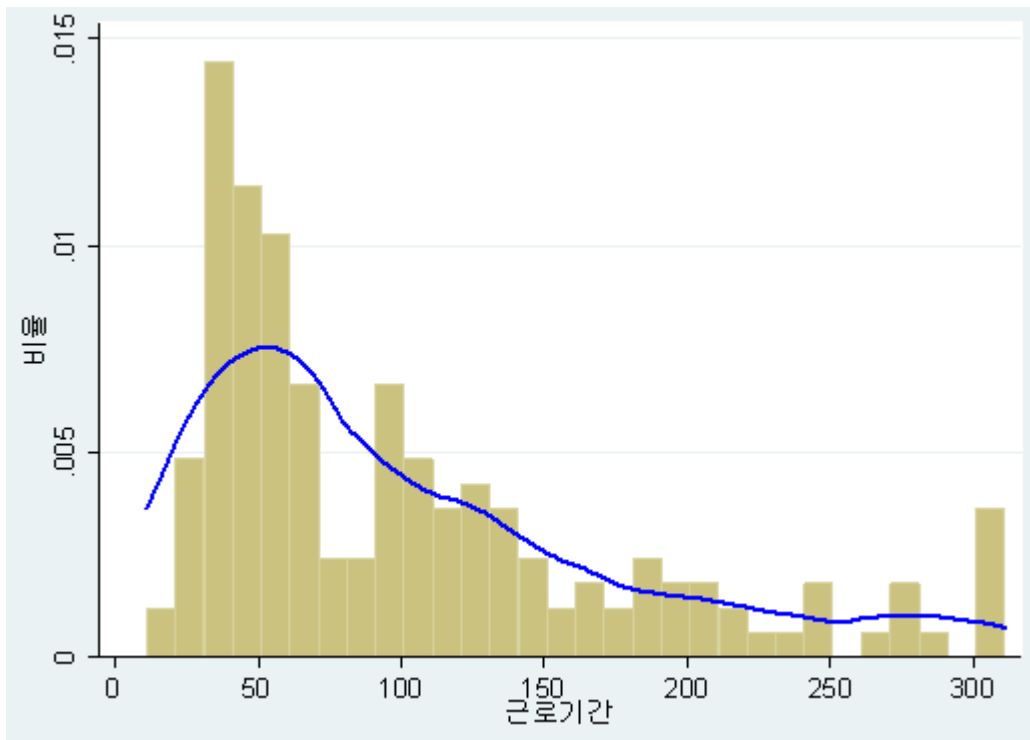
$$(*) = \frac{S(180)}{S(30)} = \frac{\exp(-\lambda^p 180^p)}{\exp(-\lambda^p 30^p)}$$

- <표 4-9>의 모형 (1)의 추정결과를 위의 식에 대입함으로써 6개월 이상 취업유지율을 계산하면, 72.3%라는 수치를 얻을 수 있음

□ 다음의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취업이 종료된 경우의 취업지속기간에 대한 분포를 살펴보기로 함

- [그림 4-9]는 종료된 취업을 대상으로 상대분포 및 평탄화된 밀도함수(smoothed density function)를 보여줌
- 취업기간이 30~40일 이후에 집중적으로 몰려있어 봉오리를 갖는 형태임
- 전체의 12%에 해당함
- 90일, 130일, 180일 이후에도 주변과 비교하여 다소 증가하는 국지적인 봉오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30일 주기로 이탈이 증가하는 이유는 월급여의 주기성에 따른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성과계약 구조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도 차후에 살펴보아야 할 것임

[그림 4-9] 근로기간 분포



주: 최저임금을 만족하고, 현재 퇴직 상태인 166개의 취·창업 지속기간 분포

6. 시범사업의 효과

□ 자활시범사업을 통해 최저임금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일자리에 30일 이상 취업 또는 창업한 참여자의 비율은 약 26.3% 수준이며, 180일 이상 근무한 참여자의 비율 역시 약 11.6%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

○ 이 수치는 2010년 2월말까지의 취업일자를 기준으로 산정되었기 때문에,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지속됨에 따라 더 증가할 수도 있음

□ 탈수급률은 현재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계산하기가 곤란함

○ 사업 b참여시점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며, 사업 참여 이후 최저임금 이상 수준에서 6개월 이상 취업한 경우를 탈수급으로 간주한다면 2010년 2월말까지 탈수급한 참여자는 153명으로, 전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비 9.8%에 해당함

- 부산 82명, 경기 71명으로 전체 134명이 이에 해당함

○ 취업률에서와 같이 추후 취업유지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차후 근로지속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탈수급률도 증가할 수 있음

□ 현재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 시범사업의 성과를 정확하게 도출하기는 곤란함

- 우선 취업률과 탈수급률의 측정하는 시점에서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임
 - 시범사업 성과는 2010년 2월말 기준이나, 복지부 자활사업 자료는 2009년 2사분기 말 기준임
 - 따라서, 복지부 자활사업의 결과가 더 큰 수치를 가질 가능성도 있음
 - 그러나, 그간 기존 자활사업의 성과가 높지 않았다고 보고되었음을 감안하면 기준 시점을 2010년 2월로 변화시키면 두 사업간 차이는 감소하겠지만, 상대적 크기가 변할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음¹³⁾
-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시범사업 참여자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통제집단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임
 - 시범사업의 성과를 구하기 위해서는 기존 자활사업 내지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들에 대한 정보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 예외적으로 제약적인 가정들이 성립한다는 조건 아래서 시범사업의 성과를 도출할 수는 있음

- 만일 우선 사업 참여시점의 기초생활수급자 집단은 사전적으로 동일한 취업률을 갖는다고 가정이 성립하고, 집계 시점에 따른 측정오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이 성립하는 경우에만 두 사업간 취업률의 차이는 시범사업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엄밀하게 고안된 실험이 부재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아래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지역별 자활사업 유형간 취업률 및 탈수급률의 차이를 통한 시범사업의 상대적 효과, 시점 효과, 사업별 참여자의 이질성 등의 요인이 복합되어 있는 결과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짐

□ 이러한 제약을 인식한다는 전제아래 차선책으로써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의 효과에 대해 기존 자활사업과의 비교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접근하고자 함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2009년도 기존 자활사업 참여를 통한 취업률과 탈수급률이¹⁴⁾ 각각 2.3%와 2.3%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시범사업의 취업률과 탈수급률은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음

- 시장진입형 자활사업으로 비교 대상을 한정하여도 취업률과 탈수급률은 각각 5.2%와 4.0%로 여전히 높은 수치임

13) 2008년 4사분기 누계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자활사업의 취업률과 탈수급률은 11.3%와 6.6%임.

14) 2009년도 2사분기까지의 누적실적임. 출처는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

□ <표 4-20>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한정되었을 때, 기존 자활사업과 시범사업의 주요 성과지표들을 비교하고 있음

- 부산과 경기 지역의 시범사업 참여자가 기존 자활사업 참여자에 비해 약 20%p정도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음
- 탈수급률도 약 7~8%p 정도 높은 수치를 보임
- 시장진입형 사업으로 한정하여 비교하면 그 차이는 줄어들기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취업률과 탈수급률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음

<표 4-20>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취업률 및 탈수급률

(단위 : %)

		시범사업 ①	복지부 자활사업			
			모든 유형 ②	시장진입형 ③	①-②	①-③
취업률	부산	20.5	1.0	4.4	19.5	16.1
	경기	26.1	2.4	6.3	23.7	19.8
탈수급률	부산	9.7	2.7	5.4	7.0	4.3
	경기	10.1	2.2	3.7	7.9	6.4

주: 복지부 자활사업 취업률 및 탈수급률은 2009년 2사분기까지의 누적실적.

V. 결 론

- 지금까지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의 DB를 이용하여, 시범사업의 3가지 측면이라 할 수 있는 사업 참여자, 제공된 서비스, 주요 성과지표 및 이들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 보았음
- 부산과 경기 두 지역 참여자들이 일부 특성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가상적인 근로능력점수를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을 때 의미있는 차이를 보인다고 보기는 어려움
 - 부산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경기지역 참여자집단의 여성비율이 높으며, 연령은 낮고, 질병보유 빈도는 낮으나, 자격증 보유자 비율은 높은 것으로 확인됨
 - 가용한 정보를 기초로 하여 근로능력점수를 구성하여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였을 때, 부산과 경기 모두 약 59점 정도의 평균점수를 갖는다는 점에서 는 사업 참여자들이 비교적 동질적이라 할 수 있음
 - 근로능력점수의 분포 및 영역별 비교에서는 차이를 보임
- 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대해 경기와 부산 두 지역은 서로 다른 경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 부산지역 참여자는 근로능력점수가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확률이 뚜렷하게 증가하였으나, 경기지역 참여자에게서는 이러한 경향이 발견되지 않았음
 - 구체적으로 부산지역 참여자는 근로능력점수가 10점 증가할 때 서비스를 제공받을 확률이 11.0%p 증가하나, 경기 지역 참여자에게서는 0.2%p의 증가만이 관측됨
 - 서비스 제공과 근로능력 사이에 어떤 관계가 바람직한지는 사업의 효율성과 형평성이란 기준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임
- 시범사업 참가자들의 취업률은 사업 참여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2월 현재 30%대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최저임금 이상, 30일 이상 취업 유지란 기준을 만족하는 사업 참여자의 비율은 전체 참여자 대비 약 31%이며, 180일 이상 취업 유지기간을 만족시키는 참여자의 비율 역시 약 12% 수준임
- 구체적인 추정치는 통제된 설명변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가상적으로 구성된 근로능력점수가 증가할 때, 취·창업확률 역시 유의한 폭으로 증가하는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음

○ 예컨대, <표 4-14>의 모형 (1)에 따르면 근로능력점수가 10점 증가할 때 취·창업확률은 약 5%p 정도 증가하는 경향을 가짐

□ 근로능력평가점수 외에도 교육수준, 질병보유 여부, 성별 등이 취·창업확률에 유의한 정도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방향은 사전적으로 기대했던 바와 일치함

□ 시범사업 참여자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에 따라 취·창업률이 유의한 수준으로 증가한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특히 취업면접서비스의 제공이 취·창업률과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

○ 취·창업률과 관련해 면담 및 실비제공도 역시 취·창업률 상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흥미로운 사실은 근로능력점수 및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후에도 경기와 부산지역의 취·창업률이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며,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부산 지역 시범사업 참여자들이 경기 지역 참여자들과 비교하여 취·창업까지의 소요기간이 더 길기 때문임

○ 취업 후 취·창업 지속기간과 관련하여서는 두 지역간 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지역간 취·창업률은 구직기간까지의 차이에 의해 설명됨

□ 취업지속기간과 관련한 추정결과는 취업 후 실직하는 비율이 낮게 유지되어 오 비교적 오랜 기간 취업이 유지될 수 있음을 암시함

○ 구체적인 추정결과로부터 부산과 경기 지역 참여자의 평균 취·창업 지속기간을 구해보면 각각 약 400일과 460일임

○ 취업이 30일까지 지속된다는 가정 아래서 180일까지 취업을 유지하는 조건부 확률로 정의되는 취업유지율이 약 72%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음

□ 제한된 가정 아래서 시범사업의 취·창업률을 기존 자활사업의 취·창업률과 비교하면 16.1~23.7%p 정도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탈수급률 역시 기존 자활사업과 비교하여 4.3~7.9%p 정도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시범사업 참여자의 기본 정보, 서비스 내역, 취·창업 관련 정보 등을 DB로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효과성 평가와 관련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으나, 2차년 이후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의 효과성 평가에 대해 보다 정확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다음이 추가적으로 요구됨

- 비교대상이 될 수 있는 통제집단에 대한 자료 확보
 - 시범사업 참여자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집단의 기본 사회인구학적 정보, 취·창업 관련 정보,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등
- 현재의 DB로 확보되기 곤란한 시범사업 참여자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확보 방안
 - 수급상태에 대한 회고적(retrospective) 정보
- 1차년도 시범사업 참여자들의 사업 종료 이후 주요 정보 확보
 - 1차년도 시범사업 참여들에 대한 주요 정보, 구체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상태, 경제활동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추적(follow-up)해야 할 것임
 - 예컨대 시범사업의 장기적 효과 및 사업의 효용(benefit)과 관련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상태에 대한 이력이 요구되기 때문임

1차년도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의 주요 쟁점과 발전 방향

2010. 3월

한국조세연구원
성과관리센터
박 노 욱

I.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의 도입 배경과 목적

□ 2000년에 제정된 기초생활보장법과 더불어 자활사업이 도입되었으며, 일부에서는 자활사업의 성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 자활사업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 더불어 도입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자활사업에의 참여 의무가 부과된 조건부 수급자와 일반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중 희망자들이 사업에 참여하였음
-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자활사업은 사업 참여 대상자 중 근로능력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참여자를 중심으로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를 통한 취업 및 창업을 목표로 운영되어 오고 있음
- 자활사업의 제공은 각 시군구에 지역자활센터를 지정하고, 민간조직인 지역 자활센터에 일정액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활서비스 제공
- 자활사업을 통하여 사업 참여자들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공동체에 참여를 통해 근로의욕 고취 및 근로 능력 유지, 소득창출 등의 일정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
- 한편, 자활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사업 참여자들에게 근로 및 취창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것이지만,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탈수급율은 한자리 수에 그치고 있음

□ 자활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민간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업의 성과와 연계된 명시적인 재정적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시도로,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을 시도하게 되었음

- 전통적으로 국가에서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으로 경제적 보조를 하는 복지 모형에서,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것이 목표가 되는 취업을 통한 사회복지 (Workfare)로의 전환이 많은 국가에서 이루어졌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기초생활보장법과 자활사업이 이러한 취지에서 도입되었음

-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은 정책 방향의 전환에 있어서, 민간에 의한 서비스 제공과 명시적 유인의 도입을 통한 서비스의 수준 향상이라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자활사업이 민간조직인 지역자활센터에 의해 제공되는 있었다는 점에서 서비스 제공자의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지역자활센터의 재원이 정부의 정액제에 가까운 사업비 제공이라는 형태로 조달되고 있으므로 완전한 민간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반면에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의 경우는, 사업자 공모에서부터 경쟁과정이 도입되었으며, 사업비의 제공도 고정급과 더불어 상당한 비중의 명시적인 성과급 요소를 도입하는 변화를 포함하고 있음
-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성과급 제공의 기준이 되는 성과지표가 취업과 경제적 자립이 주된 초점이 됨으로 인해, 사업이 추구하는 궁극적 결과가 명확해졌음

□ OECD 국가들 중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하는 복지정책의 방향 전환을 추진한 국가들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다양하게 관찰되고 있음

-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보조 수혜기간의 제한
 - 평생 수급할 수 있는 소득 보조의 수혜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수혜자의 경제적 자립 유인 강화
- 소득보조 수혜자의 의무 강화
 - 소득 보조에 대한 대가로 일정 수준의 근로 의무나 취업서비스 등에 참여할 것을 의무화
- 취업연계 서비스의 질 향상
 - 민영화 또는 성과계약을 통하여 취업연계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 취업연계 서비스의 제공 과정 및 산출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정책 방향의 전환에 따른 제도적 개편
 - 소득보조(복지행정, 실업급여) 관련 행정과 취업관련 행정의 통합
 -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인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
 -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강화
 - 준시장적인 기제 도입을 통해, 사업운영방식은 사업제공자에게 위임하고 결과중심의 성과관리 추진
- 이러한 다양한 변화는 경제적 자립을 추구하는 복지정책의 변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일회성의 독려가 아니라 사업 구조 자체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함

□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은 상기의 다양한 변화 요소 중 일부만의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기본적인 정책적 과제를 안고 있음

- 우리나라의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가 수급자들의 취업이나 탈수급 유인을 저해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구조적 한계 속에서 시도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수급 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수급에 따르는 혜택의 수준이 상당하여 탈수급이 될 정도의 경제활동을 추구할 유인이 미약함
 -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은 사업대상자의 취업 및 탈수급 유인이 강하지 않은 가운데, 사업 제공자에게 유인을 제공하여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여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겠다는 시도를 담고 있음
 - ※ 이러한 한계는 성과관리형 자활사업 대상자 중 수급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임
- 성과계약을 통하여 민간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시도는 그 자체로 해결해야 할 다양한 정책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에서 시도한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은 3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1차 연도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의 주요 쟁점을 점검하고자 함

- 본 보고서에서는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에 포함하고 있는 주요 쟁점을 요약하고, 이러한 쟁점을 중심으로 1차 연도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을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 본 보고서에서는, 일차적으로는 사업 참여자 2,000명 가운데 300명을 설문대상¹⁵⁾으로 선정하여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며, 중앙자활센터의 데이터와 사업 수행기관의 보고 자료도 필요에 따라 활용함

15) 조사 기간: 2010년 2월 17일-28일, 시범사업지역인 경기와 부산에서 각 150명씩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4.8\%$ point, 표본은 수행기관, 수혜서비스 유형, 성, 연령별로 비례할당추출, 설문조사 방식은 개별면접조사

II.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의 주요 쟁점과 1차 연도 시범사업 평가

□ 민간 서비스 제공자와의 관계에서 성과계약을 도입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임

- 재정절감 및 사업의 효과성 제고
 - 민간 조직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업의 효과성 제고
 - 경쟁과 성과계약을 통해 강한 유인 제공하여 사업의 효과성 제고
- 정부와 민간 간의 위험 분담
 - 적절한 성과계약을 통해 사업의 성공과 실패에 따른 위험을 정부와 민간 사이에 나눌 수 있음
- 해당 사회 서비스 분야를 새로운 비즈니스 분야로 육성 가능
 - 외국의 경우, 사회 서비스 제공을 영리 민간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시장 형성

□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음

- 서비스 제공자의 기회주의적 행동 가능성
 - 성과계약을 명시적으로 도입하여 서비스 제공자에게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게 되므로, 계약 조건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들이 수익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전략적 행동을 하는 것은 불가피함
 - 이러한 전략적 행동 중 대표적으로 행태가 사업 대상자 중 취업 난이도가 낮은 집단을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거나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것임
 - 이러한 기회주의적 행동을 억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적절한 계약 조건의 설정과 모니터링의 강화를 꾀할 수 있음
- 정부와 민간의 사업 상 위험 분담의 적정성
 - 사업의 중요한 성과 판단 기준인 취업률, 취업 유지율, 탈수급율과 같은 주요 성과지표들에 영향을 주는 외부요인의 존재로 인해 사업의 위험 요인이 존재함
 - 이러한 사업의 위험 요인을 정부와 민간이 어느 수준으로 부담할 것인지의 문제임
 - 이러한 위험 요인은 크게 경기 변동에 따른 실업률의 변동과 사업 대상자 수의 변화임
 - 외부 요인으로 인해 취업 난이도와 사업 대상자 수가 변화할 경우에 대해, 계약 내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의 문제임
 - 사업 초기에는 이러한 위험의 발생 확률과 위험이 초래할 파장 효과를 파악하기 곤란하므로 시행 착오가 불가피함

- 이 문제의 핵심은, 정부가 서비스 제공자들의 수익성을 지속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압력 하에 놓일 수 있으며, 이런 상황을 어떻게 회피할 것인지에 있음

○ 서비스 제공자의 유효 경쟁 유지

- 지역에서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이 사업의 주요 성공 요소 중의 하나이므로, 사업의 진행에 따라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기 힘든 진입장벽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음
- 소수의 대규모 사업자를 활용할 경우 규모의 경제 실현과 거래비용 감소의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유효 경쟁 유지에는 불리함
- 외국의 경우를 보면, 기존 사업자와의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수이며, 서비스 제공자의 수효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유효 경쟁이 유지되지 않으면, 정부가 서비스 제공자와의 계약 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큼

○ 부정행위의 발생 가능성

- 서비스 제공자의 사업 운영에 자율권을 대폭 위임하는 블랙 박스식 접근법을 취할 경우, 서비스 제공자의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취업 성과의 조작, 부적절한 비용의 집행, 비용의 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사업 담당 정부 조직은 사업의 성공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업담당 정부 조직으로부터 독립된 주체에 의한 모니터링, 감사 및 평가가 필요
- 외국의 경우, 부정행위 발생과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논의됨

○ 재정절감 효과

- 성과계약 방식 도입의 궁극적인 목적인 비용 대비 효과성을 증진시켜 재정 절감 효과를 달성하는 것임
- 성과계약 방식 도입에 따라 증가된 총 사업비용과 추가적인 행정 비용과 사업 대상자가 경제적 자립을 통하여 정부의 소득 보조에서 벗어남으로 절감되는 정부 지출의 감소를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
- 아직 외국의 사례에서도, 엄밀한 재정절감 효과의 분석이 이루어진 경우는 찾기 어려움

가. 서비스 제공자의 기회주의적 행동 가능성

□ 서비스 제공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은 성과계약의 내용에 따라 크게 두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

- 사업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취업이 용이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cream-skimming 또는 creaming현상이라고 불림

- 선정된 사업 대상자 중 취업 난이도가 낮은 사업 대상자에게 서비스가 집중 지원되고, 취업 난이도가 높은 사업 대상자에게는 최소한의 서비스만 제공되는 경우로, creaming의 또 다른 형태로 parking 현상이라고도 불림

□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의 경우, creaming현상의 문제 발생 소지는 미약하며 parking의 문제는 발생 소지가 있음**

- 사업 대상자 선정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업 대상자가 의뢰되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므로, creaming의 발생 소지가 거의 없음
 - creaming 문제를 방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업대상자 선정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것임
 - 우리나라도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업 대상자 선정 권한을 부여하지 않음으로 인해, creaming의 가능성을 원칙적으로는 방지하였다고 볼 수 있음
 - 경기지역의 경우, 수급자 비중이 70%, 차상위 비중이 30%
 - 부산지역의 경우, 수급자 비중이 85%, 차상위 비중이 15%
 - 기존 자활사업에 있어서도 수급자 비중이 72.6%, 차상위 28.4%
 - 다만, 실제 있어서 사업 참여 동의를 작성한 사람이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사업 대상자가 선정되었으므로,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에의 의욕이 높은 집단이 선택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함
- 성과계약에 취업난이도를 반영하여 성과급이 책정되지 않았으므로,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는 취업난이도가 낮은 집단에게 서비스를 집중제공하여 성과를 달성할 유인(parking)이 존재함
 - 현행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의 계약 내용에는 사업 참여자에 대한 최소서비스 기준은 설정되어 있으나, 취업, 취업유지, 탈수급에 대한 성과급 기준에는 취업 난이도가 반영되어 있지 않음

□ **성과계약의 내용 상, 취업난이도가 낮은 집단에게 서비스가 집중될 유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1차연도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parking 현상은 어느 정도 관찰되고 있음**

- 서비스 제공 대상자는 크게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서비스 관련 데이터를 보면 취업 난이도에 따라 서비스 제공량의 차이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음
 - 조세연(전병힐, 2010)에서 중앙자활센터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부산지역 참여자의 경우는 근로능력점수가 높을수록 서비스를 제공받을 확률이 유의하게 증가한다고 분석됨(경기지역의 경우는 이런 현상이 관찰되지 않음)

- 부산 지역은 근로능력점수가 10점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확률이 11.0%p 증가하나, 경기 지역은 0.2%p 증가함
 - 이렇게 서비스 제공량의 차이가 나는 것은 사업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parking 현상으로 해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음
 - 다만, 취업난이도에 따라 서비스 제공량이 달라지는 현상이 관찰된다고는 판단됨
- 취업 난이도에 따라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차이가 유의미하게 관찰되지는 않으므로, parking 문제가 심각하게 현장에서 인식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취업 난이도의 차이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양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다면, 사업 참여자들의 만족도 조사에서 이에 대한 반응이 관찰될 수 있을 것임
 -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업 난이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 제공 회수, 제공 주기, 전반적 만족도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참고)

- 경기 지역은, 세 유형으로 취업 난이도에 따라 사업 참여자를 분류하였고, 취업지원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5점 척도에 평균 4.2로 나타남
- 부산 지역은, 여섯 유형으로 사업 참여자를 분류하였으며, 취업지원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5점 척도에 평균 4.3과 4.4에 분포함

※ 취업 지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취업지원서비스	서비스내용은 내가 원하던 것이었다	서비스 내용이 취업에 도움이 되었다	제공횟수가 적당	제공주기가 적당	전반적으로 만족
■ 전 체 ■	4.2	4.1	4.1	4.1	4.3
■수행기관■					
경기자활센터	4.1	4.2	4.0	4.1	4.2
부산자활센터	4.3	4.0	4.1	4.1	4.4
■참여자유형■					
경 기 유 형1	3.9	4.3	4.0	3.9	4.2
경 기 유 형2	4.3	4.2	4.0	4.1	4.2
경 기 유 형3	4.0	4.1	4.1	4.1	4.2
부 산 유 형1	5.0	5.0	5.0	5.0	5.0
부 산 유 형2	4.1	4.1	4.1	4.1	4.4
부 산 유 형3	4.0	3.8	3.8	3.8	4.3
부 산 유 형4	4.2	4.0	4.1	4.1	4.4
부 산 유 형5	4.4	4.2	4.1	4.1	4.4
부 산 유 형6	4.3	3.9	4.2	4.2	4.4

※ 사업 수행기관이 자체적으로 실행한 프로파일링에 근거하여 조사한 내용이므로, 별도의 근로 능력평가기준(조세연 보고서)에 근거한 결과와 바로 대응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은 있음

나. 정부와 민간의 위험 분담의 적정성

□ 정부와 민간의 위험분담은 성과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의 발생으로 인한 위험 분담 문제로서, 경기 변동에 따른 실업률 증가와 사업 대상자 수의 증감과 관련이 주로 있음

- 이러한 위험 분담문제는 성과계약의 내용에 반영되며,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남
 - 사업 시행 초기에 외부 요인의 변화에 따른 위험의 크기를 판단하기 곤란할 경우, 일정 범위 이상의 외부 요인의 변화가 발생할 때는 재협상에 임한 다는 조건을 명시하기도 함
 - 한편 외부 요인의 변화에 따른 위험의 크기에 대해 합의가 가능한 경우는, 계약 조건에 일정 범위의 외부 요인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취업성공 성과급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내용을 담기도 함

□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의 경우는, 1차 연도 시범사업 내용만으로는 정부의 위험 분담 크기를 파악하기 곤란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사업비 감소 요인을 발굴하여 기본급을 줄이고, 시범사업 3년차에는 기본급과 성과급 크기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음

-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의 경우, 계약 내용에 이런 위험 분담에 관한 문제가 명시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음
- 계약조건에 위험 분담의 문제가 담기지 않았으므로 실질적인 위험분담은 사업을 위해 지급되는 기본급과 성과급의 크기에 따라 결정됨
 - 기본급의 크기가 실제 사업 비용을 보상하고 남는다면, 사업 수행기관의 위험분담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반대로 기본급의 크기가 실제 사업 비용 보다 상당히 낮다면, 사업 수행기관이 위험의 많은 부분을 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참고)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1차 연도 재정지원 구조

구분	기본급	성과급		
		취업(창업)	6개월 이상 지속시	(수급자)탈수급 (차상위자)소득규모
1인당 지원액 (430만원)	150만원	85만원	85만원	110만원

- 경기 위기로 인한 실업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목표는 초과 달성되어, 1차 연도 사업에 있어서 사업 수행기관의 위험 분담 문제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음

다. 서비스 제공자의 유효 경쟁 유지 문제

□ 민간 서비스 제공자와의 성과계약을 체결할 경우, 서비스 제공자 간의 유효한 경쟁이 존재할 필요가 있음

- 만약 다수의 민간 서비스 제공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민간사업자와의 관계에서 협상력이 열위에 놓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만약 서비스 제공자가 독점적인 위치에 있게 되면, 정부가 지속적으로 사업 수행기관의 수익성을 보장해야 하는 위치에 놓이게 될 수도 있음
- 외국의 경우를 보면, 사업의 특성상 동일지역의 수행 기관의 재계약율이 상당히 높으며, 사업 수행기관의 수효도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됨

□ 우리나라는 사업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유효 경쟁 여부에 대해 판단을 하기에는 이른 시점이지만, 유효 경쟁을 염두에 둔 사업 추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사업 수행기관 선정 과정에서 기존 자활사업 관계 기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민간 영리 기관 등이 사업 참여에 관심을 보임으로서, 동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다수의 사업 수행기관이 존재함은 확인됨
- 1차 연도 시범사업에는, 경기 지역은 기존 광역자활센터가 주축이 되어 지역자활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 제공 방식, 부산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입하여 비영리 기관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

라. 사업 추진 및 운영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중앙 기능 확보 문제

□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능이 서비스 제공자에서 계약 관리자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 사업 수행기관과의 성과계약 디자인의 적정성 확보와 사업 대상자 관리 발굴 및 관리 역량 필요
 - 성과계약에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 대상자를 발굴하여 확보하고 사업대상자의 필요를 파악하는 기능이 필요함
 - 성과계약에 프로파일링에 근거한 성과급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사업 대상자의 취업난 이도에 따른 프로파일링을 정부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성과계약 내용에 담긴 비용 및 성과급의 적정성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역량 필요

- 1차 연도 시범사업에서는 프로파일링의 필요성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프로파일링을 수행할 역량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임
 - 프로파일링을 위한 기초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필요
 - 개발된 프로파일링 도구를 활용하여 적용할 역량 확보 필요
 - 기존 자활사업에서는 기초지자체의 복지담당자들이 근로능력판정을 수행하였으나, 성과계약의 경우는 명시적인 경제적인 유인과 결부되므로, 보다 전문화된 인력이 일관성 있게 프로파일링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업 수행기관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감사 및 평가 기능의 강화 필요

- 1차 연도 시범사업은 중앙자활센터에서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했으나, 체계적인 모니터링 수행에 곤란을 겪음

마. 기타 쟁점

□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의 재정절감 효과의 판단은 1차 연도 사업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됨

- 1차 연도 사업의 성과가 목표치를 초과 달성함으로써 긍정적인 첫 출발을 했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취업 난이도가 높은 사업 대상자들이 사업에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향후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 1차 연도의 성과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음

□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또는 정합성 문제

- 성과관리형 자활사업과 중복성 또는 정합성 문제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노동부의 취업 성공패키지 사업으로 판단됨
 - 기존 자활사업의 구도 하에서는, 사업 대상에 있어서는 조건부 수급자 중 근로 능력이 있는 사업 대상자는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고, 근로능력 점수가 일정 수준 이하인 대상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사업 대상자의 구분이 이루어져 왔음
 - 자활사업에서는 일반 수급자와 차상위층 가운데에서도 희망자에 한해 참여가 이루어졌음
 -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은,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에 초점을 두고, 성과계약을 도입과 사례관리의 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사업 대상자로는 수급자와 차상위층을 포함하고 있음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차상위, 차차상위층과 근로 능력이 있는 기존 수급자도 포함
 - 쟁점은 사업 대상자의 중복과 사업에서 제공하는 유인체계의 부정합성
 - 사업 대상자의 일부 중복은 사업 간의 경쟁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기대할 수도 있으나, 양 사업이 사업 참여자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하는 유인이 다를 경우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현행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취업자에게 일회성의 취업성공 보너스를 제공함으로써,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에서 제공하지 않는 물질적 유인을 제공 하고 있음

- 희망근로사업과도 대상자의 중복과 유인체계의 부정합성 문제가 있으나, 희망근로사업은 한시적 사업이므로 지속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신규 사업 도입 시 유사 목적의 기존 사업에 대한 점검과 조율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임

- 기존 자활사업과의 관계도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기존 자활사업은 시범사업과의 조율을 통해 사업 참여자의 적절한 배분을 도모하여 사업 참여자의 혼란을 해결하여야 할 것임
 - 지자체에서 사업 대상자 발굴 및 선정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기존 자활사업과 시범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사업 대상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Ⅲ.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의 발전 방향

1. 1차연도 시범사업의 성과

□ 1차 연도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의 성과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음

- 취업률과 취업유지율에 있어서는 상당히 양호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차상위 계층 뿐 아니라 수급자들의 성과도 양호함
- 취업 연계를 목표로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명시적 유인을 도입하는 방식의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판단됨
- 각 지역에서 보고한 취업 관련 실적(2010년 2월말 현재)은 다음과 같음

<표 5-1> 성과관리형자활시범사업지역 취업자

시범지역	경기지역		부산지역	
	취업성공급 신청대상자 (최저임금 이상 직장 1개월 이상 근무)	381 명 (창업 1인)	38.2%	351 명 (창업 16인)

- 6개월 이상 취업유지 성과급 신청자는 경기지역 91명(73.4%=91/124, 부산지역 92명(60.5%=92/152)

<표 5-2> 성과관리형자활시범사업지역 6개월 이상 취업유지자

시범지역	경기지역		부산지역	
	6개월 취업유지성과급 신청대상자	147 명	79%	84 명 (창업 8명)

※ 6개월 이상 취업유지자는 (2010년 2월까지의 취업유지 성과급신청대상자수 / 2009년 9월까지의 취업자성과급 신청대상자수)로 계산되었음

- 탈수급 예상자는 경기지역 85명, 부산지역 67명 (취업 유지 6개월 이상이 경과되어야 하므로, 확정된 수치가 아님)

<표 5-3> 성과관리형자활시범사업지역 탈수급 예상자

시범지역	경기지역	부산지역
탈수급신청 대상자수	77 명	67 명

- ※ 이상의 수치는 2010년 2월말 현재 수치로, 1차 연도 사업의 최종 성과는, 일정기간이 소요되어야 확정 수치로 파악 가능
- ※ 이상의 수치는 2010년 2월말 현재 성과급 신청자 기준이므로, 실제 실적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됨

(참고) 계약서 상 최소 성과 목표

- 취업(창업)율 : 20%(200명)
- 6개월 이상 취업유지율 : 60%(120명)
- 탈수급율 : 10%(100명)

- 다만, 취업처의 특성은 여전히 근로 여건과 조건이 양호하다고만 판단할 수는 없으며 개선의 여지가 있음
- 취업자의 임금 분포
 - 경기지역 : 월 836천원 ~ 월 120만원 82%
 - 부산지역 : 월 836천원 ~ 월 120만원 53.1%

<표 5-4> 성과관리형자활시범사업지역 취업자 임금분포

시범지역	경기지역	부산지역
월 임금		
83.6 ~ 120만 원 이하	82 %	53.1 %

- 시범사업에서 제공된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다만, 설문조사 대상 선정에 있어서 편의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 설문조사 결과의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사업 대상자의 특성상,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참여자의 경우 설문 조사에 응하지 않을 확률이 크므로, selection bias의 발생 가능성이 있음
- 서비스 내용, 서비스양, 취업 성공 요인, 취업 직장에 대한 만족도 등에 있어서 상당히 양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참여자의 유형이나 중도탈락자 여부, 거주 지역, 성별 등에 따라 만족도의 차이가 유의하게 다르지 않음
 - 다만, 취창업 성공자 여부에 따라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만족도의 유의미 한차이를 보이고 있음

- 서비스 수행기관에 대한 만족도를 SERVQUAL 방식으로 측정한 결과,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사업 수행기관의 서비스 제공의 공감성이라고 나타남
 - 수행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서비스의 유형성(tangibles), 신뢰성 (reliability), 대응성(responsiveness), 보증성(assurance), 공감성(empathy)으로 분류하여 측정하였음

2. 재정절감 효과 추정

□ 재정절감 효과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경로로 기대할 수 있음

- 수급자 관련 직접 효과 : 취업 효과, 탈수급 효과
- 차상위자 관련 직접 효과 : 수급자가 되는 확률 감소
- 간접 효과 : 사회적 비용 감소
- 재정절감 효과 추정에서는 보수적으로 수급자 관련 직접 효과만 추정

□ 추정 모델

※ 본 추정모델의 주요 가정은 『자활분야 사회서비스 원가분석 및 성과지표 개발 연구보고서』(갈렘 ABC, 2008)에 근거

	단기효과(1년)	장기효과
취업으로 인한 효과	재정유입액 생계급여 절감액	평균취업 유지기간 → 취업기간 생계급여 절감액 순재정유입액의 현재가치(NPV)
탈수급으로 인한 효과	재정유입액 제 급여 절감액	기대수급기간, 재수급률 → 생애주기 제 급여 절감액 순재정유입액의 현재가치(NPV)

□ 취업 및 탈수급으로 인한 단기재정절감효과 추정치

- 1차 연도 최종 성과 추정치
 - 취업률 30%, 1년 취업유지율 60%, 탈수급률 10%
 - ※ 상기의 추정치는 수급자가 차상위층 보다는 성과가 낮을 것으로 가정하여, 시범사업의 2009년 2월까지의 실적치에서 일정율을 할인하여 보수적으로 산정된 것임

- 1인당 취업유지로 인한 재정절감액 추정치
 - 취업자 1인당 생계급여절감액
 - 8,425,785

- 1인당 탈수급으로 인한 재정절감액 추정치
 - 탈수급 1인당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 2,476,971

- 취업으로 인한 단기 재정절감 효과 추정치
 - 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수(1550) * 취업률(0.3) * 취업유지율(0.6) * 1인당 생계급여 절감액
 - 2,350,794,015

- 탈수급으로 인한 단기 재정절감 효과 추정치
 - 탈수급자수(41.85)*(탈수급 1인당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 69,107,491

□ 탈수급으로 인한 장기재정절감효과 추정치

- 장기 재정절감효과는 평균 취업유지기간 3.5년과 수급자의 평균 기대수급기간인 6.5년을 바탕으로 도출된 것임

- 취업유지로 인한 장기 재정절감액 추정치
 - 취업자 1인당 생계급여절감액 * 평균 취업유지 기간(3.5년 가정) * 취업유지자수
 - **5,876,985,038**

- 1인당 탈수급으로 인한 장기 재정절감액 추정치
 - 탈수급 1인당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기대수급기간 (6.5) * 재수급율 (0.7)
 - 3,655,172

- 탈수급으로 인한 장기 재정절감 효과 추정치
 - 탈수급자 수 * 1인당 장기 재정절감액 추정치
 - **101,979,299**

□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의 재정절감액 추정치

- 단기 재정절감액 (1년)
- 2,419,901,506
- 장기 재정절감액 (1년~6년반)
- 5,978,964,337

※ 이상의 추정치는, 아직 1차 연도 사업의 성과가 확정되지 않았고, 사업 참여자들의 데이터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기존 자활사업 현황을 바탕으로 주요 가정을 수립하고 추정한 것이므로, 잠정적인 추정치로만 받아들여야 함

※ 주요 가정은 『자활분야 사회서비스 원가분석 및 성과지표 개발 연구보고서』(갈렘 ABC, 2008)을 그대로 활용하였음

□ 이상의 잠정적인 재정절감액 잠정적인 추정치는 1차 연도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의 예산액이 각 지역별로 21억, 총 42억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비용 대비 재정절감 효과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판단됨

- 1년 단위로 보면, 18억 정도의 순비용이 발생하지만, 수급자들의 평균 수급기간인 6년 반까지의 중기적 관점으로 보면, 추가적으로 60억 정도의 재정절감 효과가 발생하여, 직접 사업비를 보상하고 남는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 단, 추정치의 범위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유의점이 있음
 - 재정절감 효과 계산에 있어서, 사업 참여자 중 450명에 달하는 차상위층을 통한 재정절감 효과와 다른 파급효과는 고려되지 않았음

다.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의 개선 및 발전 방향

□ 취업을 통한 탈수급 유인이 강화되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근로소득 증대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벗어나는 경우, 각종 현물급여 혜택이 중단되므로, 수급자의 탈수급 유인이 미약함
- 수급기간의 제한이나, 수급권을 일정 연령 이하의 계층에게는 제한하는 방식을 검토하여, 소득 창출을 통해 탈수급 하고자 하는 유인을 제도 내에 심을 필요가 있음
-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하에서 사업 참여자의 자립동기는 부족한 상태에서 서비스의 수준을 개선하여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사업 수행기관의 전략적/기회주의적 행동을 최소화할 장치 마련 필요

-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의 1차 연도에서는 성과계약의 조건이 사업수행기관이 전략적/기회주의적 행동을 할 유인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주의적 행동의 양상이 심각하지는 않았음
 - 부산지역에서만, 근로능력 점수가 높을수록 서비스 제공량이 많아지는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었으나, 참여자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참여자 유형에 관계없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므로, parking으로 인한 문제가 뚜렷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기회주의적 행동의 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두드러지지 않은 1차연도의 현상은, 선택된 두 개 지역에서만 진행되는 시범사업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모니터링이 집중될 것임을 인식하므로, 현저한 parking 전략을 채택하기에는 사업 수행기관의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2차 연도에는 시범사업 대상지역이, 인천과 전북지역으로 확대되므로, 사업수행 기관의 전략적 행동의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프로파일링 수단이 개발되지 못한 이유로, 2차 연도 성과계약에도 취업 난이도에 근거한 성과급 조항이 포함되지 못함

- 2010년에는 1차 연도 시범사업과 자활사업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취업 난이도에 따른 프로파일링 수단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의 3차 연도 계약에는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시범사업이 확대되는 경우, 직접적인 모니터링에 의해 기회주의적 행동을 제어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취업 난이도에 연계된 성과급 구조를 기본적인 수단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음
 -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목표에 부합하는 성과계약 구조를 활용하여야 함
 - 취약계층의 취업이 정책의 목표라면, 취업난이도가 높은 경우의 취업 성공에 지급되는 성과급의 크기가 커야 하며, 반대로, 취업률 제고 자체가 정책목표일 경우는, 취업 난이도에 따른 취업성공 성과급의 차등폭이 작아도 될 것임

- 프로파일링에 연계된 성과계약 뿐 아니라, 서비스 제공의 최소 기준을 명시하거나, 사업 참여자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차년도 계약에 연계시키는 방식을 통하여, 사업 수행기관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억제할 수 있음
 - 외국 사례에 의하면, 프로파일링에 연계된 성과계약 방식만으로는 완벽하게 기회주의적 행동을 방지하지 못하므로, 서비스 제공의 최소 기준을 명시하거나, 사업 참여자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재계약과 연계시키거나, 또는 사업 수행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가 발견됨

□ 정부와 사업 수행기관과의 적절한 위험 분담 문제를, 기본급과 성과급의 적정 크기와 연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성과계약의 기본급과 성과급 크기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초기이므로 판단하기에 빠른 측면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측면은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노동부의 일자리 관련 DB를 공유하도록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취업처 발굴비용을 절감하게 되면, 기본 사업비를 절감할 가능성이 있음
 - 1차 연도 사업 수행기관이 2차 연도에도 연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기와 부산지역의 경우, 1차 연도와 달리 고정 비용이 상당히 절감되므로, 계약금액 자체의 조정 필요성 검토 필요
- 3차 연도 시범사업 계약에는, 취업 난이도와 연계된 성과계약 요소를 도입하면서 동시에 기본급과 성과급의 절대적 및 상대적 크기에 대한 조정도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 과제로는, 가격 경쟁 요소를 포함하여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유효 경쟁 여건 마련을 위해, 시범사업에서는 의도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사업 수행기관에게 서비스 제공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경기지역은 기존 자활사업 경험에 근거한 사업수행기관이 선택되었으며, 부산지역은 지자체 직영 성격이 강한 비영리 기관이 선택되었음
- 2차 연도 사업 수행지역으로서 인천과 전북지역이 선정되어 지역의 다양성이 확대되고, 사업 수행기관도 민간 영리기관이 참여하여 수행기관의 성격도 다양화 되고 있음
- 향후 시범사업의 확대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이러한 사업 추진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운영을 위해 사업대상자 발굴, 서비스 기준 개발, 사업 참여자의 프로파일링 관련 업무, 사업 수행기관의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수행할 중앙 기구의 역량 강화 필요

- 현재의 중앙자활센터의 인력과 역량으로는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의 기획, 운영 및 조정 역할 수행에 난점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투자 필요
- 특히 시범사업의 확대를 염두에 둔다면, 사업 대상자의 발굴과 사업 대상자의 취업난이

도에 따른 프로파일링, 사업 수행기관의 모니터링의 기능 수행이 필수적이므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중앙 기구의 역량 개발과 확충이 필수적임

□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해소를 위한 노력 필요

- 특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의 중복성과 유인체계 부정합성 문제의 해결이 필요함
-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의 강점은 지자체를 통한 사업대상자 발굴과 취약계층의 수요에 부합하는 사례관리의 제공이므로, 차상위 계층보다는 수급자와 수급자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로 여겨지는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하여 사업대상으로 삼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경우는, 취업 성공에 대해 취업 성공자에게 일회적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식에 대한 재검토 필요하며, 사업 대상자는 수급자와 비수급 빈곤층 이상의 계층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필요
 - 취업 성공자에게 일회성 유인을 제공하여 왜곡된 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성과관리형 자활사업과의 유인체계의 정합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취업연계를 통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중요한 변화 추세 가운데 하나이므로, 중장기적으로는 취업 서비스 제공 행정과 복지 서비스 제공 행정 간의 협력관계 강화 방안 검토 필요

□ 시범사업의 성과평가를 위해, 사업평가 방법론에 부합하는 데이터 생산과 관리를 위한 투자 필요

- 시범사업 참여자와 비교될 수 있는 집단의 사업 개시 전 초기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업 종료 시점에서 비교평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생산과 관리에 투자 필요